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A STUDY ON WAYS TO FORM A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OUL AND GYEONGGI REGIONS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By

Jong Bok Kang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West Covina, California

February 2025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pproval

A STUDY ON WAYS TO FORM A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OUL AND GYEONGGI REGIONS

By

Jong Bok Kang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Approved:

Chairman·

Member:

Member:

Academic Dean:

West Covina, California

February 2025

ABSTRACT

Kang, Jong Bok. "A Study on Ways to Form a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oul and Gyeonggi Regions."
2025.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228 pp.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centered on the Seoul and Gyeonggi reg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lan for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in Korea, which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dissertation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biblical perspective on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2. What is the missiological perspective on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3. What is the context in Korea related to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4. What are some cases for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in Korea, which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a total of nine chapters. Chapter 1 is an introduction, and Chapter 2 describes the biblical perspective on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Chapter 3 describes the missiological perspective on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Chapter 4 examines the contextual perspective on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Chapter 5 describes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procedures. Chapter 6 examines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communities and types of ministry in Korea. Chapter 7 presents research analysis and results on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faith communities. Chapter 8 proposes strategies for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faith communities. Chapter 9 concludes by summarizing this study and making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Mentor's: Timothy Kiho Park, Ph.D. 241 words

개요(ABSTRACT)

Kang, Jong Bok.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2025.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228 pp

본 연구의 주제는 서울, 경기지역 중심으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2.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한 선교학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3. 한국에서의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련된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4.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한국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가?

본 논문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에서는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기술하였다. 제3장은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대한 선교학적 관점을 기술하였다. 제4장은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대한 상황적 관점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제5장은 연구방법론과 절차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6장은 한국 내에서 다문화공동체 형성과 사역 유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다문화 신앙앙공동체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분석과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8장은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9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를 요약하고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Mentor’s: Timothy Kiho Park, Ph.D. 140 words

헌정(DEDICATION)

이 논문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헌정합니다.

감사(ACKNOWLEDGEMENTS)

할렐루야! 교차문화학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과정을 연구하게 하시고 본 논문을 잘 마치도록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2022년도 교차문화학박사 과정에 입학해서 3년의 과정을 마치는 동시에 박사 학위를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개교회 목회 사역과 학교 수업과 과제를 하면서 동시에 박사 학위 논문을 쓴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완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방향과 수정에 대한 도움을 주시고, 다문화 사역에서 다문화교회 개척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시고 학문을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지도교수님이신 박기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 주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부족한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시며,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코딩과 분석과 통계작업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시고, 세세한 도움을 주신 이재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사과정 수업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의 신학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고 성경신학적 관점을 주입시켜 주신 임성은 교수님, 현장 인터뷰와 자료에 도움을 주신 연구 참여자 6명의 다문화 사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차문화학박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희생해 준 사랑하는 아내, 변함없이 아빠를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미국에 사는 자녀, 딸 예은, 아들 예찬, 사위 창희에게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Soli Deo Gloria!

목차(TABLE OF CONTENTS)

도표(LIST OF TABLES)

그림(LIST OF FIGURES)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신앙 공동체 형성에 관한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주민들이 한국에 모여 살게 되면서 한국사회는 신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발전을 위한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필자는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환경이 복음 전파의 기회라고 본다.

본 서론에서 필자는 본 연구의 배경, 연구목적, 연구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질문들, 용어정의, 연구 범위,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개요를 진술하고자 한다.

1.1 연구 배경

필자는 서울 경기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순복음신학원을 졸업하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를 공부하였고,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문학석사 학위 (MAICS)를 공부하였고, 현재는 ITS 신학대학원(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차문화학박사(DICS)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필자는 1987년 12월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역자들 가운데 하나로 사역을 하다가 1999년 12월에 홍콩선교사로 파송되어 홍콩순복음교회에서 교민을 비롯한 필리핀인, 광동인, 조선족 등 다인종 목회사역을 하였다. 또한 중국 남방 조선족, 한족 선교사역을 통해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타문화권에서 조선족 교회 개척과 소수민족 교회 개척 사역을 했고, 싱가폴과 하와이에서도 교민, 이민 및 다문화 사역을 감당했었다. 2010년 1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 여러 지성전 담임을 역임하면서 특히

남구로지성전에서는 성도비율 30%에 해당하는 조선족 다문화 사역도 경험하였다. 그리고 여의도순복음목포교회에서는 7년 사역을 통해 지방에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들의 한국에서 문화적인 갈등과 고민, 언어와 생활로 인한 고충과 애로 사항들을 보면서 다문화인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많이 생겼다.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 지축에 있는 여의도순복음벧엘교회에서 시무하면서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 여러 지역에 널리 산재하는 다문화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다문화인의 신앙공동체 형성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알아보아 어찌하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이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통해 다문화사회속에서 선교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최적의 방법과 원리들을 도출, 적용하여 다문화신앙공동체인 교회 개척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삼고자 하는 시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내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문화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나 사회적 상호관계를 파악함으로 좀더 실질적인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여 우리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다인종, 다문화인들에게 복음을 실제적으로 효과있게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들을 제시해보았다. 이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서울 경기 지역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1.3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가진다.

첫째, 다문화 신앙공동체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이해한다.

둘째, 다문화 신앙공동체에 관한 선교학적인 관점을 이해한다.

셋째, 다문화 신앙공동체에 관한 상황적인 관점을 이해한다.

넷째,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형성 사례들을 연구한다.

다섯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 방법을 제시한다.

1.4 연구 중요성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공동체 사역을 해왔던 필자에게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찰력과 확고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보다 더 바람직한 사역을 하게 해줄 것이다.

둘째,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공동체 사역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에게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사역하게 해줄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 민족들의 이주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지구촌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에게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제공해 줄 것이다.

1.5 연구 중심과제

본 연구의 중심과제는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1.6 연구 질문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둘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한 선교학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에서의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련된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넷째,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한국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가?

1.7 용어 정의

1. 다문화사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하며, 단일문화에 여러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면서 한 사회 안에 각각의 집단들이 가진 문화가 혼재하는 상태를 말한다.[1] 다문화는 하나 이상의 복수의 문화를 말한다.[2] 즉,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문화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분야와 학파에 따라,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여러 문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의 의미는 언어와 문화, 관습, 종교, 인종, 계층, 직업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의 단일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문화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3]

2. 다문화공동체: 다문화공동체란 서로 다른 다양한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이나 행동 목적 등을 함께하기 위해 이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임의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나, 다문화공동체의 명확한 뜻을 정의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대에 들어서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민과 노동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으로 전 세계에 걸쳐 이주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다양한 이점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다문화 신앙공동체(다문화교회): 기독교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종교적인 신념, 믿음, 경험, 교리 등을 공유하며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집단을 의미한다.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서로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모여 있다. 신앙과 믿음에 대한 공유와 섬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독교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해 형성되며,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 등을 함께 실시하며, 영혼구원과 복음전파, 영적 신앙생활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에서 기독교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1] 안진숙 외 1명,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서울: 동문사, 2022), 19.

[2] 이종복 외 1명,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파주: 양서원, 2013), 17.

[3] 김선녀, “한국 이주 몽골인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13), 6.

4.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나 그룹 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며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관, 믿음, 행동 양식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언어적 소통을 넘어서서, 각 문화가 가진 문화적 배경과 관행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문화적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은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5. 사회적 상호관계: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여러 문화의 단순한 공존을 넘어 문화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려는 개념이다. 상호주관성에 기반하여 공유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서로에게 문화적 다양성이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문화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문화 간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공유가능한 문화 창출 등, 인간을 존중하는 윤리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양한 문화를 적극 이해하고 포용 되어야 한다. 이질성이 차이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 논쟁 속에 소수집단의 종교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노력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새로운 사회통합성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공통의 이념이다.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념적 자원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할 패러다임이다.

1.8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에 관한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로 제한한다.

1.9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문헌연구는 풀러신학교 데이빗 알렌 하버드 도서관,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그리고 한세대 도서관, 서울 중앙도서관, 그리고 인터넷 서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현장조사로는 양적조사 및 질적조사, 그리고 참여관찰로 이루어지는 바 양적조사로는 다문화 교회개척에 종사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사역 현황 탐구와 질적조사로는 한국 다문화 교회개척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6여명에 관한 인터뷰와 사역현황, 그리고 필자의 선교 사역 경험을 토대로 한 참여 관찰로 이루어졌다.

1.10 연구 개요

본 연구는 3부로 이루어진다. 제1부는 문헌연구이고, 제2부는 현장조사이며, 제3부는 변화를 위한 제언이다.

제1부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기술하고, 제3장에서는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한 선교학적인 관점을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신앙공동체에 대한 상황적인 관점을 살펴본다.

제2부는 현장조사로 제5장에서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한국에서의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의 사례들과 사역 유형들을 분석하고, 제7장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의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한 자료분석과 결과를 도출한다.

제3부는 변화를 위한 제안으로서 제8장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9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본 연구를 요약하고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한다.

제1부

문헌연구

제2장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

사실 성경은 다문화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성경에는 다문화 형성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이주와 이주민, 그리고 이방인과 관련된 다문화적인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구약성경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에덴동산에서의 추방,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소명, 야곱 집안의 이집트 이주, 출애굽, 가나안 땅 정착, 바빌론 유배와 귀환 등 타문화권으로의 이주와 관련을 맺고 있다. 신약성경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집트 피난, 그리고 이주생활과 같았던 지상사역과 삶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원한 이방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삶과 비전을 가르쳐 주었고,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주민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다문화 현상에 대한 상황들과 이해, 그리고, 이주를 통한 다문화공동체 형성 과정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다문화사회에서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성경적 원리, 방안들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모되고 있고, 아울러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로 특징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정체성의 혼란과, 특히 기존 세계관의 혼돈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시점에서 교회가 선교신학적 관점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인 선교의 도전과 관심은 단순히 경제적 관심이나 호의적 관점이 아닌,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라는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성경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다양성과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들과 접촉하며 상호작용을 했다. 예를 들어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추방되어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내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들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리스-로마 문화(Greco-Roman culture), 유대 문화 등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성경에는 여러 다문화적인 공동체에 관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다문화적인 상황은 아마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동체들과 교회의 등장일 것이다. 사도행전에는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공동체—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성경은 이렇게 다문화현상과 다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해 기록하면서 특별히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문화(multiculture)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성경에 나타난 다문화사회와 특성, 성경에 나타난 다문화인들에 대한 이해, 편견과 포용을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다문화공동체 현상의 내용과 흐름, 방향을 다룬다.

2.1 구약에 나타난 다문화공동체

구약성경에는 다문화사회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문화의 경계를 넘어 다문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4]

---

[4] 노윤식 외 6명, *다문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53-54.

구약성경은 이스라엘민족이 이민자나 외국인과 교류하는 모습들을 종종 묘사하면서,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약시대 족장들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주의 연속이었다.[5] 이러한 이주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포용적이고, 평등적으로 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또한, 구약시대에도 다양한 다문화 가정들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첫번째 사례는 아브람의 가정이다(16:1). 사래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 아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고, 이로써 첫 번째 다문화 가정 자녀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었다. 또 다른 다문화가정을 이루었던 야곱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일흔 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 나그네로 살았고, 그 자손들이 그 곳에서 번성하였다. 이후,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모세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원적인 집단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출 19:5-6).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 이르는 이주 과정은 바로 여러 부족들을 한 민족으로 묶는 과정이었던 것이다.[6]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들을 위한 관심을 갖도록 명령하셨다.

>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신 24:19-21; cf. 출 22:21-27, 23:10-11; 신 14:28-29, 15:1-11; 레 19:9-10).

이렇듯 다문화 배경에서 형성된 성경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배려의 책무성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신 15:15). 고대 근동의 다른

---

[5] 이성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선교,* 박사학위논문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8), 12.

[6] 김명현, *성경속의 이주와 다문화* (다문화와 인간 제1권, 2012), 69-70.

나라들과 달리, 구약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나그네 환대사상”을 가졌다.[7]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동일시하도록 해서 배타주의를 완화시키고 이방인들에 대한 개방성을 갖도록 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출 22:21, cf. 23:9).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방인에 대한 처우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출 23:12).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분명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식구의 구성원이며 의존적인 지위에 있고, 환대라는 협약을 통해 가부장의 권위 아래로 들어갈 수 있었다.[8] 이방인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온 힘 없고 소외된 외부인들로서, 안식일에 쉬는 자들 목록에 포함되었고 일상의 고통으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법정에서도 불공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위해 특별한 도움의 대책을 마련해야 했었고(레 19:10), 이방인을 사랑하고 억압하지 말아야 했다(19:33-34). 이방인들은 때론 그들의 주인에게만 충성하고 이스라엘의 법과 관습의 기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자신처럼 사랑으로 대해야 되었다(19:18, 34).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또한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지냈던 시절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고(출 22:21),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을 평등한 인간으로 보시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9]

그리고 제사 법전, 약자 보호법, 우상숭배 금지법, 성 윤리, 희년법, 그리고 개종자의 법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배려를 언급하고 있다.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약자로 여겨진 보호대상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율례를 지켜야 했으며 희년법에서도 평등하게 다루어졌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과 귀환자들의 삶의 규례로서 절기와 제사에 관한 규율(레 16:29-31), 레위기의 성결법(17-26)을 처방전으로 제시하였고

[7] 장신근,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교육: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교육교회* 357권 (2007): 28.

[8] 이은성, “공생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독교 다문화교육의 과제,” *다문화와 평화* 제6권 (2012): 21-22.

[9] J. E. Hartley, *Leviticu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 (Texas: Word Books, 1992), 53.

특히 이방인의 보호 규율(18:26; 19:10)은 법과 규칙을 듣는 대상자 속에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들은 모두 정결한 삶의 제사 법전과 정결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0]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극적인 베풂의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를 보살피기 원하시며,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나눔의 자세를 갖도록 말씀하셨다(출 22:21-27).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나눔의 정신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규정에도 나타나고 있다(레 23:42-43).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주민으로서 겪었던 아픔의 경험을 잊지 말고, 그때의 고통을 통해 경제적인 약자인 과부와 고아,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주민과 나그네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받아주는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다.

하나님이 돌보라고 명하신 이방인 나그네들은 자발적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그네 계급이 된 자들이었다. 예컨데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나오미처럼 기근으로 인해 자신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게르)가 된 경우도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되어 도저히 자신의 고향에서 거주할 수 없었기에 고향을 떠나 나그네 된 사람들도 있었다(사 16:4). 이처럼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토지의 소유권이나 상속권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자들로서 가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을 하여도 노동의 댓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신 24:14-15), 정착인들이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힘들고 고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시 나그네들은 “물 긷는 자와 나무패는 자”로 불리기도 하였다(29:11).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표현(“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서 알 수 있듯이, 나그네들은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 법적인 보호 수단과 생계 수단을 충분히 갖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었기에 특별한 관심과 보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약자인 이방인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모든 민족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어울리면서 문화의 다양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다.

---

10 왕대일, “나그네 ‘게르’: 구약 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집 (2001): 114.

2.1.1 구약의 다문화인의 대안적 용어들

구약성경에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로 게르(גֵּר [ger]; stranger, alien)와 노크리(נָכְרִי [nokri]; foreigner)라는 단어들이 있다. 게르는 전쟁이나 기근 또는 가난 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동화되기를 원하는 외국인 내지는 이주민을 말한다.[11] 반면에, 노크리는 일정기간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이스라엘에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을 지칭한다.[12] 노크리가 흔히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필요 없는 안정적인 신분의 사람들인데 반하여(출 12:43-4, 신 14:21; 15:3; 17:15; 23:20, 느 13:15-17; 겔 4:7-9), 게르는 원천적으로 남의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혈연, 지연으로 인해 주어지는 보호나 특권이 없는 자들이었다.[13] 따라서 게르는 자신들의 출신지를 떠나 불가피하게 자신이 은신처로 삼은 부족이나 나라 사람들의 지배권 하에서 그들의 돌봄과 베풂에 전적으로 삶을 위탁해야 했던, [14]

---

11 게르는 히브리어로 개역성경에서 "나그네"(stranger, 창 23:4), 혹은 "우거하는 이방인"("the alien who is among you," 신 28:43)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다. 게르는 모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반영구적인 체류자 혹은 임시 거주자와 나그네 또는 새로운 이주민을 나타내는 말로서 구약에 나타나 있다(출 12:19). 신약에서 게르는 나그네 또는 외국인으로 번역되었다.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얼핏 보아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 차이가 없이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그 지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게르에 관한 다른 많은 법규가 게르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는 하급 신분의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게르는 주로 국가 간이나 국내에서 일어난 전쟁 등의 정치적 이유로 발생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난민들이 남 유다로 대량 유입됨에 따라 게르가 많아지게 되었다(대하 30:21, 25). 결국 8세기 중반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왕국의 쇠퇴는 수많은 게르를 양산해 내었다. 한편 이스라엘 초기역사에서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었다. 게르 대부분은 일용 노동자들이거나 장인들이었다(신 24:14-5). 안식일 준수를 독려하는 규정에서 쉼이 필요한 존재가 가축, 종, 나그네 순이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게르는 노동의 대가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가난한 식객들이었다. 한편, 이방출신 게르가 이스라엘에서 확실히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이룬 경우도 있었다. 사울을 죽이고 그의 죽음을 다윗에게 보고한 사람은 아말렉의 아들로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다(삼하 1:13). 하지만 대부분의 가나안 게르들은 나무를 패고 물 긷는 일을 했으며(신 29:10), 가난한 품꾼으로 일했다(신 24:14).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인 석공일을 맡겼고(대상 2:2), 솔로몬도 인구조사에서 153,600명의 게르들을 계수했다(대하 2:17-18).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제14권 1호, 2008), 75, 77, 105-06.

12 Christiana Van Houten,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 이영미 역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21.

13 왕대일, *나그네 '게르'*, 103-04.

14 Van Houten,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22.

이스라엘에서 법적, 사회적 약자로 자주 언급된 사람들이었다(신 10:18; 14:29; 16:1, 14, 19-21; 24:17; 26:12; 27:19, 시 94:6; 146:9, 렘 7:6; 2:3, 겔 2:7, 슥 7:10, 말 3:5).[15]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출 19:5-6), 다양한 여러 민족과 더불어 사는 경험도 했었다. 특히 애굽에서의 400여년 나그네 인생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나그네로 이해하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신 26:5-9)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새로운 공동체로 세울 때, 그들이 애굽의 노예 시절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 머무는 나그네에 대한 대접과 배려를 율법으로 명하셨다(출 23:9; 레 19:33-34).

2.1.2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문화적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게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였던 이유는 이스라엘민족의 뿌리가 이방인, 나그네 즉 "게르의 삶"이었고, 그들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그들의 "게르(나그네)의 삶"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16]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체류 했었던 일종의 게르로서(창 17:8; 23:4, 출 6:4), 한때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창 12:10)와 그랄 지역(20:1)에 체류하기도 했던 외국인이기도 했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26:1-6; 35:27)과 손자 야곱(28:4; 37:1; 47:9)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그의 조카 롯의 가족도 소돔과 고모라

---

15 왕대일, *나그네 '게르'*, 104.

16 이종록,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133-35.

지역에 체류했던 게르나 다름없었다(19: 9).[17] 후에 야곱의 일가족들은 이집트 고센 땅을 일종의 외국인 거주지로 분양 받아(47:4-6), 게르, 즉 나그네의 신분으로 장기간 그곳에 거주하였다(15:13, 출 2:21).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백성이 출애굽 해방의 큰 은총을 입기 전에 오랫동안 게르, 즉 나그네 신분으로 이집트에 체류 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기초하여 그들 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압제하지 말고 동족이나 가족처럼, 즉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사랑하고 보살펴 줄 것을 다양한 율법 규정들을 통하여 강조하셨던 것이다.[18]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생활에 있어서 법률적 기초가 되는 율법서이다. 율법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법정신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정신이다. 특별히, 게르(나그네)에 대한 율법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게르를 위해서 추수를 할 수 있게 했으며(신 26:1), 십일조를 통해 그들을 도와주었다(신 26:12). 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본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본토인과 게르에 대한 동일한 법적 적용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출 12:48-49).[19]

한편, 구약에서 이방인들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다문화)인에 대한 선교신학의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현지 이방인들의 신전이나 우상을 파괴하고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주하여 살아갈 때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는 가나안 종교 문화와의 혼합주의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로 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준행하는 하는 것은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

17 강성열 외 3명, *다문화 사회와 한국교회* (서울: 한들 출판사, 2010), 21-2.

18 Van Houten,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40-41, 81.

19 이종록,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137-43.

2.1.3 다인종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삶: 이방의 빛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들 간의 관계를 좀더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들 간의 관계에 대해 먼저 중요한 측면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소명에 대한 부분이다(사 41:1-4; 43:8-1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방의 빛"(a light for the nations) 으로서의 특별한 소명을 부여하셨다(49:6).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을 나타내며, 그들의 삶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책임에 관한 부분이다(출 19:5-6).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률과 규정을 따르며,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전파하는 책임이 있었다(레 19:33-34). 셋째는 이방 민족들과의 상호작용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 민족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은 종종 전쟁, 평화 협정, 혼혈 등의 형태를 취했으며, 종종 정치적, 종교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왕상 20:1-43, 왕하 6:1~14; 13:14-25). 넷째는 이방 민족들의 수용과 거부에 관한 부분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수용되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는 종종 종교적, 문화적인 이유로 발생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들 간의 관계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salvation-historical perspective)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와 다문화 민족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가 선교적이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인간과 세계의 영역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다.[20]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창 1:24-28).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인 문화명령인 것이다. 그런데 인류최초의 이주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과 그에 따른 에덴동산에서의 추방으로 시작된다.[21]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는 새로운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즉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생존할 수 있는 노동과 생존의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고 여자에게는

---

20 노윤식 외 6명, *다문화 선교*, 53-5.

21 김점옥, "이주민선교에 대한 성경 신학적 이해-하나님의 언약관점에서," 한국선교 KMQ 통권60호 (2016): 10.

임신의 고통을 통해서 생산하는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다(3:16-17). 이 모든 문화는 에덴동산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시조는 이렇게 타락과 그로 인한 추방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주로 새로운 문화를 맞이하게 되었다.[22]

구약성경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인 야벳, 셈, 함으로부터 어떻게 다문화민족들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이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9:18-19, 10:1-32, cf. 행 17:26).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다문화, 다인종과 다언어의 유래와 함께 이주에 대한 기원과 배경을 설명해 준다[23]:

>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 11:1-8)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아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여러 민족으로 분열하여 흩어지게 되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문화와 관습의 차이가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인간 공동체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이로부터 인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즉, 인류는 무리를 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주해 갔고 부족과 종족의 집단을 이룸으로 인해서 다문화 종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같은 언어를 쓰던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뉘게 됨으로 다문화공동체가 시작된 것이다.

언어의 다양화는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며 다문화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통합의 장애물이었고, 활발한 이주의 원인이 되어 다문화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24] 따라서 언어의 혼잡을 야기한 바벨탑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

[22] G. Von Rad, *국제성서주석 1: 창세기,* 김동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104.

[23] 김영애, *말은 안 통해도 선교는 통한다* (서울: 샘솟는 기쁨, 2018), 94.

[24] 벤게메렌(Van Gemeren)는 그의 저서 "The progress of redemption"에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리적, 언어적 다양성을 의도하셨고(창 1:28), 따라서 이주, 다양한 문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출이라고 주장한다. 로스(Allen P, Ross)도 그의 저서 "Creation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으로만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선교의 시작이기도 하였다.[25]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온 세상에 흩어졌지만 이것은 영원히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선교적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귀환의 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다원화가 파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일치로 향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엡 2:15, 19, 갈 3:28).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통해 천국의 백성들이 하나 된 언어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행 2:5-11, 사 66:18).

아브라함언약: 열방을 향한 축복.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다(창 12:1-9). 이것은 다문화인이 본향을 떠나 타지역에 와서 정착하며 다문화인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이주는 출발점(본토, 친척, 아비집)과 명확한 목표(큰 민족을 이루고)와 분명한 목적지(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가 있는 여정이었다. 아브라함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17:12-13). 삶의 조건이 아닌 야훼 신앙을 목적으로 한 아브라함의 이주는 결과적으로 복을 다민족, 다문화의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산된다.[26]

하나님은 아브라함(족장들)과의 언약을 통해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것과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12:3; 17:4-6, 참조. 롬 4:16-18).[27] 여기 구약의 "지상 명령"(창 12:3)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당신의 원대한 구원계획과 목적—열방을 향한 축복 (a blessing

---

and blessing"에서 인류는 그 근본이 같았으나 언어, 영역, 정치에 의해 다양하게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는 인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하고 있다.

[25] Von Rad, *창세기*, 164.

[26]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II: IVP, 2006), 202-03.

[27]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 씨(창 12:2, 15:5, 17:2), 땅(12:7, 13:14-15, 15:18, 17:8), 열국에 대한 축복(12:3, 17:4).

to all nations)을 보여준다("so that," 12:2).[28] 이후 신약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언약(12:3)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증언한다(갈 3:6-9, 16).[29]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목적은 모든 민족 백성들이 그리스도(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아브라함의 축복, 갈 3:14)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소명: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 & 이방의 빛.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주민이나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출 19:5-6, 레 19:33-34). 아울러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소명은 열방을 위한 것임을 특히 아브라함언약과 관련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

>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 19:3-6).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 받았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한, 즉, 여호와의 보살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의 열방들을 섬길 사명을 갖게 된 것이었다.[30]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비전을 이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암시하듯이,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야훼의 통치도, 온 세상 열방에 대한 야훼의 주되심도 모범으로 보여주지

[28] Walter C. Kaiser Jr.,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Israel as a Light to the* Nations (Grand Rapids, MI: Baker, 2000), 7, 19.

[29] Kaiser,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20.

[30] Andreas J. Kostenberger,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Downers Grove, III: IVP, 2001), 32.

못했다.[31]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들(특히 이사야)은 이방의 빛으로서의 야훼의 종[32]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열방의 축복을 예언하였다:

>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사 42: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

2.2 신약에 나타난 다문화공동체

신약에서의 다문화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 있다. 아울러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동과 다문화 공동체의 형성(교회)를 통해 다문화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33]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회심한 성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영적 공동체는 상이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다문화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로서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행 2:43-47).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성 차별적, 인종적 경계를 넘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배경은 다문화적 배경이었다. 예수님의 나그네 정신과 삶에 입각하여 나그네 선교 활동을 전개시킨 이가 바울이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전형적인 도시인으로(행 21:39; 22:38),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과 더불어(행 9:1-5),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자각하면서(롬 1:13, 행 9:15-16; 22:14-15; 26:16-18),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 특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신앙적 연대를 형성하고(엡 1:10), 각 지역에

---

[31] Kostenberger,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34.

[32]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예, 41:8), 이스라엘의 의로운 남은 자(예, 51:1, 7), 또는 참 이스라엘의 다가오는 구속자를 가리킬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섬기는 유일한 구속주(예: 42:1, 6; 49:6, 52:13)를 나타내는 집합적 인물이다. Kaiser,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56-57

[33] 장훈태, "다문화 사회와 교회의 선교적 대응," *복음과 선교* 제9호 (2008): 19.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세우면서 이방인의 선교사역을 이행했다(골 1:25). 이처럼 신약성경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기술하고 있다.

2.2.1 신약의 다문화인의 대안적 용어들

구약성경에서 게르(이방인, 나그네)는 신약 헬라어 성경에서 그 의미가 축소되어서 프로셀뤼토스(προσήλυτος)로 번역되어 유대교 개종자(proselyte)를 의미하고(행 2:10; 6:5; 13:43), 이교도(pagan), 이방인(gentile)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고전 12:2). 라틴어 겐테스(gentes), 헬라어 에드노스(ethnos)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을 하는 무리, 집단을 뜻하는 아카드어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제노스(xenos)라는 단어는 객우, 숙박인, 친구, 손님, 나그네, 외국인(마 25: 35, 엡 2:19),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환대하거나 영접하는 사람, 손님 등(롬 16:23)의 뜻으로 쓰인다.[34] 제노스는 고난당하는 자,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를 일컫는 구약의 게르와 토샤브와 같은 사람들이다. 제노스의 어간이 낯선 또는 외국인이라는 뜻을 의미하지만 초대받은 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노스(ξένος)로서의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약속하셨다(마 25:34-40, 히 13:1-3). 예수님은 부자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다(눅 10:37). 이 명령은 낯선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주어야 할 실제적인 책임을 고취하고 있는 것이다 (10:34).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이방인으로 호칭하는 것에서 유대인 민족 중심의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다.[35] 로버트 굴리히(Robert A. Guelich)는 1세기의 유대인이 이방인을 인식하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그 여자는 이방인이요 하는 것은 그녀가 이방인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헬라인은 주로 헬라화되거나 헬라어를 말하고 교육받은 그 당시의 상류계층을 뜻하는 반면에 초대 기독교 선교에서 헬라인이란 표현은 주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종교적으로 대조시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비유대인이나 이방인과 동의어다.[36]

---

[34] 이수환 외 6명, *다문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84-7.

[35] David Rhoads, *Reading Mark, Engaging the Gospel* (Minneapolis: Fortress, 2004), 74.

[36] Robert A. Guelich, *WBC 성경주석: 마가복음(상)*, 김철 역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1), 610.

파로이코스(πάροικος)는 외국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의 나그네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나타나지만, 환난 연단과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듯이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베드로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로 비유하면서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다(벧전 3:15-17; 4:19; 5:10). 그들은 정치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언제나 제한과 불이익을 당했다. 헬레니즘시대부터 소아시아를 포함하는 그리스 동부 지역에서 나오는 비문이나 문헌들을 살펴보면, 파로이코스는 완전한 시민이나 낯선 외부인도 아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주로 노예, 농노, 자신들의 살던 곳이나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집 없는 외국인들과 낙오자들이었다.[37]

바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외인"(제노스, strangers)도 "나그네"(파로이코스, aliens)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새로이 명명한다(엡 2:19). 그리스도인이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베드로는 성도들을 "거류민"(파로이코스, sojourners)과 "나그네"(exiles)로 칭하면서(벧전 2:11),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외국인 거주자들로 묘사하고 있다.

2.2.2 다문화적 예수님의 삶과 초대교회

신약에 나타난 다문화적 특성을 묘사하려면,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참고해야 한다(마 1:1-17). 총 42대에 걸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5명의 여인 중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다말, 라합, 룻, 밧세바)은 이스라엘역사의 중요순간에 큰 역할을 한 이방 여인들이었다.[38] 이와 같이 성경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문화 배경의 이방

---

37 박경미,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외국인 개념과 초대 기독교인의 자기의식의 표지로서의 외국인," *신학사상* 113권 (2001): 124.

38 다말은 대가 끊길 뻔한 유다에게 대를 잇게 해주고 그 유다 가문이 이후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적통가문이 되었다(창 38장). 라합은 비록 이방인 기생 출신이지만 가나안 정착시 가장 중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수 2장). 즉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후 다윗가문의 중요한 연결자가 되는 보아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룻 4:21). 룻은 특히 다문화 배경의 며느리로서 오히려 효부의 모델이 되었고 이후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룻 4:21).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 역시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린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전형적인

여인들을 포함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민족을 사용하시며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다문화주의적 구원관을 성경이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탄생과 동시에 애굽으로의 이주를 경험하였다(2:13-15). 특히 유아 시기의 다문화체험은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것은 헤롯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도피적 이주였지만, 어쨌든 당시 세계문화의 중심지였던 애굽으로의 이주경험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헤롯이 죽은 후 예수님 가정의 갈릴리로의 귀환은 또 다른 이주였다. 요셉은 헤롯 사후에도 예수의 탄생지인 유대지역이 아닌 요셉의 고향인 북쪽 갈릴리 나사렛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2:19-23).

예수님의 갈릴리로의 이주는 당시 척박한 갈릴리 민중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 중심적인 선교지역이 갈릴리 지방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 이것은 이주와 정착지가 새로운 문화를 경험케 하고,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다문화적 배경 안에서 성장하셨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으로 사셨고,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까지 랍비로 인정받게 되었다(요 3:1-2).[39] 이런 맥락에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유대주의와 국수주의를 넘어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구세주로 묘사하면서, 의도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예수님의 선교와 이방인들. 예수님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눅 4:18). 신약 기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구약 예언이 성취된 해방과 구원의 기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증언하고 있다(막 1:1, 마 14:33). 예수님에 의해 참된 해방과 평화가 임했으며, 주의 은혜가 성취되고 선포되었다(cf. 고후 6:2).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사 61:2-3)를 읽은 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고 말하셨는데, 이는 구약의 희년이 예수에 의해 기쁜 하나님 나라 소식으로 현재에 선포되었음을 의미한다(눅 4:8-30). 희년의 기쁜 소식은 표현과 자유를 구속받던 자들이 기득권자들의 구속으로부터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후 솔로몬이 국제결혼정책을 통하여 다양한 다문화 배경의 여인들을 맞이한 것 역시 어려서부터 익숙한 다문화 가정의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다.

[39] Robert W. Pazmino, *God Our Teacher* (Grand Rapids, MI: Baker, 2001), 63.

해방의 사건이 되었다(4:18).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1:45).

그리하여,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소외계층과 이방인들을 찾아갔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만나셨다. 예컨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갔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 마을사람들이 자신을 믿자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셨다(요 4:1-42). 또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던 세리인 마태의 집에 들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셨다(마 9:9-10). 아울러,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주 사역대상자로 삼았지만,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고을을 찾아다니고 이방인이나 세리와 죄인 그리고 창녀 등 당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며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한 그분의 보편적 사랑 때문이었다.

다문화공동체인 초대교회.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모든 세상을 섬기는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6);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예수님의 위임명령은 모든 족속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겠다는 약속(사 49:6)을 성취하기 위해 “야훼의 종” 예수("말씀")를 이스라엘에 보내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평화와 구원, 사 52:7)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행 10:36; 13:26).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충만한 증인들의 말씀(3:26)[40]을 통해 계속된다(눅 24:47-49; 행 1:8). 그리하여 예수님은 먼저 (열 두 제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내졌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보내졌다.[41]

초대교회에는 이방인 출신의 교회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행 6:1). 예수님이 지상명령에서 말한 ‘모든 민족’ 이라는 선교 대상은 그대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40 David G.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09), 185.

41 See Peter G. Bolt, "Mission and Witness," in *Witness to the Gospel: The Theology of Acts* (Grand Rapids: Eerdmans, 1998), 195.

참으로 초대교회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교회였다.[42] 초대교회에 나타난 다문화인 공동체는 타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적인 역할 위에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였다. 처음에는 현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지만 그 공동체가 발전함에 따라 현지인의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것도 아닌 새로운 문화를 가진 다문화인 공동체가 생성된 것이다.[43]

예루살렘교회(Jerusalem Church)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강림을 체험했던, 다양한 언어와 인종, 국가와 문화를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구성된 다문화 공동체였다(행 2:5).[44] 예루살렘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4:13; 5:5; 6:7), 오순절 성령강림을 함께 경험했던 믿음의 구성원들이 연합하여 다문화인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갔다(2:8-11). 안디옥교회(Antioch Church)는 초대교회의 디아스포라 다문화인들의 공동체였다(13:1).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를 거쳐 당시 다문화도시인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45] 따라서, 안디옥교회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비해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국제적인 다문화 도시(Multicultural City)에 위치한 하나의 다문화 공동체였던 것이었다(13:1). 안디옥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16:2), 헬라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비롯한 각각의 모국어와 헬라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인 배경을 지닌 다문화인 공동체였으며, 안디옥교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라고 일컬었다.[46]

---

42 석창원, "교회(목회)로서의 이주민 사역," *한국선교KMQ* 통권60호 (2016): 34.

43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김동화 외 3명 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2002), 330.

44 허은열, *다문화 사회와 관점에서 본 국내 무슬림 공동체*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2), 93.

45 존 스토트(John R. W. Stott)는 당시 헬라인에 의해 건설되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제적인 다문화 도시인 안디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는 등동한 시민권을 주겠다는 셀레우쿠스의 제의에 이끌려 온 많은 유대인 이민자들이 있었고, 페르시아와 인도, 심지어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도 있어 그 도시가 동방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해 주었다. 그 도시는 로마제국에 흡수되어 수리아 이방의 수도가 되었음으로 라틴 민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안디옥은 다인종적 군중들을 형성하고 있었다." John R. W. Stott, *사도행전 강해*, 정옥배 역 (서울: IVP, 2007), 237.

46 Grant Osborne, *사도행전*, 김일우 외1명 역 (서울: IVP, 2006), 293.

안디옥교회는 다문화 이주민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여러 문화와 혈통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대표적인 다문화인 교회였다.

2.2.3 바울의 다문화선교와 신학

심상법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하나의 지엽적인 지역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언제나 1세기 세계교회, 전체교회를 생각한다. 비록 바울이 편협되고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유대교에서 자랐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안에서 언제나 세계를 품고 있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지역들, 갈라디아, 유대와 예루살렘,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등, 바울은 복음 안에서 전 세계와 모든 족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천이 되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세계를 품는 크리스천(World Christian)이 되어야 한다.[47]

바울의 출생지는 작은 성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베냐민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행 21:39, 빌 3:5). 바울은 헬라문화 속에서 공원에 모여서 토론하고 사유했던 다소인들을 보면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논리적인 사고를 갖추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다(행 22:28). 당시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로마의 엄격한 법률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권(Cilates)은 다른 모든 시민보다 우월한 권리를 가진다.[48] 바울은 유대인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유대인으로(빌 3:5),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 가마리엘 밑에서 공부하였다(행 22:3). 그러나 회심 전의 바울은 교회의 박해자였다(행 7:58-8:3). 바울은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를 위한 도구로 택함받고 부름받았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9:15, cf. 22:14-15; 26:16-18; 갈 1:15-16). 그 당시에 바울은 가장 다문화적인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화하는 데 바울만큼 적절한 사람이 없었다.

사도바울은 최초의 이방인교회이면서 다문화교회인 안디옥교회에서 교회리더로 활약하였고, 선교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소아시아와 여러 나라 등 로마의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다문화적 사역을 하였다. 바울의 선교 모토는

---

[47] 심상법, *바울의 영성*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309.

[48] William M. Ramsay, *St. Paul the Traveller and the Roman Citizen* (Grand Rapids, MI: Baker, 1982), 31.

이방인, 즉 외국인 이주민들도 복음의 대상자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8-29). 바울은 구약성경의 아브라함이 그러하듯이(창 15:6), 유대인의 율법을 지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증거하였다(갈 2-3, 롬 4).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유대기독인들과 이방기독인들은 하나의 신앙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고(엡 2:14-2),[49] 인종, 신분, 성별의 구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예배공동체, 신앙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는 바울을 다문화의 조화를 통한 선교를 하였던 인물로 보았다.[50]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의 전략으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다양하게 문화적인 것을 잘 적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선교여행을 떠남과 동시에 그가 접촉하는 세계가 로마였기에 또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바울이 선교여행시에 선교와 문화적인 면과의 조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울의 선교전략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상황화(Contextualization)를 적용하여 복음을 유연하게 전한 다문화적 사도였다. 복음을 전파할 때 획일화된 방법이나 다른 문화권에서 고착된 어휘 등을 사용하여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현재와 같은 양방향 정보 시대에도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51]

---

[49] 장동민 외 9명, *하나님 나라와 이주 노동자 선교*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4), 37-8.

[50]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장훈태 외 1명 역 (서울: CLC, 2000), 61-63.

[51] 예컨대, 바울은 구원과 관련된 개념을 전달할 때 다양한 어휘를 채택하고 변형시켜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바울이 사용한 양자 됨(adoption, 갈 3:26)이란 어휘는 기쁨과 환희를 수반하는 양자 문화가 일반화되었던 당시에 구원을 설명하는 전달 도구로 유용하였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어휘와 개념이 양자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는 한국의 문화에서 전달될 때는,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바울의 사역은 사역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문화적으로 접근하며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사역의 방식과 방법을 달리했던 다문화 사역이었다. 단일문화(Mono-Culture)에 베드로가 익숙했다면 바울은 다중문화(Multi-Culture)에 익숙했고(고전 9:19-23), 유대교의 견고성은 팔레스타인 문화권 안에 제한적이었지만 기독교의 유연성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사도바울의 선교원리 가운데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방인을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시키는 사역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신들의 복음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행 13:46). 이방인에게 향한 복음은 사도바울에게 있는 핵심적인 선교원리이다.[52]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명임을 알았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13:47, cf. 사 49:6).

2.2.4 이방의 빛으로 향한 그리스도와 교회

이방의 빛으로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창 12:1-3)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는 선교를 행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말씀)을 이스라엘에 먼저 보내셨고(행 10:36; 13:26), 지금도 성령으로 무장된 증인들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사 53:12)을 "땅의 모든 족속”에 보내사 구원의 복을 주고 계시며(행 3:25-26, cf. "이방인의 빛, 사 49:5-6), 만물을 회복하실 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행 3:21, cf. 행 1:11).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 계시의 빛"이 되시고(마 4:15-16),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모으는" 사명을 넘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즉 "열방의 빛"이 되신다(사 42:6, 49:6, cf. 행 13:47). 다시 말해, 하나님은

---

[52] 조귀삼, *사도바울의 선교신학* (안양: 세계다문화미디어, 2013), 101.

예수님("이스라엘", 사 49:3)에게 열방(이방인)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의 백성(참이스라엘; 교회)의 복음증거를 통해 정의/구원의 축복을 땅 끝까지 펼칠 것이다.[53]

이방의 빛으로서의 교회.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하듯이(눅 2:32),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방의 빛"된 선교사명을 가지고 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바울과 바나바)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행 13:47; 나의 강조) 따라서 교회는 모든 민족을 향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보편적 선교에 참여하며, 모든 민족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선포해야 한다(행 26:23; cf. 눅 24:47). 리더보스(Ridderbos)가 주지하듯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계명은 …… 하나님 나라 전파의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은 이주명령과 선교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행 1:8). 그것은 땅 끝까지 이주하여 주님의 증언자가 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타문화권으로의 이주는 선교의 전제가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명령은 민족, 다문화 선교 사역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1:8).[54]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바벨탑사건 이후 고착된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뛰어 넘어 교회를 초문화적 공동체(Cross-Cultural Community)로 세우신 혁명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이후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났다(행 10:44-46).[55] 그리하여 열 두 제자가 모인 예루살렘의 작은 모임(행 1-7)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행 8-12)을 거쳐 바울이 로마에서 이방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땅 끝까지", 13[cf. 13:47]-28)까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복음"[56]의 전진을 묘사하면서, 로마를 넘어서 온 세상("땅

---

53 Kaiser,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55.

54 심상길, *다문화신학과 목회* (서울: 도서출판 더북, 2014), 124.

55 정현곤,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선교적 접근 연구-다중성 정체성을 품는 신적 포용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93.

56 참조, 행 6:7; 12:24; 19:20; cf. 사 2:3; 미 4:2; 또한 행 4:31; 8:14, 25; 11:1; 13:5, 7,44, 46, 48; 16:32; 17:13; 18:11.

끝까지")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상한다.[57] 미완성된 선교 목표는 믿는 증인으로서 교회가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28:30-31; cf. "계속되리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열방의 빛된 교회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8:28).

흩어진 나그네교회로서의 다문화 천국비전. 세상 속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벧전 1:1)와 거류민(2:11)[58]과 같은 유동적인 박해상황가운데서 삶을 영위하지만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견지하고 사는 자들이다.[59]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교회를 향해 사회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일을 통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권면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2:12). 이는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부여된 선교적 사명이라 하겠다.[60]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온민족들로 구성된 천국 백성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종말론적인 천국교회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 5: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 7:9-10).

이러한 하나님나라의 환상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모으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화와 연합을 이루는 다문화

---

[57] Brian S. Rosner, *The Progress of the Word*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230-32.

[58] 나그네가 단기체류자라면, 거류민은 장기체류자라고 할 수 있다. 나그네와 거류민은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영적인 메타포(metaphor)임과 동시에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를 피하여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59] Daniel G. Groody, *A Promised Land, a Perilous Journey: Theological Perspectives on Migr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8), 26.

[60] 정현곤,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선교적 접근 연구*, 98.

천국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민족들의 다양성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계 5:9). 예수님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인종 간, 민족 간의 다양성과 화합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결론적으로, 이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다문화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는 종말론적인 천국교회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방의 빛으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2.3 요약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다문화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성경에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직접 다루는 내용은 별로 없지만, 문화의 경계를 넘어 다문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주와 이스라엘의 유랑들을 통한 역사적 다문화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동,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다문화공동체인 교회의 형성과 미션, 천국비전을 살펴보았다. 성경에 나타난 다문화공동체와 관련한 성경적인 원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61]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God’s own image and likeness, 창 1:25-27)을 따라 창조하셨다. 따라서, 모든 인종과 민족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동일한 지위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언약을 통한 열방의 축복(a blessing to all nations, 창 12:1-3)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내재된 세계적이고 다민족적인 선교비전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창 12:1-3), 그 약속은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갈 3:6-9, 16). 따라서,

---

[61] J. Daniel. Hays, *From Every People and Nation: A Biblical Theology of Race*, ed. D. A. Carson, vol. 14,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Downers Grove, IL; England: InterVarsity Press; Apollos, 2003), 201-06.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목적이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회적 약자인 게르 즉 그 당시 다문화인들을 보호하는 율법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교회의 다문화인 선교방법론에는 다문화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치, 경제, 법률적인 도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문화인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법률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삶의 현장에서 정치 경제적인 배려와 도움도 주어야 한다.[62] 아울러 가나안 종교문화와의 혼합주의를 경계한 율법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다문화인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종교 문화적 혼합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열방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새로운 인류(one new man)를 형성한다(엡 2:14-18). 민족 간 적대감과 분열의 오래된 장벽은 십자가로 무너졌고, 이제 모든 민족과 모든 집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안에서 인간의 새로운 정체성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인간 사회학적 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한다(엡 4:4-6).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한 가족, 동료 상속자이자 형제자매이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열방의 빛으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마 28:19-20; 눅 24:46-49; 행 1:6-8).

여섯째,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민족 다문화 회중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천국교회비전을 추구해야 한다(계 5:9).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모든 인종, 민족, 국가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어린양의 구속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하나가 될 것이다(계 7:9-10, 21:22-24).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공동체의 현존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다문화인 선교의 목적과 도전을 제공한다. 다문화인 선교의 도전과 관심은 단순히 경제적 관심이나

---

[62] 노윤식 외 6명, *다문화 선교*, 70-2.

호의적 관점이 아닌,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라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요 20:21)라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63] 성경적 다문화인 선교신학은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복음전파를 그 최우선적 임무로 하는 선교적 목표와, 다문화인의 어려움을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

63 강성열 외 3인, *다문화 사회와 한국교회*, 60.

제3장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대한 선교학적 관점

선교는 개인의 회심과 삶의 변화를 포괄하면서도 개인이 관계된 영역 즉 사회와 문화 그리고 세계와 그에 대한 인식의 변혁을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복음은 개인의 죄의식과 그로 인한 불안과 공포뿐만 아니라 사상, 제도, 인종을 비롯한 사회적 계층과 문화까지 아우르는 혁명적이고 본질적인 변혁의 주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맥락에서 선교는 인간 죄성의 영향력 아래 있는 왜곡된 세계관과 문화에 대한 선교적 변혁마저도 요청한다. 그러나 선교의 가장 큰 장벽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인지한다면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 또한 문화적 교회형성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3.1 복음과 문화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

복음과 문화에 대한 이해는 선교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복음을 선언하고 전파할 때 그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은 불변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문화의 언어, 관행,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 이것은 복음을 문화적으로 번역하고, 수용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이 선교하는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는 해당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과 관습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적응은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복음은 문화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문화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정의, 교육, 보건,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문화 간의 비교와 연구를 통해 복음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한다. 즉, 다문화적인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문화 간의 이해와 조화를 추구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화화(Inculturation)가 중요한 선교 모델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복음은 모든 문화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교회는 모든 새로운 문화 속에서 성육화해야 한다. 문화화는 다양성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복음이 여러 문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는 성육신의 모델을 따른다.[64] 복음이 문화속에 뿌리를 내려 문화로 성육화되어야 하는 것을 선교의 기본으로 언급한 것이다.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외래적인 방법보다는 전통 문화적이며 성경적 의미를 가진 문화적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65]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가 문화적 옷을 입고 있으며 현지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자신의 문화, 성경의 문화, 그리고 선교 현지인의 문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초자연적 진리를 전시하시기 위해 자신의 문화를 적대시하지 않고 수용하셨다. 예수님을 본받아 수신자 지향적(Receptor-Oriented)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수신자인 현지인 문화를 존종하고 그 안에서 사역해야 한다. 그들의 문화를 우리 문화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고 간주하고 현지인들의 문화를 타락한 문화로 간주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66]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가 제시하는 다양한 진리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며 혼재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선교모델을 구상해야 한다.[67]

3.1.1 복음과 문화에 대한 견해들

복음과 문화에 대한 견해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폴 히버티의 이해, 리차드 니이버의 이해, 김영동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

64 Johannes Nissen, *신약성경과 선교*, 최동규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264.
65 Charles Kraft, *기독교와 문화*, 임윤택 외 1명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34, 36.
66 Kraft, *기독교와 문화*, 27-8.
67 한국일 외 5명, *이주민선교와 신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181.

폴 히버트의 이해. 폴 히버트(Paul Hiebert)은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잃지 않은 채 온전한 인간이 되셨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진수를 잃지 않은 채 문화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 전달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폴 히버트는 문화적 상대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에 대해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문화 신학(Transcultural Theology)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초문화 신학이란 성경의 초월적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각 신학들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신학을 말한다. 히버트는 초문화 신학의 성경적인 근거로써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원리인 만인 제사장설을 근거로 든다. 히버트는 초문화 신학이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 초문화 신학은 인간 문화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성을 강조하지만, 특정한 문화적 상황하에서 특정 문화의 독특한 특성을 갖는 현지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문화는 기본적인 면에서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전적으로 다르다고만 할 수 없다. 이러한 공통점을 서로 발견해 나아가면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선교사들은 서로가 가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초문화적 관점을 배양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히버트가 소개하는 초문화 신학은 우리가 처한 각각 다른 문화들을 초월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68]

리차드 니이버의 이해. 리차드 니이버(H. Richard Niebuhr)은 그리스도는 문화 속에 그리고 문화 위에 있으며 새로운 문화와 대립해서 문화의 변혁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이며, 선교는 문화의 변혁을 몰고 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문화의 변혁자로서 그리스도를 다른 문화에 심는 과정에서 선교사의 문화를 복음과 동일시한다든가 또는 서양문화의 우월성이라는 문화적 오만에서 복음에 서양문화를 덧입혀서 전달하는 것에 있다. [69]

김영동의 이해. 김영동은 복음과 문화의 창조적 긴장이란 기본적인 입장에서 세가지 모델을 통전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복음과 문화의 대립인데, 복음과 문화는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 복음은 모든 인간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68] 임윤택,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선교 신학적 Legacy” (미션파트너스 설악포럼 16회, 2005), https://missionpartners.kr/.

[69] 주 바나바, “선교와 문화” (총회세계선교대학 교재), https://tkjoo.tistory.com/11464874.

계시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어느 하나의 문화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화에 적절히 표현될 수 없다. 둘째, 문화 속의 복음인데, 복음이 인간 문화들과 구별되어야 마땅하나, 문화적 형태 안에서 표현되어야 함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언어와 상장과 예식으로부터 분리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복음은 사람들이 믿고 듣고 믿게 될 때, 문화적 형태 안에서 성육신되어야 한다. 여기에 복음의 상황화가 제기된다. 세째, 문하에 대항하는 복음인데, 문화의 변혁자로서 복음은 모든 문화가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가지는 문화의 죄악된 구조와 관습은 심판 받고 변화되어야 한다. 문화의 부정적이고 사단적이며 비인간적인 악의 요소를 도전하고 심판하고 개혁하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과제이다.[70]

3.2 다문화 신앙공동체와 다문화정책 유형

필자는 다문화 사회에서 균형잡힌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관점을 갖기 위하여 다문화사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다문화정책 유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2.1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기업, 도시 또는 국가와 같은 조직적 수준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기초로 특정장소의 인구학적 구성에 적용되는 다양한 인종 문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는 현대 사회가 평등한 문화적, 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화집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71] 다문화주의를 일반적으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로 이해하기도 한다.[72] 또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

[70] 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275-77.

[71]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서울: 동녘, 2008), 89.

[72] 윤인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제42집 (2008): 73.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로 보기도 한다.[73]

그 외에도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정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정의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인식 및 실존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 국가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의 혼재와 공존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문화적 동일화의 논리만을 고집하여 다른 문화나 다양한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74]

다문화주의는 이상적인 치원에서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 문화, 제도, 정서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집합적 노력을 의미한다. 협의의 제도적 차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뜻할 수도 있다.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언어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일종의 국민통합,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구체적인 일단의 정책을 유도해내는 지도원리라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의 보장,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의 상호 이해 촉진, 소수집단 간의 교류, 사회 전반적인 평등수준의 향상과 구조적 차별의 극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 사회, 개인 수준에서 광범위한 이해와 합의를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현된다.[75]

또한 다문화주의는 이주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현대사회가 평등한 문화적, 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화집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서구에서는 특히 교육과

---

73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제43집 (1995): 81.

74 Charles Taylor, *Multicultur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25.

75 전숙자 외 2명,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9), 16.

관련하여 현대사회의 생활이 점차 복잡한 성향을 띤다는 인식 아래 여성 문화, 비서구 문화 등을 정규 교육과정에 더 많이 포함시키려는 취지를 지칭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와 혼동되는 개념으로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가 있는데, 이는 여러 집단이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여러 집단이 공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의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에서도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76] 이렇듯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그 철학적 기반, 정의, 정책 등에 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문화주의는 좁은 의미에서 이주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일컬어진다.

3.2.2 용광로 이론

용광로이론은 기본적으로 동화주의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의 주류집단인 다수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와 소수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를 용광로에 모두 녹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를 통합하려는 정책이 그것이다. 용광로이론은 동화주의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수인종과 민족이 자신의 언어, 종교, 관습 등을 포기하고 그 사회의 주류집단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함으로써 소수인종과 민족의 문화와 인권이 침해되고 주류집단과 소수인종이나 민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77]

용광로 모형은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이 지닌 문화, 종교, 가치관, 생활방식의 차이들이 혼합되어 하나의 공통된 사회적 및 문화적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개념은 여러 금속들을 고온에서 녹여 보다 강하고 많은 장점을 지닌 새로운 혼합물로 만들어 내는 용광로에서 따왔다. 이런 관점에서 용광로 모형은 한편으로 이질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보다 동질적인 요소를 지닌 사회로 변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이한 요소들이 함께 합쳐져서 공통된 문화를 지닌 하나의 조화로운 사회를 변해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용광로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다양한

---

[76] 최경구, *조합주의 복지국가* (서울: 한나래, 1993), 90-91.

[77] 서윤호,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다문화법제의 기본개념 분석," *일감법학* 제23호 (2010): 293.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통된 문화와 정체성을 이끌어 내는 미국사회를 꼽을 수 있다. 이상적으로 용광로 모형은 공통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각 집단의 문화가 각기 기여하도록 가정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집단이 똑같은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집단이 기존의 주류사회와 문화에 흡수되거나 녹아 들어 동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78]

3.2.3 모자이크 이론

모자이크이론은 통합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입장에서 다문화정책을 추진한다. 주류집단의 문화뿐만 아니라 소수인종과 민족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들이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책이다. 모자이크이론에서는 소수인종과 민족의 문화를 허용하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론에서는 다수의 인종과 민족이 누리는 문화를 주류집단의 문화로 인정한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소수인종과 민족의 문화를 허용하기 때문에, 결국 소수인종과 민족의 문화는 주류집단의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변문화로 전락하게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79]

모자이크 모형은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들의 문화가 서로 공존한 채로 합쳐져서 한 사회의 전체 문화를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개별 문화는 구성요소가 되고 이것들이 짜맞추어져 하나의 통합된 전체 문화를 형성한다. 이 같은 모습은 여러 색깔의 조각들이 붙여져서 만들어지는 다양하면서도 조화로운 색깔을 내는 모자이크에 비유될 수 있다. 모자이크에서 개별 조각의 모양과 색이 그래도 유지되듯이 모자이크 모형에서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모습과 특성은 전체 문화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모자이크 모형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도 고국과 계속 연결을 하고 또 고국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정착지의 사회 또한 이러한

---

78 이정환,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교육: Volume IV, 다문화 사회의 시민 교육*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0), 6.

79 서윤호,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294.

활동을 장려한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모자이크 모형은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 샐러드그릇 모형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80]

3.2.4 샐러드그릇 이론

샐러드그릇 모형은 한 사회 내의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들이 자기네 고유한 문화를 유지한 채 합쳐져서 전체의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샐러드그릇 모형은 샐러드그릇 안의 재료들이 각자의 모습과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체 샐러드 요리를 구성하는 형태에 비유될 수 있다. 샐러드그릇 모형에 의하면 새로운 이주민들은 용광로 모형에서처럼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버리고 기존의 주류 문화에 흡수,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전체 문화의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 통합된 전체 문화는 각 인종과 민족 집단의 문화가 병렬로 상호 공존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갖는다. 샐러드에서 각 재료를 확인할 수 있듯이 통합된 전체 문화에서도 각 문화의 개별성은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다. 샐러드그릇 모형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 모자이크 모형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81]

샐러드 접시 이론은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다문화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다문화주의에 따라 주류집단이 소수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존하는 정책을 말한다. 샐러드 접시 이론은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를 녹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를 나열해 놓은 것도 아니고,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를 결합하지만 각 집단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이 이론에 기초한 다문화정책은 문화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이 동등하게 공존하도록 소수인종과 민족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82] 이렇게 볼 때 다문화주의에 대해

---

80 이정환,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교육*, 7.
81 이정환,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교육*, 6.
82 서윤호,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294.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대체로 다문화주의 또는 샐러드그릇 이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통합주의 또는 모자이크이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3 선교와 문화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

선교를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83]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끊임없이 주와 구주로서 다스리고 계시며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권위이며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의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그리고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이다.[84] 이 복음은 인간의 진공상태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적인 토양에 청자의 모국어로 전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특히 여러 문화가 한 시대에 한 공간에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의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회개척을 위한 선교학적 관점을 고찰할 때 선교 특히 문화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를 살펴보았다.

3.3.1 선교와 문화에 대한 견해들

선교와 문화에 대한 견해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스테판 닐의 이해, 하워드 마샬의 이해, 아난다 쿠발의 이해, 랄프 윈터의 이해, 찰스 크래프트의 이해, 그리고 찰스 밴 엥겐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

83 John R.W.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75), 35.

84 Stott, *Christian Mission*, 54-5.

스테판 닐의 이해. 선교역사학자 스테판 닐(Stephen C. Neill)은 복음은 문화를 창조하는 동시에 파괴자이며 보수자라고 했다.[85] 즉 복음은 인간의 삶의 역사가운데 문화와 관련하여 전 영역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음은 다문화사회에서 성경적인 바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반대되는 잘못된 문화를 고치고 좋은 문화는 보존하는 역할 즉 문화 변혁을 일으킨다.

하워드 마샬의 이해. 신약신학자 하워드 마샬(I. Howard Marshall)은 문화는 인간이 환경을 이용하고 조종한 전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복음의 형태로써 문화의 효과성을 그리고 문화로 표출되는 복음의 효과성을 나타낸다고 했다.[86] 이것은 성경이 당시 팔레스타인과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문화의 형태인 언어 즉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당시의 인간이 창출한 문화의 실체인 언어로 신약성경이 기록되어 효과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또한 전달할 수 있었다.

아난다 쿠말의 이해. 구약신학자 아난다 쿠말(Ananda Kumar)은 구약성경의 저자들이 영감 된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문화적인 환경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말씀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87] 즉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 나타난 문화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선교와 문화는 깊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랄프 윈트의 이해. 선교학자 랄프 윈트(Ralph D. Winter)는 기독교가 탁월하게 유일하게 세계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어느 종교보다 다양한 인간 문화집단속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88] 기독교 복음은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윤리를 발전시키고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바빙크(J.H. Bavinck)의 엘렝틱스(Elenctics) 선교

---

85 Robert T. Coote and John Stott, *Down to Earth Religion and Culture: Studies in Christianity and Culture* (Grandrapids, Michigan: Eerdmans, 1980), 3.

86 Stott, *Christian Mission*, 25-6.

87 Stott, *Christian Mission*, 47.

88 Ralph D. Winter, *비서구 선교운동사*, 임윤택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2), 21.

이론에 부합한다.[89] 엘렝틱스는 '부끄럽게 한다'는 의미로 요한복음 16장8절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대항하여 죄를 범하는 모든 잘못된 다중종교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로 하여금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복음이 다문화사회에 전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비교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복음의 진리가 거짓된 문화를 부끄럽게 하므로 복음으로 문화를 변혁시키는 성령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찰스 크래프트의 이해. 크래프트(Charles H. Kraft)는 문화와 세계관의 개념을 신학방법론에 접목한다. 선교 신학 작업을 위한 다문화적 모델들을 문화 속의 기독교(Christianity in Culture)에서 다루었다. 그는 타문화 권에서도 유효한 신학작업 (Cross-culturally valid theologizing)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다문화(Multicultural) 사회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전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성경에 기초한 신학 모델들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양한 문화적 현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시도하여야만 한다. 다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인 신학적 성찰을 위해서, 그는 타문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인류학, 언어학, 번역이론과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을 신학화 작업을 위한 도구로 제시하며, 독특한 신학 방법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크래프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 하시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크래프트는 단일 문화적(mono-cultural) 사고 체계가 타문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논증하며 타문화권에서도 유효한 신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언어학, 문화 인류학적 접근은 선교 현지 문화에 적절한 언어와 문화를 강조하였다. 서구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양 선교사들의 맹점을 질타했다. 크래프트는 무엇보다 단일 문화권이 아닌 다양한 선교지 문화에서 신학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90]

---

[89] J. H. Bavinc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1964), 222.

[90] 임윤택,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선교 신학적 Legacy*, https://missionpartners.kr/.

찰스 벤 엔겐의 이해. 벤 엔겐(Charles Van Engen)은 조직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참 교회를 규명하고, 그것을 교회 성장 이론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 현대 교회론, 성경신학, 역사, 그리고 선교에서 참 교회의 모습을 찾아내어, 성장(growth)과 추수 (Harvest)의 개념을 '성장을 갈망함'(Yearning for the Growth)으로 정리했다. 갈망함은 성공과 실패, 충성스러움과 나태함, 온전함과 결함을 판단하는 가치기준이 아니라, 다른 모든 동기들을 함축하는 언약의 보편적 의도(universal intention)를 말한다. 보편적 의도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증가가 실제 숫자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벤 엔겐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발전시켜, 지역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규명하였다. 교회의 참 모습을,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 그리고 선교를 총괄하는 선교하는 교회 패러다임으로 풀어나간다. 지역 교회는 확실하게 우주적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선교하고 있으며, 그 선교적 본질을 생활해 나갈 때 지역 교회는 우주적 교회로 형성되어 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교회가 선교적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직접 선교활동을 통하여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때에만 지역 교회는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는 지역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연결시켜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을 제시한다. 세상에서 선교하는 지역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 성장학에서 권하는 담대한 목표(Bold Plan)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목표와 성도, 교회 리더십, 그리고 교회 행정까지 구체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적 본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 본질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교회를 둘러싼 다양한 문화들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문화 상황에 적절한 교회가 되고, 왕의 언약 공동체 본연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선교신학적인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91]

91 임윤택, *우리가 물려받아야.*

3.4 다문화에 대한 선교의 근거들

다문화에 대한 선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선교 활동이다. 성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인종과 문화, 국가와 민족의 모든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대한 인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수환은 "성경은 다문화 이주민 선교신학의 기원과 출발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92]고 언급했다. 사실 성경에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근거와 그로 인한 선교학적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이로 인해 아브람은 갈대아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세계적인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문화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가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다문화적인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모든 종족과 국가가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따라서 다문화를 향한 선교학적 측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상호 작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92 이수환, *한국교회와 선교신학* (용인: 도서출판 목양, 2013), 225.

3.4.1 이신칭의론

다문화 선교의 근거는 칭의론이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명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곧 어느 민족이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다문화선교를 강조한다. 칭의론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의인이란 말 자체가 행함을 내포한 말이다. 의인은 본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창 6:9, 눅 1:6).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한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란 말을 들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신 6:25). "이 두 사람(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눅 1:6).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인 이유는 "그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기" 때문이다.[93] 이렇게 의인은 행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더라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믿음과 행함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믿음과 행함을 균형 있게 교차해서 다루고 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된 믿음이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무법자로 차별당하는 이방인 기독자의 권리회복을 옹호하기 위한 이론적 무기로 칭의론을 전개한 것이지 행함이 필요 없는 믿음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94]

칭의론은 복음의 보편성, 곧 다문화선교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 이론이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배의식, 생활방식과 전도방법 등에 있어서 여전히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반해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적 제한들로부터 상당히

---

[93] 임태수. *행함 있는 믿음(fide cum opere)으로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 로마서 1:17; 고전 6:8-10* (기독교학술원, 2016), 3.

[94] 김창락. "바울의 의인론: 무엇이 문제인가?" *신학연구* 제27집 (1986): 283.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요구당하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를 지킬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것이다.

> 할례와 음식 규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 짓는 뛰어넘을 수 없는 판별 기준이었다. 이 기준을 철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지 못한 이방인 사이의 구별을 철폐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일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반기를 들었다. 여기서 양측 사이에 심각한 논쟁과 충돌이 생겼다. 이 싸움은 유대계 그리스도인 측에서 보면 유대 민족의 특수성이 부정 당하느냐 아니면 유지되느냐는 문제이며, 이방계 그리스도인 측에서 보면 그리스도교의 독자적 정체성이 확립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교가 결국 유대교의 한 종파로 머물게 되느냐는 문제였다.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다.[95]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선동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 예루살렘 회의를 발의한다. 즉 예루살렘 회의의 목적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의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바울의 의도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여 그들을 설득함으로써, 그들을 자기편으로 끌어오는 동시에 거짓 형제들을 고립시켜 그들의 주장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바울의 작전은 훌륭하게 성공했다.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양 교회가 각자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 규정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게바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음을 기술한다(갈 2:11-14). 게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다는 것이다. 바울은 게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했다고 말한다. 복음의 진리란 무엇이며 게바의 처신이 왜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었는지를 올바로 이해하느냐 또는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이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는 열쇠이다. 게바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행하지 않았다. 게바의 이러한 처신은 결과적으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는 강요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예수의 음식을 먹는 교제가

---

[95] 김재성, *바울신학*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4), 156.

유대 사회 내에서 이른바 의인들과 죄인들 사이의 신분적 분리의 벽을 허물어뜨린 것이라면,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교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인종적 장벽을 허물어뜨린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모든 인종적, 계급적, 신분적 분리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이 하나로 어울리는 공동체 속에서 종말적 구원의 현실이 부분적으로나마 성취된 것이다.[96]

>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종말적 구원에 대한 약속과 희망의 상속자라고 자부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이 메시아 시대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게 되는 것은 교제를 거부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의 필연적 귀결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에 게바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며 누구든지 복음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적이며 다문화주의적인 복음의 진리를 폐기하는 것이다. [97]

바울은 그의 칭의론을 무역사적 진공 상태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벌어진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시켜 개진했다.[98] 바울은 단순히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칭의론은 사람에게 “율법을 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이 문제로다”하면서 고민하는 인간을 상정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고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물론 칭의론은 구원론이다. 그것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칭의에 대한 바울과 그의 반대자들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칭의론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다. 바울의 반대자들도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계

---

[96] 김재성, *바울신학*, 157.

[97] 바울에게서 복음의 진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며 구원의 현실이다. 그것은 사람을 분리하거나 차별하는 어떤 규정이나 조항, 그리고 기득권의 행사 등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그가 베드로이든 그보다 더 유명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득권자의 눈치를 보거나 외부적 압력에 굴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된 종말론적 교제 공동체를 깨뜨리고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김재성, *바울신학*, 94.

[98] 김재성, *바울신학*, 235.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성원이 될 수 없고 차원이 낮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계 그리스도인과의 음식을 나눠어 먹는 교제를 거부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은 완전하고도 충분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슈텐달(K, Stendahl)은 "바울의 칭의론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의 충분한 참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극히 특수하고도 제한된 목적을 위해 다듬어진 것이다."[99]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칭의론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방인들의 자리를 어떻게 수호하느냐 하는 문제를 바울이 신학적 사고로 씨름하는 데서 생겨났다."[100]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다같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다. 그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자기네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울의 칭의론은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겨냥해서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칭의론은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서 자기네들의 특권을 고수하려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반복음적인 입장을 교정하기 위해서 개진되었다. 또한 바울의 칭의론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넘어 복음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다는 복음의 다문화주의적 속성을 주장한다. 즉, 바울의 칭의론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관통하는 보편적이며 다문화주의적인 복음의 진리이다. 바울의 칭의론은 '당시 사회적 약자인 이방인들을 위한 투쟁교설'이다.[101] 그러나 그것은 당시 역사적 약자였던 이방인을 위한 교설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본질적 진리이다. 즉,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다문화주의적 복음과 선교를 의미한다.

---

[99] K. Stendahl, *Paul among Jews and Gentiles* (Philadelphia: Fortress, 1976), 2.
[100] Stendahl, *Paul*, 27.
[101] 김창락. *바울의 의인론,* 267.

3.4.2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Universality of the Gospel)은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메시지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말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특정 지역이나 인종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행해졌으며, 또한 예수님의 복음적 메시지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성경에서 다수의 구절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를 힘입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이 구절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의 선교학적인 면은 한마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보편성에 근거한다. 즉 다문화 선교는 다문화주의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예수의 말씀을 처음 들은 청중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예수의 의도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온 인류를 향하고 있다. 즉, 이 예수의 말씀은 복음이 유대민족주의를 넘어온 인류에게 선포되었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가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에서도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장 19-20). 모든 민족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시 들리는 단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에서 구원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오직 혈연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는 2인칭

청자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역사적 주석을 하지 않고 읽으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적 지평의 무한 확대가 바로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의 진리이다.

복음의 보편성은 다문화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선교방법의 차이를 가져왔다. 유대교가 동화주의적 선교를 강조했다면 기독교는 복음의 보편성에 근거한 다문화주의적 선교를 강조하였다. 성경은 다문화선교에 반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표현들을 더러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마리아는 앗수르와의 관계 때문에 저주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102]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기 전까지 한 나라였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은 앗시리아에 점령되고, 남유다 왕국은 좀 더 뒤에 바벨로니아 왕국에게 점령당하며 유다인들은 바빌론에 끌려가는 바빌론 유수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좀 더 세월이 흘러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에 의해 해방되어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며, 자기네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정통 후손이며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남아있던 북이스라엘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며 이민족처럼 여기며 차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사마리아인들을 차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이웃으로 받아들였다(요 4:1이하). 사마리아는 예수에게 있어서 분명히 관심의 대상이었고 선교지였다. 비록 예수께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일차적으로 그들을 선교의 대상에서 유보하지만, 이것은 더 큰 선교를 향한 일시적 제한이었을 뿐이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통행을 시도하신 사건, 사마리아인을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신 일,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칭찬하시며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선포하신 사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신 일 등에 담긴 예수의 관점을 종합해 볼 때에 그들을 향한 열린 마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3]

---

[102]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혼혈족속, 즉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는 차별을 받았다. 실지로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앗시리아의 정책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이식된 지역이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대화(요 4:1)를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상호 적대적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3] 예수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묶기를 원했다. 바로 사마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관문역할을 했다. 이렇게 신약시대 복음이 전파된 사마리아는 복음이 이방으로 확대되는 첫 단계의 역할을 하였다. 하나님의 선교는 처음부터

예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마 23:15)라고 하신 말씀에 의하면, 간혹 이방인 개종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던 유대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자신들처럼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만들었다. 즉 유대인들의 선교는 동화주의였다.[104]

하지만 예수는 다문화선교에 역행하는 유대인들에게 보편적 선교사상을 일깨워 주었다. 예수가 자신이 12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마 10:5-6), 아직 전형적인 유대교 선교의 일면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면서”(마 15:24), 여인의 간청을 거절한 것도, 단순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이 두 본문은 예수가 다문화선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다. 제자들을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 배타적이었던 민족정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순수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전통을 전수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통은 다문화선교에 걸림돌로 보여 질 수도 있다. 그 당시 사회가 새로운 복음인 예수의 다문화주의적 보편적인 선교사상과 기존의 유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전통적인 배타적 민족주의에 근거한 유대교적 선교사상과의 상호 모순적인 긴장관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105]

다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유대교가 이방인선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문화 선교를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창락. *바울의 의인론: 무엇이 문제인가?* 267. 조영광,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방인 개종자 멤버십 비교 연구: 에베소서 2장11-20절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5), 53.

[104] 신성익, *사마리안(인)의 역사와 신약에서의 의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11), 57.

[105] 예수는 유대교의 민족주의적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다문화주의적 선교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복음의 보편성에 근거한다. 이러한 예수의 다문화주의적 선교는 초기 기독교공동체의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더욱 발전하였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신자와 헬라파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은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가기 힘들었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에게 당시 이방인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존재로 인식되었다(행 10:14). 급증하는 할례 받지 않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초기 기독교공동체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론은 유대교의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방인들을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의 제자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기사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의한 다문화 선교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갈 2:11-14). 바울의 생각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하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였다(갈 3:14).

그러나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오늘날 다문화선교의 과제로 남아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보편성은 우리 시대의 다문화 선교신학의 토대이다. 이 복음의 보편성을 간과하면 이후의 모든 복음의 핵심을 오해할 수 있다. 즉, 복음이 복음인 것은 복음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다문화주의적 속성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보편성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로, 이는 그리스도교가 세계적인 종교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보편성은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복음의 보편성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역사에서는 종종 다른 종교나 문화를 전복하거나 강제로 종교화 시키는 것과 같은 이유로 복음의 보편성이 오용되었을 때도 있다. 이러한 오용은 복음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복음의 보편성은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며,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개념이 오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모든 경계가 흐릿해지는 다문화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분명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견지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다문화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시대의 선교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행 15:19, 29, 21:25). 조영광,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방인 개종자 멤버십 비교 연구: 에베소서 2장11-20절을 중심으로*, 5.

3.4.3 하나님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행위의 핵심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106]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현재 자라고 있는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107]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108] 성경은 하나님을 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주 하나님의 주성(Herrschaft)과 하나님의 부성(Vaterschaft)이 확립된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 그것은 한편 하나님의 주성이 확립된 상태, 즉 세상과 하나님에 대항하는 모든 권세들에 대한 통치와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 세상이며, 다른 한편 하나님의 부성이 확립된 상태, 즉 하나님의 아버지 됨 안에서 인간의 자녀 됨과 형제 됨이 완성된 하나님의 가족공동체(Familia Dei)이다.[109] 주 하나님에 의하여 해방된 세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가족공동체를 의미한다.[110]

>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에서(눅 15:11-32)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하나님의 가족공동체로 아름답게 묘사했다. 그것은 주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 세계의 진정한 모습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되는 상태, 곧 하나님의 아버지 됨 안에서 인간의 자녀 됨과 형제됨이 실현된 하나님의 가족공동체를 의미한다.[111]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아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가 아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네스 바이스(J. Weiβ)의 초월적 종말론이나 알버트 슈바이처(A. Schweitzer)의 철저종말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Ende)에 비로소 오는 비역사적인 초월적 세계가 아니다.[112] 그것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극복하는 역사적 현실이며 실제적 구원이다. 즉 그것은 개인의 영혼구원,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

[106] 류장현, *종말론적 신학과 교회* (경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9), 189.
[107] 박태식,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서울: 생활성서사, 2001), 154-55.
[108] 김창락, *하나님 나라: 그 기원과 해석의 역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12.
[109] 류장현, *종말론적 신학과 교회*, 191.
[110] 류장현, *포스트 모던 사회와 교회*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6), 12.
[111] 류장현, *종말론적 신학과 교회*, 191.
[112] 조윤진, *현대신학과 몰트만의 종말론*, http://blog.naver.com/sosin279/8266290.

사회구원과 자연의 구원을 포함하는 전인적이며 총체적인 우주적 구원을 의미한다.[113]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상응한 다문화사회를 향한 선교학적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의 선교는 만인을 위한 것이다(롬 1:14-17).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즉 혈연, 민족, 문화, 지식의 유무 등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다문화주의적 선교이다. 누구든지 구원으로 초청되는 보편적 복음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이주민이며 나그네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가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나그네 혹은 순례자로 불렀다(벧전 1:2-4). 그러므로 신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간다.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주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114]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이방인이라면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 선교의 대상은 우리 모두이다. 자신이 이방인임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나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지 못하고 같은 이주민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며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 다문화의 선교이다. 즉, 다문화인(이주민, 이방인)은 단순히 시혜의 대상이 아닌 선교현장의 주체요 능동적인 주인공이다. 다문화에 대한 선교는 구원의 대상에 대한 보편성을 추상적인 믿음과 내면적인 믿음으로 왜곡한 칭의론을 바로잡는 선교이다. 그것은 모든 의미의 차별이 없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인간으로 인도하는 복음이다. 따라서 다문화 선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는 선교이다.

둘째, 다문화사회에서의 선교는 약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약자들을 위한 것이다. 다문화 선교는 떠돌이 이주민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편애를 지향하는 선교이다.

---

113 류장현, *종말론적 신학과 교회*, 192.

114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됨과 인간의 자녀됨이 완성된 가족공동체라면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안에서 형제와 자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 김점옥, “이주민선교에 대한 성경 신학적 이해-하나님의 언약관점에서,” *KMQ* 겨울호 통권 60호 (2016): 12.

그것은 이주민의 고난과 아픔을 가슴깊이 느끼는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115] 특히 이주민들은 구약성서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언급되지만, 신약성서에서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추구했던 주역으로 나타난다.[116] 신약성서에서 사용되는 민중개념은 이방인과 백성에 관한 언어학에 한정된다.[117] 특히 마가는 헬라/유대 문헌에서 주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오클로스(주로 천민으로 번역된다)를 그의 복음서에서 핵심적인 인간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118]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오클로스에게 깊은 애정을 가졌다(막 6:34, 10:25).[119] 오클로스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므로 떠돌이 민중은 단순히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현하는 주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20]

셋째, 다문화사회에서의 선교는 코이노이아(Koinonia)의 실천이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본질을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 the communion of saints)라 정의하였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 모임이다.[121] 코이노니아는 또한 공동, 협력, 참여, 교제, 교통(금전적) 기부, 자선, 통용, 상통, 분배와 사귐의 뜻으로 쓰였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 신학은 공동체 신학(theology of community)이다.[122] 즉, 코이노니아는 서로 돌보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로 공동체적 삶의 성격을 가진다.[123] 교회의 본질로서 성도의 교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은

---

[115] Luther J. Kim, "*Contextualization in Diaspora Missiology,*" *Journal of Asian Mission* 15 (2014): 31-42.

[116] 류장현, "다문화사회의 떠돌이 민중에 대한 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48집 (2010): 54.

[117] Volker Küster, *마가복음의 예수와 민중,* 김명수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6), 56.

[118] 오클로스는 어떤 개인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갈릴리 밑바닥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규정되지 않은 집단, 구약의 개념으로는 하비루와 같이 그때 그때 구성해 움직이는 집단인 떠돌이 민중이다. Volker Küster, *마가복음의 예수와 민중,* 86.

[119] Volker Küster, *마가복음의 예수와 민중,* 92.

[120] 류장현, "다문화사회," 55.

[121] 성도의 교제는 현재 성도들의 사귐을 의미하며 동시에 성도가 성례전을 통하여 임재하는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면 다른 지체들과 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κοινωνία)하는 사귐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9), 56.

[122] 김현진, *공동체 신학*, 518.

[123] Gerhard Lohfink*,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5), 99.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민족과 혈연을 초월하여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124]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지향하는 코이노니아로 소외계층이 없는 공동체로의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125]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인 삶 자체가 코이노니아이다.[126] 이러한 코이노니아는 전통적인 기존 문화가 형성한 관계, 즉 민족적 관계는 물론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이다. 코이노니아는 관계의 개념을 기초로 한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127] 코이노이아의 실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한 자, 고아, 과부 와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민족, 혈연, 성별 등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안에서의 사귐을 제한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1993년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WCC) 제5차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에서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변혁시대의 새로운 교회 모습으로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의 신장을 제시하였다.[128] 본 대회문서에서는 신학적인 전통과 각기 다른 문화, 인종 혹은 역사적 상황에 뿌리가 있는 다양성은 교회의 본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규정하였다.[129] 요컨대, 다문화 사회에서 코이노니아 정신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선교적 실천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 다문화사회에서의 선교는 디아코니아(Diakonia)의 실천이다. 그리스어 디아코니아는 어원적으로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

124 조성희, *깔뱅 신학에서 그리스도와 연합(Unio cum Christo)의 개념 연구*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2), 159.

125 Avery Dulles, *Models of the Church*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1974), 62-63.

126 코이노니아는 인종과 성별, 연령, 문화, 피부색에 따른 분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며, 화해를 선포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사귐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다. Robert W. Wall, *Community: New Testament Koinonia* (i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1, ed. David N. Freeman, New York: Doubleday, 1992), 1107.

127 박천응, "다문화이주민을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accessed April 31, 2023, http://c_expo.blog.me/20110615554.

128 1993년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제5차 신앙과 직제 세계대회가 '신앙과 생활과 증거에서 코이노니아를 지향하여' 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의 신장을 제시하였다.

129 박천응, "다문화이주민."

'섬김'으로 번역된다. 디아코니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써 복음을 받드는 사도적인 봉사와 함께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즉 피조세계 전체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회의 행동화이며, 그 말씀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인의 실천적인 삶의 외연화이다.[130] 또한 신약성서의 디아코니아는 해방과 관련이 있다. 즉 성서의 디아코니아는 섬김은 노예의 복종, 굴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 진정한 자유함에서 나오는 섬김은 자신의 시선을 밖을 향해 돌려 타인의 고난과 곤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수는 그러한 자유함에서 섬김을 행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그의 삶을 모든 이를 위한 대속물로 주었다(막 10: 45). 예수로부터 진정한 디아코니아가 시작되었다. 즉, 예수의 오심, 그의 삶, 고난과 죽음은 모두 그의 디아코니아의 구성 요소이다. 선택의 자유함이 없이 섬기는 것은 디아코니아가 아니고 노예를 의미한다.[131]

디아코니아의 실천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강조되었다. 예수로부터 초대교회까지 이어온 디아코니아 실천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디아코니아 실천은 이주민들과 한국인들 사이의 적대감과 인종차별주의를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의 실천을 강조한다. 낯선 출신들에 대한 격리의식과 외국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오늘날 디아코니아의 과제이다.

인류의 역사는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가치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인류는 곧 다양한 문화로 나누어졌다, 그 이유는 바로 이주에서 왔다. 이주가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다문화가 발생한다. 성서는 모든 문화가 옳다고 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이상적인 문화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문화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현상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나라로 통합되는 나라이다. 즉 새로운 존재로의 이주(변화)가 곧 새 하늘 과 새 땅으로의 이주이다.[132]

계시록 22장 1-5절에 의하면 장차 성도가 참여할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의 나무가 있으며 이주민에게 평등한 나라, 이방인이 없는 나라, 곧

---

[130] 김옥순, "디아코니아신학의 실천신학적 위상과 그 과제들,"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세미나* 제47회 (2013): 87.

[131] 홍주민, "교회의 본질로서 디아코니아," *신학연구* 제45집 (2004): 261.

[132] 이병학, *약자를 위한 예배와 저항의 책 요한계시록*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6), 474.

다문화주의적 나라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진 나라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차별 없는 구원을 실현하는 신학이다. 그러므로 다른 인종과 이방인을 자신 안에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다문화 선교를 할 수 없다.[133]

다문화 선교는 하나님의 가족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실천하고 다문화인(이주민)을 구제의 대상에서 역사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 선교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차별이 폐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되는 하나님의 가족공동체를 지향한다.

3.5 요약

필자는 신앙공동체에 대한 선교학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음과 문화, 선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를 향한 정책 이론들과 선교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고, 다문화를 향한 선교의 근거가 되는 이론들을 고찰해보았다. 무엇보다도 다문화인에 대한 선교의 도전과 관심은 단순히 경제적 관심이나 호의적 관점이 아닌,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라는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복음과 문화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의 주요 요소들이 있다. 각 문화는 고유한 가치, 신념, 전통, 언어 등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는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또 문화적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자기 문화 방식이나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에 적합하게 메시지를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지 사람들의 이해와 수용을 돕는 방법이다. 복음은 특정 문화에 속하지 않지만, 복음이 각 문화와 상호작용할 때 그 문화에 맞는 새로운 표현 방식과 실천이 나타날 수 있다. 복음이

---

[133] 진정으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은(갈 2:20) 자신 안에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즉, 내 안에 나와 다른 타인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문화 선교의 출발점이다. 김점옥, “이주민선교,” 17.

문화에 녹아 들어가면서도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현지 문화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문화적 요소가 신앙 생활에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교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과정이 된다. 복음과 문화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과 그 복음을 받으려는 사람 사이의 깊은 소통과 관계 형성을 의미한다.

선교와 문화의 선교학적 이해는 복음을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회의 사역을 문화적 맥락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먼저는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각 문화는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선교는 단순히 한 방향의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문화와의 교차점에서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중요하다. 또 문화적 민감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현지 문화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문화적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는 단순히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신앙의 가치를 현지 문화와 통합하는 과정이다.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선교는 단기적인 결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교회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선교에 있어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적 다원주의, 상호문화적 소통, 문화적 적응, 복음의 보편성이라든지,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 혹은 문화적 전환 과정을 이해하고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교회가 다문화적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모든 문화와 배경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이다.

그러나 복음이 각 문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문화 간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대화가 중요하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민감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가 그들의 문화적 맥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음은 각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교회는 다문화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

제4장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대한 상황적 관점

필자는 본 장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국 사회의 이주민 증가 추세에 따른 상황과 이주민들의 종교실태 및 이주민 선교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시급한 것은 한국사회의 다인종, 다문화 현상에 적극 대응해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교계 차원의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을 포함해 누구나 교회에 발붙이고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교회들이 먼저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에 앞서 한국교회가 자정하고 본질을 회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문화 인구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함께 새로운 선교 전략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대규모 이주민 유입이 예측되는 가운데 이주민 선교 지형 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세계화와 국제이주의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고 이에 대한 미래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는 현상을 관찰하고 새로운 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외국인 대거 유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안에 공생문화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다문화 사회가 진전될 수록 교회도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 통합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도 상호협력해야 한다. 교회가 먼저 시대의 흐름을 읽어 신앙적인 사회통합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문화신앙공동체 형성 요인과 방법, 전략들을 모색하면 선교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방법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1 다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상황적 관점

국내 외국인 비중이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고 있다.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지난 2023년 9월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5,137만 명)의 4.89%를 차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3.7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37%로 회복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주민이 사회에 급속히 스며들고 있다.[13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주민 인구는 약 218만 명으로 10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한국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35]

일각에서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약 40만 명의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이미 5%를 넘었다는 애기도 나온다. 외국인 5%는 인구·통계 학계와 국제기구 등에서 통용되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의 기준이다. 유럽과 북미 외 지역에서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나오는 것은 한국이 사실상 처음이다.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은 주민 20명 중 최소 1명이 외국인 또는 이민자 2세, 귀화인으로 구성된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다문화 정책 개선 및 인식 제고 등 다문화 공동체를 향한 전반적인 손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큰 틀은 이주민의 적응과 변화만을 요구하는 동화주의였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이주민과 내국인간 서로 도움을 주며 좀 더 잘 살아보자는 상리공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선교계를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 방향성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활발하다. 사역 현장에서는 앞으로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계 차원에서 관련 논의나 대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박천응 국경없는 마을 이사장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음에도 교회는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금과 같이 교회 문턱을 낮추지 않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교회는 앞으로 더 쇠락의 길로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136]

---

[134]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 9월호.

[135] 국민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23. 11월.

[136] 데일리굿뉴스, 2023년 11월 14일.

4.1.1 이주민의 추세현황

최근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359,618명으로 전월 2,448,401명보다 88,783명(3.6%) 감소하였다.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은 1,354,963명,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는 536,890명, 단기 체류 외국인은 467,765명이다.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905,392명(38.4%), 베트남 265,182명(11.2%), 태국 194,219(8.2%), 미국 154,599명(6.6%), 우즈베키스탄 88,410명(3.7%) 등의 순이다.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176,269명으로 전월 175,653명보다 616명(0.4%) 증가였고, 외국인유학생은 230,422명으로 전월 224,006명보다 6,416명(2.9%) 증가하였다.[137].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류외국인의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감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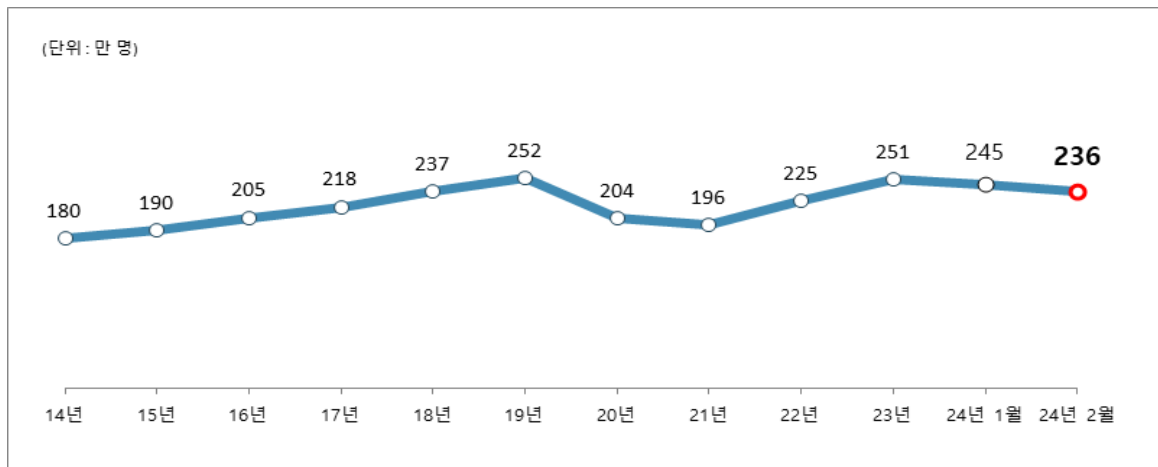



그림 4-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 2월호

137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 2월

4.1.2 이주민의 포괄적 현황

거주지별 상황.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 760,141명(56.1%), 영남지역 266,010명(19.6%), 충청지역 164,352명(12.1%), 호남지역 115,290명(8.5%), 기타 49,170명(3.6%)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4-2는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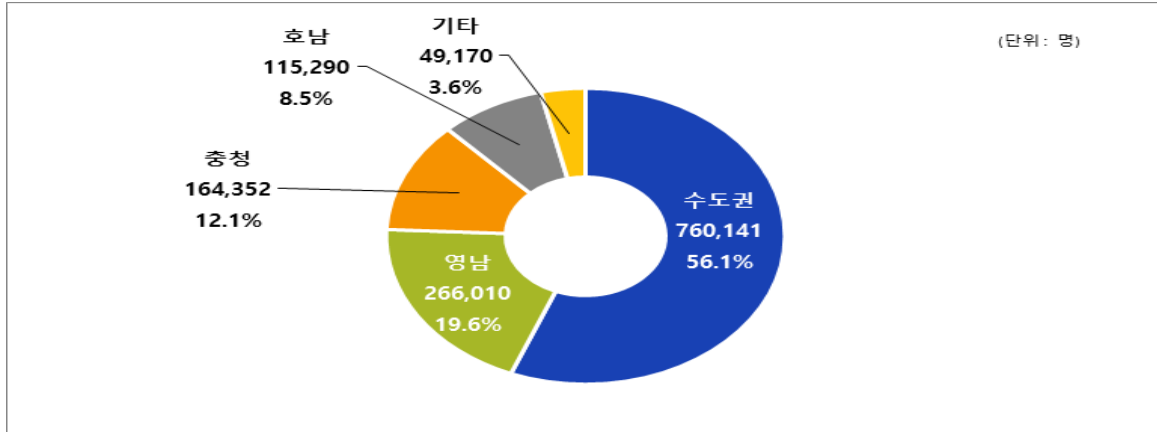



그림 4-2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 2월호

계	경기	서울	경남	충남	인천	경북	전남	부산	
1,354,963	430,521	247,028	91,972	85,540	82,592	67,255	49,959	49,310	
	충북	전북	대구	제주	광주	울산	강원	대전	세종
	49,528	39,937	33,218	25,922	25,394	24,255	23,248	23,472	5,812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 2월호

연령별 분포. 법무부에서 발표한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19세 이하 161,281명(6.8%)에서부터 60세 이상 330,731명(14.0%), 20대-29세 519,205명(22.0%), 30-

39세 637,704명(27.0%), 40-49세 396,140명(16.8%), 50-59세 314,557명(13.3%)이다. 그림 4-3은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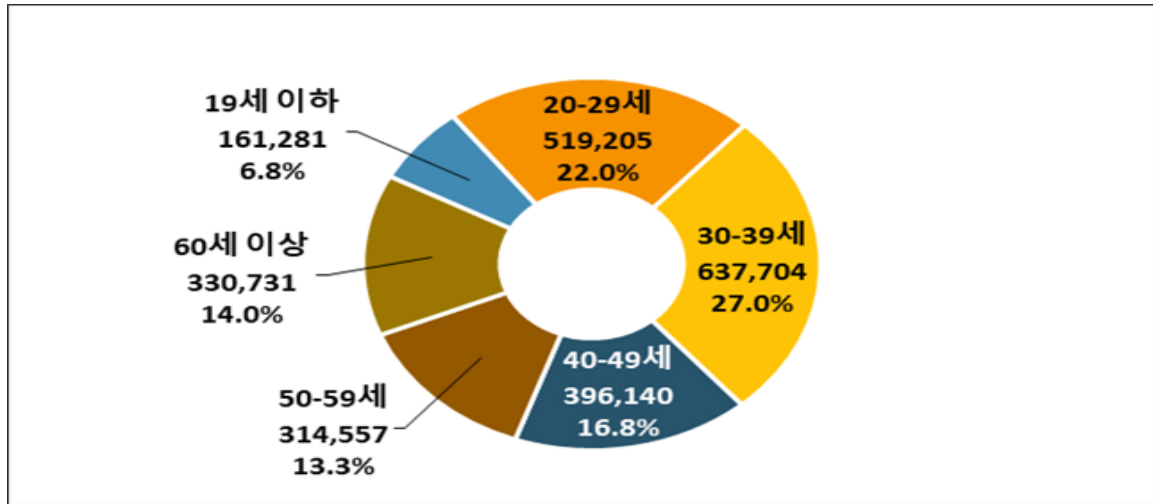



그림 4-3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도

출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 2월호

유형별 현황. 행정안전부 23년 11월 보도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3,679명(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3만 2,790명, 20.9%) 및 외국국적동포(+2만 9,000명, 7.9%)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전체 외국인주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세와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0만2,379명(6.2%) 증가하여 175만2,346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1만 2,945명(6.1%) 증가하여 22만 3,825명,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가 8,355명(3.1%) 증가하여 28만 2,07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소폭 증가세를 보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는 각 7,964명(2.0%), 1,124명(0.6%) 증가하여 각 40만 3,139명, 17만 5,75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학생은

3만2,790명(20.9%) 증가한 18만9,397명으로, 결혼이민자 수(17만5,756명)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국적동포는 39만 7,581명으로(+2만 9,000명, 7.9%)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4-4은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이다.

구분		외국인주민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계	남	여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22년		2,258,248	1,159,287	1,098,961	1,752,346	403,139	175,756	189,397	397,581	586,473	223,825	282,077
	전체외국인 주민대비구성비		51.3%	48.7%	77.6%	17.9%	7.8%	8.4%	17.6%	26.0%	9.9%	12.5%
'21년		2,134,569	1,090,073	1,044,496	1,649,967	395,175	174,632	156,607	368,581	554,972	210,880	273,722
	전체외국인 주민대비구성비		51.1%	48.9%	77.3%	18.5%	8.2%	7.3%	17.3%	26.0%	9.9%	12.8%
증감		123,679	69,214	54,465	102,379	7,964	1,124	32,790	29,000	31,501	12,945	8,355
		5.8%	6.3%	5.2%	6.2%	2.0%	0.6%	20.9%	7.9%	5.7%	6.1%	3.1%

그림 4-4 외국인 주민 유형별 (출처: 행정안전부 23년 11월 보도 자료)

4.1.3 이주민의 종교실태

이주민들은 이주를 하면서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도 함께 갖고 온다.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아직 언어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출신국별 공동체는 발달되지만 다른 공동체와는 소원하다.[138] 그 때문에 종족종교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특히 한국 사회의 다종교 상황은 기존의 다종교적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결혼 이민자 증가, 무슬림 국가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종교집단과 양적 증가도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주민 국적별 현황을 보면 파키스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권, 인도, 네팔 같은 힌두교권, 러시아의 러시아 정교,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와 같은 불교권, 영국의 성공회, 티벳, 몽골의 라마불교 등 다인종, 다종교가

138 박세훈 외 3명,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1* (서울: 국토연구원, 2009), 113-14.

다양하게 이주민들을 통해 들어와 있다. 다른 종교와 문화,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낯선 이들과의 공존은 종교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139]에서 전국 시, 군, 구 중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지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안산제일교회와 공동으로 그들의 종교실태조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만이 개신교이고, 66%가 현재 종교가 없는 상태이며, 71%가 한국에서 전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주민에 대한 전도 전략이 시급해 보인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믿는 종교는 개신교가 8%, 불교가 12% 이다. 불교가 높은 이유는 불교가 가장 큰 종교인 중국 출신 이주민이 전체 이주민 가운데 6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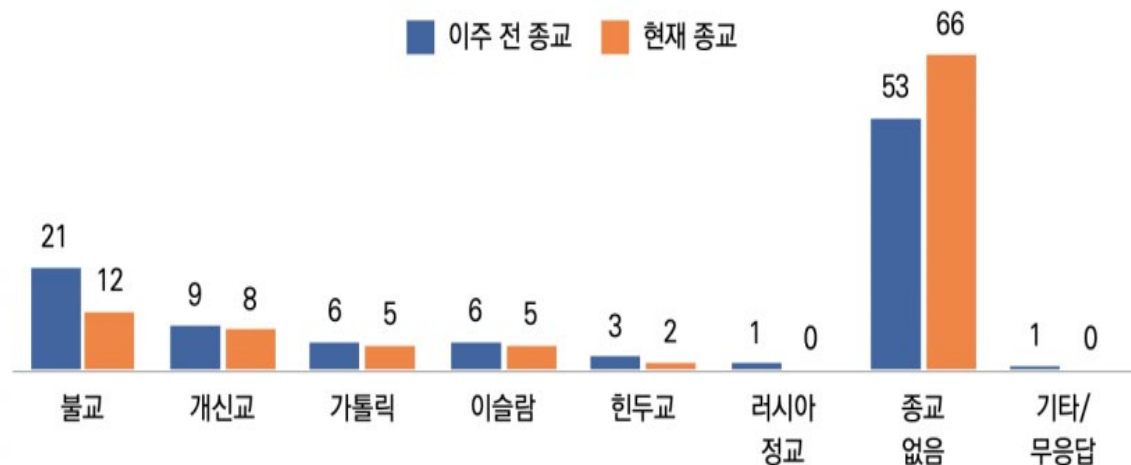



그림 4-5 이주 전 종교와 현재 종교 비교(출처: 넘버즈 171호 기독교 통계 자료)

그림 4-5에 보면 한국에 오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각 종교인 비율이 줄어들었다. 종교가 사회의 지배 문화이자 규율로 강제되는 본국에서 벗어나 종교적으로 자유롭게 된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탈 종교화)과 한국에서 일상의 삶이 힘든

---

139 http://www.mhdata.or.kr/

나날을 지내면서 종교적 신앙심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멀리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주민들의 호감이 가장 큰 종교는 불교(53%)였다. 불교 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현재 믿고 있는 종교로 불교가 가장 많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38%)는 가톨릭(34%)보다 다소 높았다 이주민 가운데 기독교 국가 출신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개신교 호감도가 38%나 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들이 향후에 종교를 가질 의향이 11%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종교적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탈 종교화를 촉진했다는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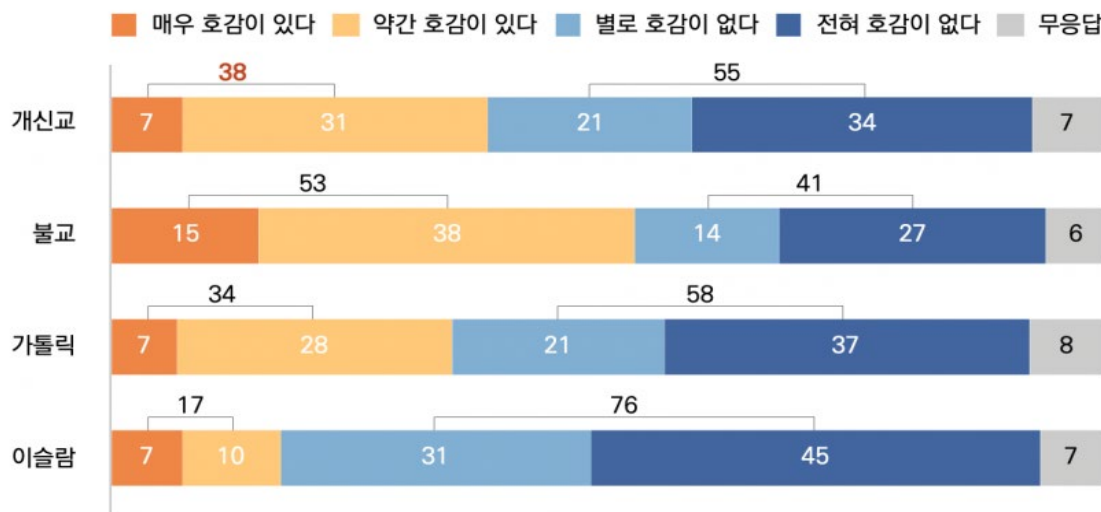



그림 4-6 종교별 호감도(출처: 넘버즈 171호 기독교 통계 자료)

또한 현재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추후 믿고 싶은 종교로는 개신교 45%, 불교 31%, 가톨릭 4%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개신교에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한편 현재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추후 믿고 싶은 종교로는 개신교 45%, 불교 31%, 가톨릭 4% 등의 순으로 개신교에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이주민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로 종교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구원 혹은 해탈을 위해서 20%,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43%,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10%인데, 즉 종교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보다는 피곤한 현실로 인한 상처를 치유 받고 외로운 한국 생활에서 의지할 곳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종교별로 보면 신앙생활의 이유가 차이를 보였는데 개신교인은 구원을 위해서 42%, 다른 종교인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였다.

현재 종교	마음의 위로와 평안	구원/해탈	생활의 도움	진리 추구	본국 사람 만남
개신교	32	42	2	18	4
가톨릭	53	17	16	12	13
이슬람	58	19	1	13	0
불교	37	7	20	3	18
힌두교	56	34	0	9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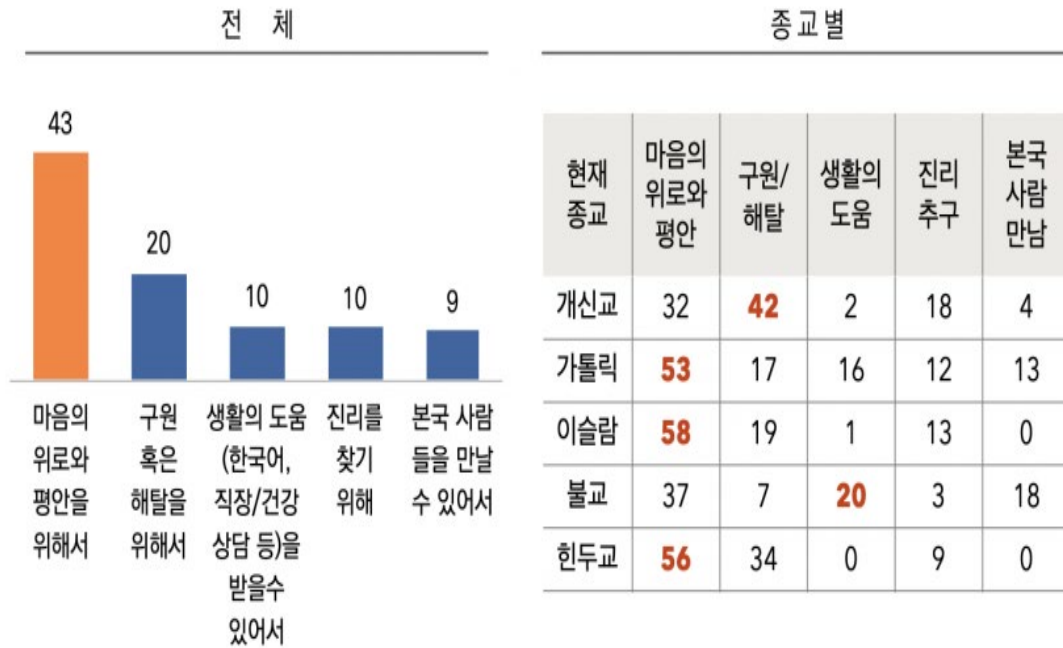



그림 4-7 종교생활하는 이유(출처: 넘버즈 171호 기독교 통계 자료)

한국에서 특정 종교로부터 전도 받은 적이 '없다' 71%, '있다' 29%였다. 아직 전도를 받지 못한 이주민이 10명 가운데 7명이나 된다. 전도 받은 종교는 개신교가 67%로 기타 종교 대비 단연 높아 개신교의 전도 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시설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가족(29%)이 가장 높지만, 그에 못지않게 평소 아는 이주민(25%)이 높았다. 효과적인 전도는 이주민이 이주민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민이 스스로 종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전도와 선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선교의 기본 원칙이다. 또한 개신교 이주민의 종교시설 방문 계기는 가족이 41%, 평소 아는 이주민이 28%였다. 이주민을 통한 전도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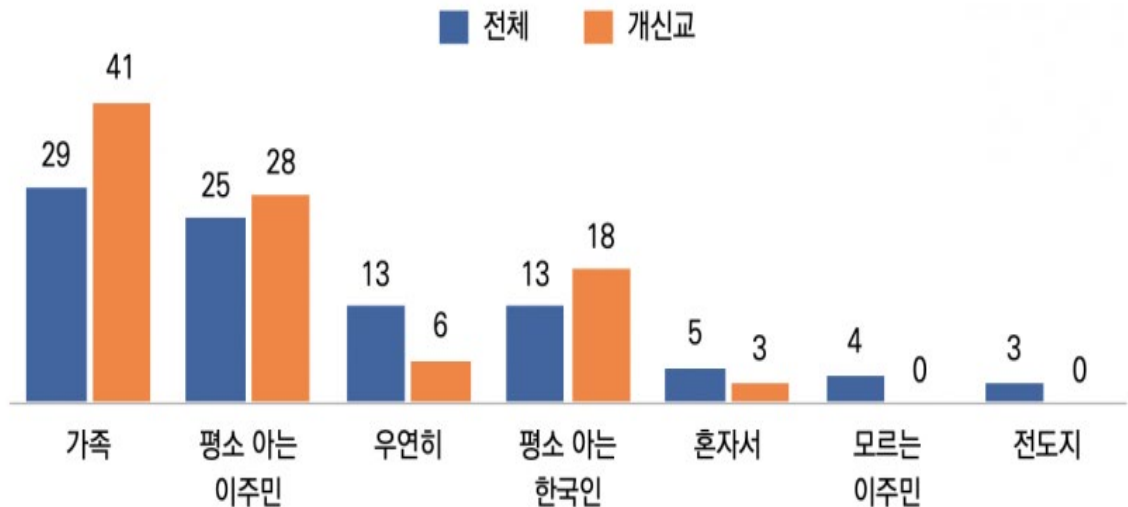



그림 4-8 종교시설 방문계기(출처: 넘버즈 171호 기독교 통계 자료)

전도 받아 종교행사에 참석한 이주민들은 종교행사를 경험하면 그 종교에 호감이 높았다. 호감 형성 이유는 마음의 평안 42%, 친절한 환영 32%, 이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많음 19% 였다. 이는 이주민이 첫 예배 참석 시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위기와 말씀, 친절한 환대가 교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종교행사 참석 후 호감이 생긴 비율을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은 87%, 불교인은 97%, 무종교인은 54%였다. 무종교인의 비율과 비교하면 종교 행사 후에 생기는 호감도가 높으면 종교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이다.

현재 출석하고 있는 종교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자국민 사귐이 62%, 노동조건 상담 25%, 한국어 교육 21% 등의 순이다. 이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국민 사귐 외에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가 이주민에게 애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교, 이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종교,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교 등으로 이주민에게 가장 우호적인 종교로 나타났다. 이는 개신교가 타 종교에

비해 적극적이고, 이주민의 필요를 잘 파악하여 도움이 되는 선교 활동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한국 내 이주민의 66%가 무종교이다. 아직도 한국에서 한 번도 전도나 포교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주민이 무려 71%나 된다. 10명 중 7명의 이주민이 아직도 전도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미전도 종족이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주민 중 개신교 비율은 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이주민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이주민 대상 기독교의 전도 환경이 나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주민 선교를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왜 이주민 선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선교 동기 혹은 목적의 문제이다. 자칫 섣부른 선교에 나설 경우, 이주민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선교의 기본 동기와 목적은 사랑이다. 따라서 진정한 이주민 선교는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선교이다.

4.2 다문화인 선교에 대한 이해

한국은 이제 명실공히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이주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한국사회와 교회에 주어지는 커다란 과제이다. 이주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선교의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타 문화 사역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교회의 사역환경 속에서 디아스포라 대상의 사역이 어렵다. 특히 교통, 통신이 발달한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이주자들은 새로운 거주국에서 같은 출신국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자신들이 떠나온 출신국의 사람들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간다. 이주자 선교는 그들의 거주국과 출신국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또 다른 족속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역이다.[140]

국내로 들어온 이주자들에 대한 사역은 신앙교육과 함께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필요를 총체적으로 돕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이 직면하는 취약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그들의 잠재적이고 미래적인 역량들을 지속해서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

140 장남혁, “국내 이주자 선교의 과제와 방향,” *선교와 신학* 제42집 (2017): 344.

주목해야 할 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차세대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미래에 중요한 재목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주변인 지위에 머무느냐 하는 것은 실로 이 나라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들을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교육하는 동시에 그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급한 선교적 과제이다.

이주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과 다종교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평화롭게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이주자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려면 전 교회와 이주자 선교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일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이주의 사이클이 출신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주국을 거쳐서 다시금 출신국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초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141]

4.2.1 이주민 선교의 실태

사단법인 글로벌디아코니아가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에게 연구용역을 주어 진행된 연구(2023년 국내 이주민선교 기반 구축을 위한 대상별 선교전략 개발 보고서)를 보면, 한국 다문화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는 주요 교단 소속의 단체 수는 예장 통합 105개이며, 예장 합동 100개, 감리교 50개, 예장 백석 50개, 예장 고신 40개, 기성 33개, 순복음 25개, 기장 23개, 침례교 20개, 예성 20개, 합신 5개 등의 순이다. 이주민 선교단체나 교회는 대부분 100명 이하의 소규모이고, 예배 참석 인원은 1~10명이 19%, 11~30명이 31%, 31~60명이 23%, 1~100명이 16%, 101~199명이 8%, 200명 이상은 3% 정도이다.

분야별 사역 현황은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수가 80개, 결혼이민여성 관련 사역 단체가 55곳, 다문화가정 자녀 사역 49개, 유학생 사역 41개, 난민 사역 20개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예산의 규모는 500만 원 미만과 5000만 원~1억 원이 각기 18%. 1억 원 이상 16%, 1000~2000만 원 12%, 3000~4000만 원 7%, 4000~5000만 원 7% 순으로 운영하고 있다.

141 장남혁, "국내 이주자 선교," 345.

전체적으로 이주민 선교단체의 연 예산 규모 평균은 5000~6000만 원 정도이며, 이주민 선교를 안정되게 이끌어온 교회나 선교단체의 수와 작은 규모로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나 선교단체의 수가 비슷하다.[142]

이주민 선교의 형태를 분석[143]해보면 교회부설 형태의 이주민선교센터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다. 그리고 이주민 기관이 이주민 선교센터보다 높다. 또 교회와 이주민선교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교단에 속한 이주민 중심의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고, 독립적인 이주민교회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설정이 장차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선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사역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표 4-1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상황

항 목	항목별 세부요소와 구성(비율 순)
기관위치	경기도,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전남
선교목적	통전적, 전도, 세계선교, 인권과 삶의 질 개선, 교회개척
선교형태	교회부설, 이주민 기관, 선교기관, 복합형태, 이주민 교회
선교참여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유학생, 난민
프로그램	이주민 네트워크 지원, 교회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복지, 인권
사역국가	중국 한족, 조선족, 필리핀, 베트남, 몽골
소속교단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고신, 기독교감리회, 기독교장로회, 기독교침례회, 예방 백석 합신
재정후원	교회후원, 개인후원, 지자체 프로젝트 후원, 기업후원

자료: 정봉현(2015) 연구 참조 후 재작성

142 한국기독공보, https://m.pckworld.com/article.php?aid=9809568937.

143 정봉현,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한국교회의 대응방향,"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춘계학술대회* 통권22호 (2015): 8-9.

이주민 선교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점들은 많다. 양육의 한계, 다문화가정 문제, 귀국자 관리, 회교권 선교의 어려움, 성적인 문란, 난민신청 문제, 무면허운전, 음주, 도박 등 범죄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주민 선교가 복음전파뿐 아니라 이주민 삶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하다. 이주민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노동상담, 출입국상담, 인권상담, 구직 및 진로상담, 건강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는 자녀교육과 구직, 이혼상담, 출입국상담 등의 돌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144] 또한, 이주민 사역자들은 현재 이주민 선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전문사역자 부족, 이주민 선교의 인식부족, 협력 선교의 부족, 이주민 선교신학의 정립, 물량선교가 되는 점 등을 안타까워한다.[145]

이처럼 이주민 선교의 대한 문제점들은 인식, 운영, 연합, 신학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146] 첫째는 이주민 선교 및 복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 둘째는 이주민 선교사역들이 경쟁적 혹은 일방통행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셋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증가와 더불어 초기 이주민 선교가 호기심으로 강하게 추진되었으나 이제는 일상적인 선교사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넷째, 이주민 상호간 및 이주민과 선교센터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상존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과 가정폭력 등 이주민 가정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여섯째, 이주민 선교단체 또는 교회 간 이주민 선교에 대한 연합과 동역의 사역이 적다. 일곱째, 주민 선교전략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이 결여되어 있다.

도표 4-2 이주민 선교의 문제점과 현황분석

주요 문제	세부 사항
선교의 이해부족	이주민 선교복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 형식적인 선교

144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선교와 신학* 제29집 (2012): 56.
145 형진성, 인터뷰 2023. 8월.
146 정봉현, "다문화사회 진입," 11-12.

일방적인 선교사역	선교사역들이 경쟁적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전개
선교 사역의 일상화	처음 호기심에서 일상적인 선교사역으로 변모
의사소통 결여	이주민 및 단체의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부족
다문화가정 대책의 소홀	자녀양육,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부족
협동 동역의 부족	선교단체와 교회 간의 선교에 대한 연합 및 동역 사역이 부족
신교의 신학정립	선교전략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 결여

자료: 정봉현(2015) 연구 참조 후 재작성

4.3 요약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신앙공동체(다문화교회) 형성의 상황적 관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사회의 다문화의 진전된 현실 상황과 이주민의 실태의 제반 정보들을 살펴본 결과, 국내의 다문화교회 개척과 선교에 대한 시각이 다분히 소극적이며, 대형교회 중심의 다문화 이주민 선교와 프로그램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사역과 선교에 대한 실체와 이주민 사회의 현 상황들을 분석해 봄으로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형성방안에 대한 방향 내지는 전략들을 모색할 수 있었다. 앞으로 다문화 사역에 종사하는 사역자들의 현장 연구를 통하여 실제적인 상황과 전략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부

현장조사

제5장

연구방법론과 절차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신앙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방안과 단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의 인터뷰와 다문화 공동체의 다양한 사역과 여건, 환경, 분위기, 어려움, 재정, 조직, 교육, 행정 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필자는 질적 연구방법론이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이라 생각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오래 전부터 단계, 과정으로부터 걸어왔던 풍부한 경험과 사건, 상황들, 또 연구참여자들만 경험했던 노하우들이나 상황들이 인터뷰을 통해, 또 사역 현장조사 자료들을 통해서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형성방안에 해답을 찾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수행되는 연구들은 주로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사건들, 또는 현상들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풍부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147] 질적 연구방법은 인간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행동을 행위자의 목소리를 통해 풍부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과 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내어 이론을 발전시키는 연구방법이다.

---

147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22), 75.

유기웅 외 3명은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으로서 사회현상, 혹은 사회적 현상의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해석학적 입장에 근간하고 하고 있다. 해석이란 텍스트를 생성해 낸 저자의 정신적 과정을 다시 체험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창작과정의 역전이라”[148] 고 했다. 즉,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자의 이야기가 연구자의 질문과 연구주제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구성하는 일종의 창작의 과정이라면, 참여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해석의 과정인 것이다.[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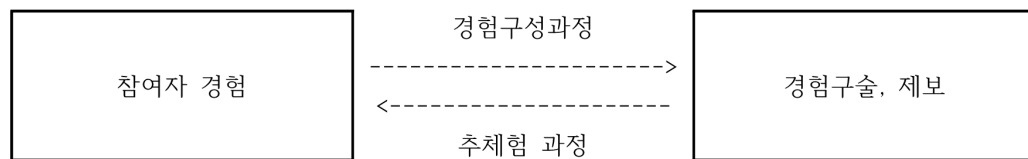



그림 5-1 질적연구의 구조

출처**:**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9.

질적 연구는 단순화와 한계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하며, 사물이나 현상의 맥락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논리와 언어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므로 연구자의 세계보다는 오히려 참여자의 세계가 더 중시되고, 연구자는 참여자의 세계를 학습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150] 질적 연구의 맥락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고 말할 때, 분석은 수집과 대비를 이루고, 이 분석 속에는 지금 논의하는 기술, 분석, 해석이 다 포함되어 있다.[151]

---

148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8.
149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9.
150 조용환,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파주: 교육과학사, 2022), 23.
151 조용환,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37.

본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였던 한국 사회의 다문화 속에서 신앙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또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나 전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시각으로 파악한다면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와의 심층인터뷰와 면밀한 관찰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이란 자료에 근거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론적 체계, 과정, 실행, 상호작용 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다. 실제적인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생성하기 위해 자료 그 자체에 근거를 두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침이다.[152] 근거이론의 목적은 수집된 자료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찾아낸 의미들을 범주화하고 그룹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거이론 방법"[153]을 선택하였다.

첫째, 행위자의 행위, 경험세계, 삶의 본질 등을 행위자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다문화 신앙공동체 현장에서 경험한 불안, 위기, 어려움, 필요한 요소들을 그들의 언어와 목소리로 듣고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며, 그들의 행위가 신앙공동체안에서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보완해야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공동체의 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152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76.
153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76-77.

셋째,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경험세계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적인 목회자의 의견을 들음으로 신앙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호적이며 통합적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이론을 생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5.1 연구 질문

첫째, 다문화 사회 속에서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한 성경적, 선교신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황적 관점과 다문화 교회개척 유형과 접근 전략이 무엇인가?

세째,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들을 무엇인가?

넷째,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적 방안을 무엇인가?

5.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신앙공동체 형성을 할 때 필요한 방안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잘 부합하면서 이론화가 원활하도록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이론적 표본추출이란 자료수집에 있어서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동안 출현하는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면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연구자는 처음 자료 수집 표본을 어디에서 찾을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54]

---

154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3.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수집하여 일괄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최초 의도적 표집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수집할 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다시 다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그림 5-2참조). 이와 같은 과정은 단순히 수집과 분석을 번갈아 수행하는 기계적인 반복행위가 아니라 출현하는 이론적 개념을 근거로 하여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여 연구자가 이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자가 이제까지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을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라고 부른다.[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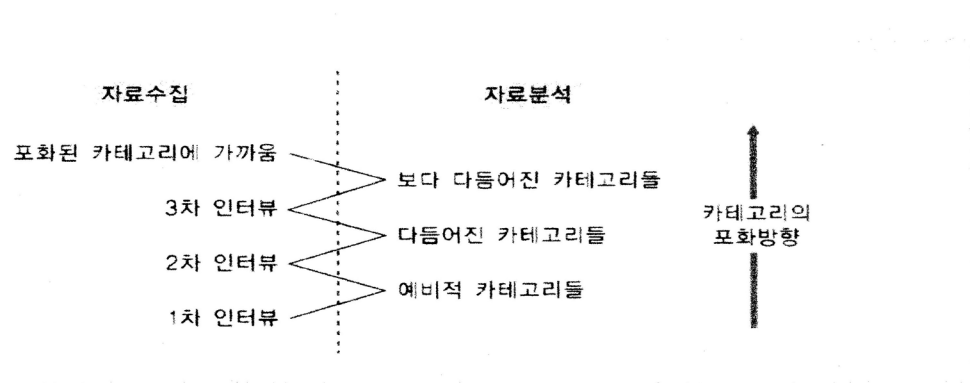



그림 5-2 지그재그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포화

출처: Crewell. *Educational research*, 433.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구문제와 연구의 중심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발견하고 얻을 수 있도록 연구계획단계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연구대상 선정기준을 세웠다. 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수집하여 일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수집할 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155]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3-84.

지금까지 수집되고 분석한 데이터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포화상태까지 자료 수집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단일 이주민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 1명,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 선교 및 다문화 예배공동체 사역을 하는 목회자 1명, 이민자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공동체 사역하는 목회자 1명, 다인종, 다문화 이주민교회, 이주민 신학교 사역을 있는 목회자 1명, 다문화 선교사역 및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목회자 1명, 다문화 예배공동체 지도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은 대략 50-70세,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역을 하고 있는 6명으로 선정했다.

여기서 다만 아쉬운 점은 다문화 사역을 하는 여성 전문 목회자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문화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실질적인 이주민 여성 리더를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다문화 사역자 인터뷰 비율은 상대적으로 남성 목회자가 많았다. 다문화 공동체의 구성된 주류가 대부분 이주민 여성들인데 비해 그들만의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섬세한 부분들을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다문화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현지인 지도자이어야 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다문화 사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다문화인을 향한 사역 비전이 어떻게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를 다문화 사역자로 한정하여 선정하는 것은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또 다른 실질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할 연구 참여자의 기본 사항은 도표 5-1과 같다.

도표 5-1 연구 참여자의 현황과 특성

참여자	연 령 (2024년)	현 황	직위
A 목회자	55(남)	선교사 역임(15년) 이주민교회 담임 사역(10년)	목회자
B 목회자	57(남)	선교사 역임(5년)	목회자

		다문화센터, 예배공동체 사역(13년)	
C 목회자	50(남)	이민자통합센터, 예배공동체사역 다문화 대안학교(13년)	목회자
D 목회자	68(남)	다문화교회, 이주민 신학교 사역 (33년)	목회자
E 목회자	51(남)	목회 및 선교사 역임(15년) 다문화센터, 예배공동체사역 (10년)	목회자
F 평신도 리더	70(여)	다문화 예배공동체 지도자 (23년)	이주민 평신도 리더자

주: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알파벳으로 표기함.

A 목회자: 타문화권 000 지역에서 선교사 사역 15년을 역임하고, 지금은 경기도 00지역에서 이주민교회 10년차에 접어들어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이주민 사역분만 아니라 이주민 2세 교육에도 집중하여 00학교를 운영하며 이주민 자녀들 교육을 위해 00학교를 운영하면서 다음세대를 향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삶을 위해 정부 이주민정책에 부합하는 사역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

B 목회자: 000교회에서 00다문화센터를 담임하고 있다. 다문화적 상황과 환경을 접한 경험치 속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형교회에 속한 기관으로 13여개의 각 국가별 다문화 예배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각 예배공동체마다 리더를 세우고 보수교육을 통하여 공동체를 지속 유지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 각종 문화교류와 행사,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재들을 초청하여 각 예배 공동체가 연합하여 훈련하고 각 나라별로 구성된 자기들만의 문화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고 있다.

C 목회자: 다문화 사역 13년차 00시에서 이민자통합센터(법무부 위탁 경기 0 거점)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00시 다문화청년네트워크, 00시 중도입국청소년센터, 00시 다문화대안학교, JMEDU(제이엠에듀)을 운영하며 이주민과 이주민 자녀들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다문화사역을 함으로 효율적인 이주민들의 정착과

진로에 대해 가이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다양한 다문화 교육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문화 예배에도 적용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

D 목회자: 다문화 사역 33년차 000지역에서 다인종, 이주민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각 나라별 예배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역하고 있다.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을 비롯한 외국인비전센터를 운영하면서 유학생 및 이주민 노동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지 이주민 노동자를 신학훈련을 시켜 현지 이주민 목회자 배출하고 있다. 즉, 이주민 선교와 지도자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언어교육을 통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신앙훈련과 체계적인 신학훈련을 통해 이주민 현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본국으로 역파송하는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E 목회자: 대형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목회를 하다가 타문화권 00지역, 00지역 등 여러 지역 선교사 등 15년 사역하고, 한국에 들어와 000교회 0센터를 10년차 운영하면서 여러 지역 0센터 가운데 00지역 0센터를 맡으면서 각 나라별 예배공동체를 구성하고 선교와 비전을 나누면서 확장하고 있다. 다문화 예배공동체를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복음 전파와 세례, 이주민 성도 양육과 선교사 역파송, 다문화 차세대에 대한 교육 선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출발할 당시 000교회의 다문화 사역에 총체적인 지원을 받았고 지금은 자립하는 단계로 운영하면서 지방의 여러 지역의 교회와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사역 및 예배공동체를 세우는 데 공유하고 있다.

F 평신도 리더: 00교회 00족 다문화 예배공동체 지도자로 공동체 창립부터 23년간 다문화인 예배 및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25년전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자국으로부터 이주해오는 이주민들을 여러 통로로 통해 접촉하고 예배공동체로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통한 구원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정착에 따르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공동체에서 이주민들을 향한 문화교육과 참여를 통한 문화의 민감성과 적응 훈련을 집중하고 있다.

5.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될 자료 수집 방법은 인터뷰이다. 인터뷰는 어떤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의도된 의사소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의사소통을 가이드 해 주는 지침이 바로 연구자의 연구주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서 인터뷰는 일종의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화,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의사소통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주제와 관련한 지식의 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의도적인 대화라 할 수 있다.[156]

인터뷰란 연구의 참여자가 제보하는 내용을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청취, 수용하고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해석,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경험구성에 개입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림 5-3은 연구 참여자가 진술하는 사건, 관심대상에 대한 경험이 연구자의 연구결과로 재현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157]

그림 5-3 인터뷰의 구조

출처**:**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59.

인터뷰 유형은 구조화된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 반 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비 구조화된 인터뷰(unstructured interview)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자가 사전에 인터뷰 진행에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인터뷰

156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58.
157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59.

가이드가 매우 구체적으로 조직되어서 진행하는 인터뷰 형태를 말하고, 반 구조화된 인터뷰는 구조화된 인터뷰와 비 구조화된 인터뷰의 중간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비 구조화된 인터뷰는 인터뷰 진행이 주로 일상적인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다변의 내용에 따라서 이어지는 적절한 질문의 내용과 형태가 변할 수 있도록 한다.[15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반 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자가 인터뷰 가이드라고 하는 예상 인터뷰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하지만, 구조화된 인터뷰에서처럼 엄격하게 적용하여 질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연구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문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법이다. 연구자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며, 인터뷰의 진행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인터뷰가 반 구조화된 인터뷰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실질적인 의미나 경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제한된 시간에 의도한 목적의 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하여 반 구조화된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진행할 인터뷰의 순서, 질문항목 등을 미리 정하고, 질문 순서에 따라 질문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답변정도에 따라 추가질문을 병행하며, 개방형질문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답변을 유도하고, 인터뷰 중간 중간에 폐쇄형 질문으로 연구 참여자의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가졌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답변 중에서 연구문제와 매우 연관성이 많은 답변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하여 정확한 내용도 확인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24년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인터뷰일정을 잡기 전에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등 연구 참여자에게 필요한 사항 등, 즉 인터뷰 시작 전 녹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했으며, 녹음내용을 그대로 녹취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하겠다는 등의 몇 가지 알렸다. 그리고 충분한 이해를 구한 뒤에 별도의 인터뷰일정을 잡았다. 인터뷰는 각 1회에서 인터뷰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만일 연구주제에 의미 있는 정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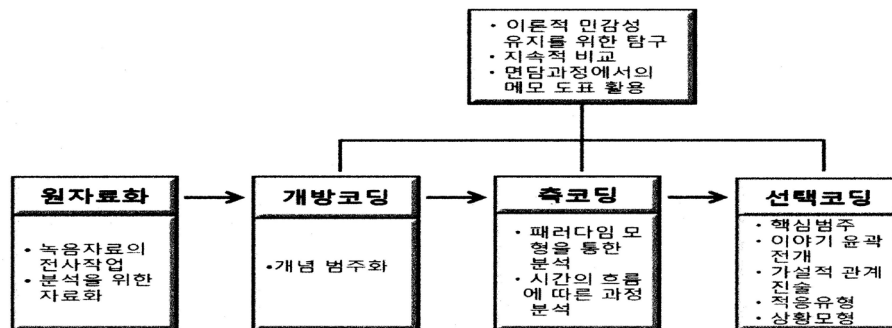
---

158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62-64.

추가로 제공한다면, 추가 정보도 별도의 용지에 메모하고, 또한 인터뷰 시 받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느낌을 그때마다 메모하여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추가 인터뷰 대상자 추천을 부탁하였으며, 2-3명의 후보 추천자 명단을 받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에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로 목양실이나 사역지 근처의 조용한 카페를 이용하였다.

5.4 자료분석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방법인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그림 5-4은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 방법에서의 연구의 단계별 분석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4 연구의 단계별 분석과정

출처: https://www.bing.com/images/ *근거이론방법(Grounded Theory). 질적연구의 이론과 실습-마스터 과정* | by Yihyun | Medium.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연구 문제의 해답을 연구 자료 안에서 찾는 과정이다. 자료의 분석이란 수집한 자료를 조직화해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분리하고, 자료 안에 숨어 있던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드는 어려운 과정이다. 양적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코딩이 완료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연구 가설이 기각 혹은 채택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질적자료를 분석할 때 내가 찾고자 하는 연구의 답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갖고 자료의 분석을 하게 된다. 질적 연구가 어떠한 연구방법을 따라서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자료 분석의 방법이 다르게 진행된다.[159]

본 연구에서는 각 코딩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분석결과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는 반복적 비교분석으로 진행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이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동안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현상, 개념, 범주 간을 비교하여 이론적 표본 추출 및 자료수집상에 있어 포화상태를 판단하며, 더 나아가 현상, 개념, 범주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이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분석을 실시하고 다시 현장에 나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난 후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각각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전체의 틀에서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인 것이다. 연구자가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난 후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각각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전체의 틀에서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연구자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 반복적 비교(constant comparison)를 통해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개념과 카테고리의 유사점 및 차이점, 그리고 한 개념 및 카테고리가 다른 어떤 개념 및 카테고리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160]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다양한 질적 자료를 분석할 때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서 질적 연구방법의 자료분석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과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161]

그림 5-5은 근거이론 방법에서의 반복적 비교를 통한 분석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 5-5의 밑 부분은 연구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주로 인터뷰 자료(녹취록), 현장 노트, 및 각종 문서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raw data)를 이용하여 한 명(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연구 참여자(혹은 다수에

---

159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23.

160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5.

161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24.

걸쳐 면담한 동일한 연구 참여자) 및 기타 정보원 간에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다수의 지표들(indicators)을 생성하여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한다.[162]

그림 5-6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반복적 비교를 통하여 분석과정을 예시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에서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찾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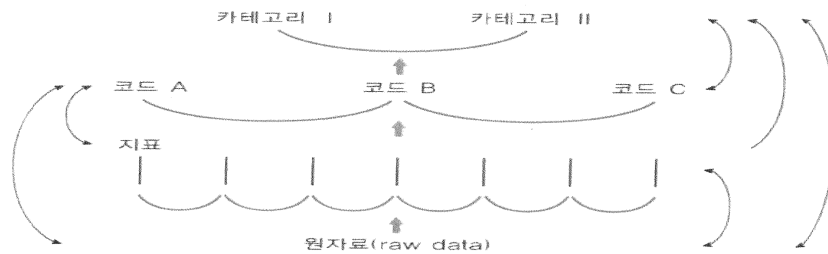



그림 5-5 반복적 비교과정

출처: Crewell, *Educational research*,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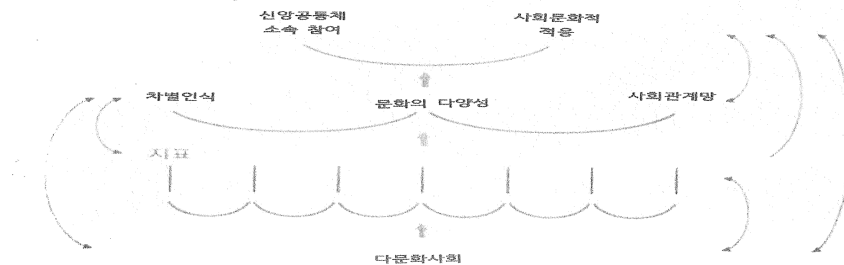



그림 5-6 다문화사회에 대한 반복적 비교과정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여 줄 단위로 분석한 후, 범주화를 통해 의미 있는 묶음으로 분류하고, 범주와 하위범주로 분류하고 연결시키며, 이론을 통합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162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5-86.

5.4.1 개방코딩

개방코딩(open coding)이란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개별 부분으로 분해하고 꼼꼼히 검사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개념을 형성하고, 범주화 작업을 통해 의미 있는 개념들을 분류하는 과정이다.[163] 개방코딩은 최초의 분석 단계로서 개념을 도출하고 그 속성과 차원을 자료에서 발견해 나가는 줄 단위 분석과정으로 시작된다. 줄 단위 분석은 인터뷰 녹취록을 줄 단위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상적인 의미단위로 개념화하는 과정이다. 개념화란 어떠한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의미덩어리로 명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구자의 명명화 작업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서 이루어지므로 분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는 개념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164]

줄 단위 분석이 끝나면 범주화 작업으로 이어진다. 범주화 작업은 줄 단위 분석에서 도출된 개념들을 의미 있고 대표성 있는 범주로 묶고 명명하는 과정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로 분류하고 묶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범주화로 도출된 개념은 현상을 대표해야 하며, 연구 참여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제나 쟁점, 관심사가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범주의 이름은 분석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지만 관련 문헌과 연구에서의 유사점, 차이점, 뉘앙스, 맥락적인 의미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일단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름을 고려해야 한다.[165]

본 연구자는 명명된 이름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재빨리 찾아내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독자가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 이름으로 명명하도록 노력하였다. 분석단계에서의 메모는 연구자가 분석과정에서 묘사하고 있는 분석적인 개념 및 연구자의 생각 및 느낌을 적어 놓은 일종의 분석, 연구자의 성찰, 분석적 통찰, 이론적 아이디어 노트라 할 수 있다.[166]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특별한 느낌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메모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표정, 말투, 몸짓 등을 유심히

---

163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6.
164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6-87.
165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0-93.
166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9.

살피면서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나, 강조하는 부분 등을 기록하도록 할 것이며,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에 참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다문화 사역의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다문화인들에 대한 긍휼이나 사랑, 비전이 느껴졌다. 그리고 다문화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소외, 차별적인 대우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타까움을 소외하곤 하였다.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4.2 축코딩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 코딩을 통해 생성된 범주들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범주들을 특정한 구조적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즉, 개방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해체되고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여 개방코딩에서 생겨난 범주들을 구조적인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축코딩 과정을 거침으로써 현상의 본질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완벽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범주들이 어떻게 서로 교차되고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다.[167]

패러다임(paradigm)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행위/상호작용, 그리고 결과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묘사하는 과정이 축 코딩에서의 핵심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패러다임은 범주 사이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도식의 틀인 것이다. 도식적 틀을 통해 왜, 어디서, 어떻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묶는 개념적 방식으로 중심현상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할 수 있다.[168]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수한 조건을 의미한다.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매개하거나 변화시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조건들을 의미한다. 행동/상호작용은 중심현상이 중재적 조건에 따라 조절하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

167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3.
168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4.

결과는 행동/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중심현상이 행동/상호작용에 의해 결과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것이다.[169]

축코딩에서 주의할 점으로는 첫째, 패러다임은 연구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틀이 아니라 연구의 특성에 맞게 선택 가능한 분석도구라는 점이며, 둘째, 패러다임 모형은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 중심현상은 연구문제 및 목적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핵심 현상이고 나머지 패러다임의 구성요소들과 이미 관련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러다임 모형 안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170]

그러므로 패러다임은 반드시 따라야 할 틀이라기보다는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핵심현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 선택 가능한 분석도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해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재구성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만들었다.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연결하여 전체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심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행동/상호작용, 결과들을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터뷰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5.4.3 선택코딩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결정하며,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연관지어,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범주들을 연결시키고 이론을 통합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선택코딩에서 말하는 통합이란 연구자가 원자료(raw data)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고의 발전을 의미하며, 이러한 통합의 과정은 크게 핵심 범주 선정, 이야기 윤곽 제시, 시각적 모형 제시, 즉 그림, 표 만들기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169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5.
170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6-97.

핵심범주는 반드시 모든 범주가 관련되도록 중심적이어야 하고, 자료에 자주 나타나야 하며, 범주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발전하게 되는 설명은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추상적이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핵심 범주를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핵심 범주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를 생성되는 이론에 입각하여 통합적으로 기술해야 한다.[171]

이야기 윤곽이란 일종의 생명력을 지닌 통합적 이야기로서 연구에서 발견된 핵심 현상을 서술적으로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이해를 촉진시키는 기능 및 이론 생성을 위한 통합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 시각적 모형 제시란 범주들 간의 통합을 그림, 도식 등 시각적 모형으로 제시하여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시각적 모형은 이론적 통합을 도와주는 하나의 기법으로 텍스트화된 추상적인 범주들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재현하여 이론의 밀도, 복잡성, 통합성을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쉽되 충분히 설명적이어야 한다.[172]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개방코딩과 축코딩에서 생성된 범주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야기 윤곽 제시를 사용하였으며, 시각적 모형 중 하나인 도표를 활용하여 구체화된 이론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5.5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엄격성이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해석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란 올바르게 공정하고도 윤리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고, 연구대상의 경험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려낸 학술적 엄격성을 통해 획득한 것을 의미한다.

---

171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7.
172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8-100.

5.5.1 연구자의 준비와 연구의 윤리성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자의 준비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객관성, 자료의 미묘한 느낌과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분석, 이해하는 민감성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자의 민감성이란 수집된 자료에서 미묘한 뉘앙스(nuances)와 단서(clues)가 암시하고 있는 의미나 포인트를 포착하는 능력 또는 통찰력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많은 관련 자료와 이론에 익숙하고 이러한 연구 자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준비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173] 즉 민감성이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로부터 생성되는 이론에 적합한 요소들을 인식하고 포착하는 연구자의 통찰력이다.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고, 연구자의 자료수집 및 처리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가 용인하는 도덕규범을 포함한 윤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질적 데이터 수집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인터뷰에서도 인터뷰 형태가 구조화되었든 반구조화되었든 간에 연구자는 예상치 못하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질문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불쾌함, 불편함, 창피스러움 등을 느낄 수도 있다.[174]

본 연구자의 민감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첫째, 다문화사회에 관한 서적들을 다수 구입하여 숙독하였다. 둘째, 다문화에 관한 학술 세미나,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셋째, 학술지나 논문 등, 다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색하여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취하여 분류, 정리하였다. 넷째, 연구자 본인도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목적, 인터뷰내용, 인터뷰시간, 녹음허가 여부, 생길 수 있는 위험성과 대처방법 등 연구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윤리적 고려를 실시하는가를 설명하여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일단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연구 도중에 응하고 싶지 않다면 바로 중지할 수

---

173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2.
174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411-20.

있다는 약속도 언급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사적 비밀을 지키기 위한 자료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읽어주고 서명을 받았다. 연구의 목적,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공동참여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연구 참여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녹음도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실시하였고, 또한 녹음 내용은 문서화하여 분석을 거쳐 논문자료로 활용됨을 알렸다,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연구 종료 후에는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연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라도 익명성이 보장됨을 약속하였다.

5.5.2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연구자들은 자신의 특별한 패러다임인 견해, 훈련, 지식, 편견 등을 연구 상황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하는 동안 자신의 연구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가져야 한다.[175] Patton은 질적 연구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그림 5-7과 같이 주요 개념과 용어들을 제시하였다.

---

[175]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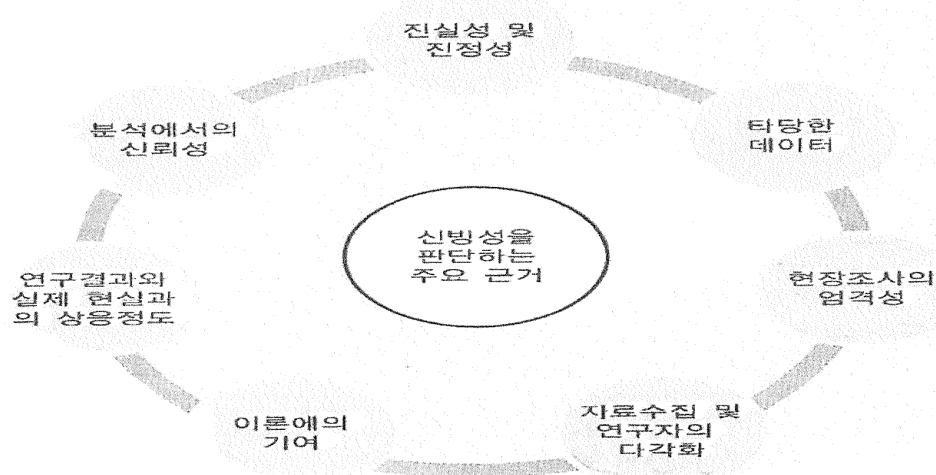



그림 5-7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출처**:**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92.

질적 연구는 인과관계, 일반화, 검사, 예측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깊이 있는 심층기술(in-depth description)을 통한 이해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념 및 적용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176] 이런 맥락에서 Bogdan, R. C. & Biklen, S. K는 "주관적인 연구대상에 대해서 주관성을 갖는 연구주체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방법"[177]이 질적 연구라고 설명한다.

Patton은 질적 연구의 질을 높이고 신빙성(credi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엄격한 현장조사법을 통해서 높은 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연구자의 신빙성으로 연구 훈련 정도, 경험, 추적기록, 지위, 자기표현 등에 기초한다. 셋째, 질적 연구의 가치에 관한 철학적 믿음으로, 조작되지

---

[176]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90.

[177] R. C. Bogdan, & S. K. Biklen,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5th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2007), 37.

않은 자연스런 탐구, 질적인 방법들, 귀납적인 분석과정, 의도적인 표집방법, 종합적인 사고 등에 관한 연구자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78]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성확보를 위해 "Merriam"[179]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선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이다. 연구결과 혹은 자료 분석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어 연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혹은 연구를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를 물어 연구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가운데 연구논문 작성경험이 있는 2명을 선정하여 연구결과가 제대로 참여자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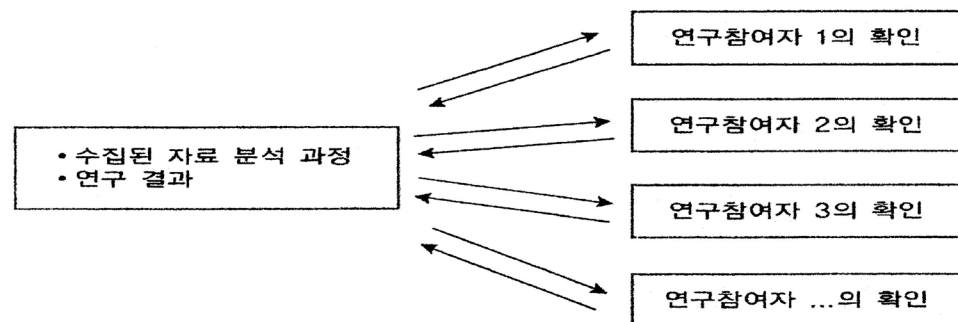



그림 5-8 연구 참여자 확인법

출처: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96.

둘째,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동료와 함께 연구자료 및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동료검토법(peer examination)이다.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고 자신의

178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93.
179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93-98.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료 3-5명을 선정하여 연구 분석 자료와 연구결과의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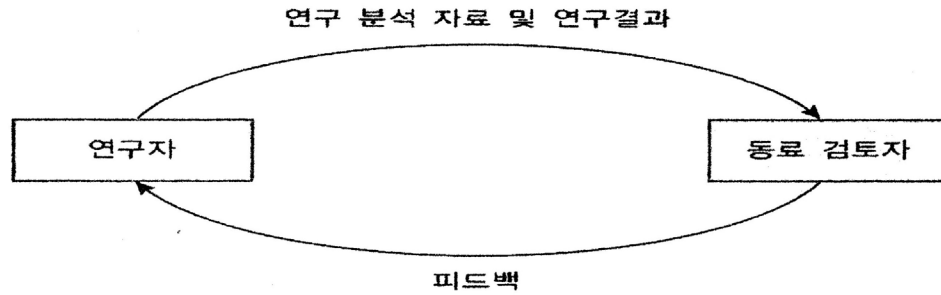



그림 5-9 동료 검토법

출처**:**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97.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담당 지도교수를 포함한 지도위원들에게 본 연구에 관한 해석방법, 연구목적과의 관련성, 연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을 나누어 사실에 충실한 연구과정과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자의 주관성(subjectivity)을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현재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며,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으로 다문화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또한 다문화인들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라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다문화 사역 비전을 공유하고, 방향을 정하여 다문화 선교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

제6장

한국 내에서 다문화공동체 형성 사역 유형

필자가 이번 장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따른 연구 분석과 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먼저 한국 내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과 사역하고 있는 이주민 교회들과 대형교회의 부속되어 있는 다문화 선교센터를 찾아보고 목회와 선교 사역의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교회의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문화 선교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선교와 사역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문화 선교와 사역이 어느 특정 교회나 특정인에 한정된 사역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 또한, 교회의 규모나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이주민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만남을 통해 다문화 선교와 목회라는 사역 속으로 한걸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개척 유형과 병행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보았다. 필자는 일부 담임(담당)목회자 인터뷰를 진행했고, 나머지 교회와 선교단체는 문서 자료, 아티클, 검증된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유형 분석은 다문화 공동체를 향한 선교와 사역의 시작 배경과 현황, 각 유형의 다문화 목회와 사역의 특징, 사역의 시사점 순으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살펴보았다. 이는 다문화 선교와 사역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감, 특정 교회나 특정인에 한정된 사역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6.1 개척유형

교회개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렉 리빙스톤(Greg Livingstone)은 교회 개척을 다음과 같이 타문화권 선교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교회 개척이란 단어의

성경적 기원은 고린도전서 3:6로 가 볼 수 있다. 거기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기록하였다. 교회 개척이란 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개척이란 복음 전하는 일, 결신자들을 제자로 삼는 일, 사역을 위하여 훈련시키는 일, 그 교회를 위한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 등을 포함하여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그곳을 떠날지라도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재생산하도록 발전시키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180] 다문화 신앙공동체(다문화교회) 개척도 이러한 타문화권 선교 개념 속에서 시작이 된다. 선교적으로 볼 때, 가거나 보내거나(go or send)라는 기존 선교 개념의 틀에서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로 보내 주신 이주민을 향한 선교적 개념과 그들을 이웃으로 바라보는 선교, 목회적 개념이 접목된 다문화 사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는 필자가 직접 인터뷰한 러시아인(고려인 이주민)사역을 하는 안산 순복음 CIS 선교교회를 살펴보았고, 둘째는 안산 넘치는교회 살펴보았다. 넘치는교회 이주민 사역의 상세한 내용은 재미교포 1.5세인 폴 김 목사의 다문화 사역 내용을 보도한 책자,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6.1.1 순복음CIS선교교회

형진성 목사는 1995년부터 29년 가까이 러시아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이다. 러시아의 극동아시아 지역 사하순복음교회와 하바롭스크순복음교회를 맡아 목회했고, 러시아 야쿠츠크(순)교회 창립, 일본총회 동러시아 지방회장을 역임했다. 2015년 귀임한 후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FMTC훈련원감과 다문화센터장 등을 지냈다. 2019년 안산에 순복음 CIS 선교교회를 세우고 러시아어권 이주민들(고려인)과 자녀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왔다. 같은 해 방과 후 학교인 레오(LEO)센터를 세우고, 러시아 이주민 자녀들이 낯선 타지인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레오센터는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Love Each Other)는

[180] Greg Livingstone, *Planting Churches in Muslim Cities* (Grand Rapids, MI: Baker House,1993), 72.

영문자 이니셜(LEO·레오)에서 따왔다. 필자가 만난 형 목사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순복음 CIS 선교교회 산하 레오센터에서 센터를 통해 전도된 아이들과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사역 시작의 배경. 형 목사는 러시아에 살며 몸소 겪은 교육이나 비자, 의료 문제의 어려움을 거꾸로 한국에서 똑같이 겪는 러시아인과 고려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러시아 태생 고려인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 온 김미하일(10)군은 학교를 배경으로 그린 자신의 모습을 손과 발 없이 커다란 상자에 갇힌 존재로 묘사했다. 집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해야 하는 낯선 환경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싶은 듯했다. 이것이 국내 이주 러시아인을 상대로 목회하던 형목사가 사역의 의미를 찾게 된 계기가 된 사연이다. 하지만 형 목사는 한때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할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러시아 선교를 마무리 지을 때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는 사도행전 말씀을 응답받고 은퇴를 준비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무릎 수술을 받게 했고, 자연스레 국내 거주 러시아 이주민의 어려움을 보여주시며 다시 사역의 길로 이끄셨다. 처음에는 이주민 자녀들과 함께 캠핑도 하고 지방 여러 도시를 다니며 농활도 체험하게 하는 센터를 구상했다. 하지만 막상 만나본 아이들의 학습 수준은 심각했고 그렇게 교육 사역에 뛰어든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비전과 사역의 특징. 현재 순복음 CIS 선교교회는 재적 67명에 주일 평균 47명의 출석과 주일학교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영적 모임과 신앙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형 목사는 권미화 사모와 LEO센터에서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외국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능력별 한국어 수업 및 모국어인 러시아어 수업, 그리고 기타 학과 관련 수업을 돕고 있다. 형 목사는 레오센터에 매일 드나드는 러시아 태생의 고려인 초·중학생 60여명을 돌보며 미래를 꿈꾼다. 그는 레오는 작은 새끼 사자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며 미래 주역이 될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 아래 한국인이든 이주민이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됨을 꿈꾼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북한 새터민 등이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통일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며 강화도에서 서로 만나는 연합 사역도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형 목사에게 현 사역의 의미를 물었다. 그는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과 러시아인 자녀들은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경험한 세대임으로,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이들과 남한의 아이들, 북한을 떠나온 새터민 아이들까지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함께 어우러진다면 민족의 대통합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 목사는 서두르려 하지 않는다. 그가 러시아 선교사로 살면서 갖게 된 목회철학이 있다면 바로 오래 참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현지인을 보며 좌절도 많이 한 그였다. 형 목사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좌절하던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다며, 마치 하나님이 네가 여기서 한 사역이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네가 뿌린 씨앗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그런 그가 아이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이다. 형 목사는 이주민들은 언어 스트레스가 상당히 커서 때론 그런 스트레스가 가족에게 비수로 향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그들에게 가족을 향한 사랑, 오래 참음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 신앙을 심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사역의 장점과 한계. 한국교회가 이주민 가정에 가져야 할 시각은 어떠해야 할까? 형 목사는 그들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곁을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형 목사는 학교에서도, 정부나 사회에서도 항상 한국인과 이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려 한다며 한국교회 성도들도 물품 지원 등에만 그칠 뿐 옆자리를 쉽게 내어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국내 거주 이주민과 외국인이 250만명에 이른다고 하던데 선교사 파송이 점점 줄어드는 한국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보내신 것은 아닌가 한다며 이주민들의 입장과 처지에 관심을 두고 함께 어울리려 노력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6.1.2 넘치는 교회

넘치는교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교회로 재미교포 1.5세인 폴 김(Paul Kim) 목사가 2012년 4월에 개척한 교회다. 김 목사는 12살에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2005년 기독교연합선교회(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의 파송을 받아 한국에 왔으며, 온누리M센터에서 센터장으로 3년간 사역을 한 후 개척을 했다. 현재 넘치는교회는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에 속해 있다.

사역 시작의 배경. 김 목사는 원래 미국 뉴저지에서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적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개척교회를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아름마켓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라"는 음성이 들렸고, 주변을 둘러보니 신기하게도 한인 시장에 한인은 보이지 않고 온통 외국인만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들린 음성은 "열방을 향해 나가라! 한국에 들어가 이주민을 섬기라!"였다.[181]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 자녀교육 문제와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였지만, 일단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혼자 한국에 들어왔고, 일주일간 새벽기도를 하면서 열방의 예배를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 7:9-10).

열방 예배와 이주민 선교라는 사역의 방향이 구체화되었고, 아내인 레이첼 사모 또한, 동일한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182]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신학교였던 안디옥선교회 바이블칼리지(AMI; Antioch Missions International)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배학을 전공한 배경을 바탕으로 예배학교를 만들고, 10개국 출신의 신학생 25명을 모아 하늘의 소리(Soundof Heaven)라는 찬양팀을 조직했다. 하늘의 소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가 연합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드리는 열방 예배의 모형이었고, 이 예배를 통해 미얀마로 역파송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183] 1년간의 신학교 사역 중에 한 컨퍼런스에서 강연하다가 온누리교회 선교부 담당 목사를 만난 계기로 안산 온누리 M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3년간의 사역 기간 동안

---

181 서희연, "이주자들을 영적 정예 부대로 길러내는 안산 넘치는교회," *목회와 신학* (2013): 79.

182 서희연, "이주자들," 80.

183 서희연, "이주자들," 80.

전국에 있는 이주민 사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게 되었고, 이 경험이 선교의 방향성과 사역자와의 연합,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다문화 사역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184]

비전과 사역 특징. 넘치는교회의 비전은 1000/100으로 표현된다. 해외 1,000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역파송하는 것이며, 한국에서 100개의 미전도 족속 예배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배, 전도와 선교, 제자 양육, 역파송이라는 4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185]

첫째, 예배는 20개 나라에서 온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어로 드린다. 예배의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 외국인 지체들이 직접 찬양과 간증과 기도를 함께 하며, 복음 중심의 설교를 통해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186] 둘째, 전도와 선교사역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외국인들이 직접 팀을 이루어 전도하여 예배에 초청하는 시간을 보낸다. 국경이 없는 거리 전도에서 받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주말에 통화하여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주일 예배 시에 주중 전도사역에 동참 가능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187]

셋째, 제자 양육은 제자 양육은 토요일 오후와 저녁, 2번의 제자 양육반이 있는데, 성경을 기본 교재로 사용한다. 성경과 성령의 균형 잡힌 목양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된다.[188] 넷째, 역파송 사역은 사명과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리더십의 열매가 분명히 검증된 외국인들이 역파송 선교사 후보생이 되면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역파송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 매달 첫 주 비전헌금을 모아 역파송 선교사들에게 보내며, 그들과의 이메일 교류를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같은 말씀과 비전을 계속 공유한다. 또한, 2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다시 초청하여 콘퍼런스를 통해 넘치는교회의 비전을 다시

---

184 서희연, “이주자들,” 80.

185 폴 김, *넘치는교회 사역 소개* (제10회 국제이주자선교포럼 자료집, 2017), 50.

186 폴 김, *넘치는교회 사역 소개*, 51.

187 폴 김, *넘치는교회 사역 소개*, 51.

188 폴 김, *넘치는교회 사역 소개*, 51.

공유하며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훈련을 통해 재정비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들에게 영육간 안식을 갖는 시간이 된다.[189]

넘치는교회는 위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MISSION TOC(The Overflowing Church) 비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계시록 7장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다문화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풀타임 사역자를 위한 신학교, 이주민을 위한 M센터 사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다문화 센터 개념이다. 국내는 한국어, 영어, 미얀마어, 우르두어권(남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 현재 파키스탄의 국어로 사용, 인도의 많은 모슬렘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부룬디어권, 불어권 등 5개의 언어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며, 6명의 이주민 사역자와 1명의 한국인 교역자가 동역하고 있다.

그림 6-1　MISSION TOC 비전

출처: http://www.missiontoc.net/bbs/board.php? bo_table=s2_ 2024.4.11 접속.

사역의 장점과 한계. 넘치는교회의 사역은 김 목사와 레이첼 사모가 사역의 중심에 있다. 부부가 이주민 사역에 동일한 소명을 받았고, 영어를 원어민과 같이 구사하기 때문에

189 폴 김, *넘치는교회 사역 소개*, 51-2.

사역의 집중도가 커지고 협력 사역이 가능하다. 또한, 그들은 1.5세로 미국 내의 이주민으로서 체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적 장점이 있다. 김 목사는 한국에서의 이주자 선교가 저투자 고효율선교라고 강조한다. 그는 국내 다문화 목회를 통해 1,000명의 역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넘치는교회는 영어가 사역의 주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통해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다문화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문화 목회에서 영어를 주 언어로 사역한다는 것은 양면성을 가진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주민에게는 교회의 접근성을 키워준다. 반면에 영어권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성도들은 거리감이 생기게 된다. 한국교회 안에서 본인이 이주민이 되는 것이다. 이주민 사역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 의식이 없다면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 개척 유형 요약을 아래 표 5-1과 같이 정리한다.

도표 6-1 개척 유형 요약

구분	순복음CIS선교교회	넘치는교회
사역자	형진성 목사	폴 김 목사
사역기간	25년(개척목회10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사)	19년(개척목회 12년)
비전	다음세대 다문화 인재 양성	현지인 선교사로 역파송 미전도 족속 예배 개척
사역특징	러시아 예배 한국어 교육	영어 예배, 전도 훈련 제자 양육, 역파송
장점	이중언어 이중문화 한국생활 적응	부부의 영어 구사 통한 협력 사역 미전도종족 국가에 역파송 선교 진행

한계점	주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어려움	한국인 성도의 교회 미정착 재정 부족
유형별 장점	목회자의 다문화 목회 철학 실현에 유리 동일 언어권 공동체로 예배 및 성도 간의 소통에 유리 역파송을 위한 집중 제자 훈련 실행 가능	
유형별 한계점	다문화교회보다 외국인교회 개념이 강함(전환기 유형) 언어적 제한으로 인한 한국인 성도의 정착 문제 재정 조달에서의 난관	

자료: 황종하(2020) 연구 참조 후 재작성

6.2 병행유형

병행 유형은 교회에서 다문화센터 베이스로 하여 다문화 선교사역과 교회 개척하는 형태다. 처음은 다문화사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다문화교회(센터)로 개척을 하지만, 이주민에게 한글 교육, 문화 이해와 같은 한국 생활 정착의 중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면서 이러한 사역이 연결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역을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실례를 제시해 보았다. 이런 내용들은 각 교회 다문화사역 내용을 보도한 책자나 아티클 및 문헌연구 자료,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다문화지원센터 병행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회의 규모가 큰 대형교회가 자체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다문화 목회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온누리교회의 M센터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교회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일산지역 승리교회의 다문화사역을 살펴보았다. 세째는 다문화학교를 운영하며 다문화 이주민을 향한 목회의 지경을 넓혀가는 나섬공동체를 소개하였다.

6.2.1 온누리교회(온누리M센터)

사역 시작의 배경. 온누리교회의 이주민 선교는 1994년 11월경,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노방전도와 방문 등으로 알게 된 이주노동자들의 공장 및 숙소로 찾아가서

심방을 하고 일대일로 성경공부를 하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1994년 12월에 이주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Shelter)를 영등포와 군포시에 개소하였고, 1995년 3월에, 온누리교회 당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사역팀을 온누리 미션이라는 명칭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190] 온누리교회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기능을 융합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계기로 새로운 선교적 교회였다.[191] 하용조 목사는 교회자체가 시종일관 선교적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온누리교회는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처음부터 소달리티와 모달리티의 두 측면을 결합시켰으며, 설립 2개월 만에 국제 선교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1992년에 두란노해외선교회를 설립해 온누리교회 및 다른 지역 교회 출신 선교사를 파송했다. 1994년에 선교사 2천명을 파송한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2000 선교본부를 설립해 교인들을 동원하여 선교지로 보내는 사역을 하였다. 온누리교회는 1996년-1999년에 걸쳐 11개국, 15개국 미전도 종족을 입양해 종족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교회 내 다양한 공동체들과 연결시켰다.

비전과 사역 특징. 온누리교회는 한국인 중심의 선교적 교회이다. 온누리교회는 온누리 M미션과 국제본부(영어, 중국어, 일본어 예배)산하의 언어별 예배들에 20개국에서 온 2,000여명의 외국인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들이 해외 아웃리치와 선교훈련, 그리고 역파송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이미 초창기부터 다국어 예배 공동체를 개척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공동체에 소속된 이주노동자들에게 교직을 부여하고,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대우할 뿐 아니라, 교회 임직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세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 또한 타문화 선교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한국성도 중심의 선교적 교회에서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모자이크 선교공동체로 전환된 교회였다.[192]

가) 온누리M미션: 온누리교회의 이주민 사역본부를 지칭하며, 30여개 예배 공동체(16개국, 25개 국가별 예배 공동체, 5개의 다문화 차세대 예배, 900-1,000)들이

---

[190] 하용조, *단숨에 읽기 온누리교회 20년* (서울: 온누리교회, 2006), 82.

[191] 김진봉 외 40인, *대형교회의 선교책무* (서울: 두란노, 2016). 70.

[192] 노규석, *온누리M센터를 통해서 본 모자이크 선교 공동체의 가능성- 다문화와 한국교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71차 정기논문 발표회, 2018), 40.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온누리M미션은 모자이크 선교 공동체로 발전해 가고 있다. 지역의 이주민교회로서 존재한다.

a. 서빙고 온누리M미션 (5개 예배, 200여명): 몽골, 러시아, 네팔, 아랍어, 페르시아어 예배. b. 남양주 온누리M미션 (2개 예배, 40여명): 인도, 네팔 예배 c. 인천 온누리M미션 (1개 예배, 20여명): 몽골 예배.

나) 온누리M센터: 온누리M미션의 4개 지역별 M센터(안산 본부, 김포, 화성, 평택)들과 안산 온누리M센터 내에 2개 전문사역(온누리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평생교육원)으로 구성된다. 대외선교 연합사역(추석Havrest 연합 수련회, RUSTA)과 안산시를 비롯한 정부관련 이주민 사업들을 진행하며 선교단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a. 안산 온누리M센터 (18개 예배, 600~650여명):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미얀마, 우즈벡, 열방 예배, 다문화 차세대 (유치, 초등, 중고등, 청년). b. 김포 온누리M센터 (2개 예배, 60여명): 캄보디아, 다문화 차세대 예배. c. 평택 온누리M센터 (1개 예배, 30여명): 몽골 예배.

온누리M센터는 온누리교회가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 2005년 12월 29일에 안산에 설립하였다. 온누리M센터에는 네팔,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23개 국가별공동체(Community)와 5개의 다문화차세대공동체(Community)가 있다.

온누리M센터는 외국인지원 센터로서 법률상담, 한글학교, 의료진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평생교육원과 온누리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http://www.onnurimcenter.org). 서빙고 중심의 온누리M미션 사역본부를 안산 온누리 M센터로 통합하고, 안산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각 구역별 예배 공동체들의 예배 공간을 신축 건물로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민 선교 사역의 전문성과 국가별 예배 공동체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각 예배 공동체들에 다문화 가정들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차세대 예배도 유치부(예수님의 꿈 아이), 초등부(꿈이 자라는 땅), 청소년(파워 웨이브), 청년부(Yer)로 세분화되어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안산 온누리M센터에는 4개의 다문화 차세대 예배와 14개국 예배 공동체들에 소속된 600-650여명의 이주민 성도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193]

온누리M센터에서 다문화 활동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횃불트리니티신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서울성경신학대학교, 그리스도신학대교 등에서 학업하는 외국인 신학생들이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신학생이 되었거나, 선교사들의 추천으로, 신학생이 된 이들에게 이주민 교회는 선교훈련과 목회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현장이 된다. 온누리M센터는 규칙적으로 이들 신학교의 외국인 학생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교제의 시간을 갖고, 리트릿에 초청하여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신학생들과 이주민 교회에서 사역중인 사역자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계속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한다.[194]

사역의 장점과 한계. 온누리교회는 대형교회로서 사회적, 선교적 책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 비해 재정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역적 장점을 십분 활용하면서 시대적으로 필요한 다문화 목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가고 있다. 사역의 초점은 '이주민에 대한 복음 전파와 세례, 이주민 성도 양육과 선교사 역파송, 다문화 차세대에 대한 교육 선교 확대'에 맞추어져 있다. 온누리교회는 다국어 예배 공동체 개척 사역과 함께 교회가 정한 기준을 통과한 이주민에게 교적을 부여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임직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이주민을 영적 한 가족으로 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온누리교회는 국내 다문화교회와 선교단체들을 섬기는 이주민 선교의 플랫폼(platform)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 자교회만의 독자적 사역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다문화교회, 선교단체들과의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지방의 다문화교회에 ABC양육 교재 및 국가별 성경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현지인 목회자가 필요할 경우 파송하여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

193 노규석, *온누리M센터*, 37-38.

194 노규석, *온누리M센터*, 44.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주민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연합 사역에 동참하며, 온누리교회가 먼저 경험했고 축적한 다문화 목회의 비결(know-how)을 공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교회들과의 연합 사역, 해외 선교단체, 선교사를 위한 훈련의 장 제공, 외국인 신학생을 위한 목회와 선교 훈련의 장 역할을 통해 각 나라를 살릴 리더십을 세워 나가고 있다. 온누리M센터는 온누리교회라는 대형교회의 부설기관으로 재정적인 부담 없이 이주민 사역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그 외형적인 모습이 개척교회 수준의 규모로 다문화 목회를 하는 많은 다문화교회에 위화감을 줄 수 있다.

6.2.2 승리교회(승리다문화센터)

승리다문화교회는 승리교회가 이주노동자 선교를 위해 세운 교회다. 승리교회는 예장 통합 측 소속으로 1981년 창립되었고, 현재 승리다문화비전센터를 통해 다문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3년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도 했다.

사역 시작의 배경. 승리교회의 이주민 사역은 1997년 한국에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며 이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몽골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게르방(나그네 숙소) 사역은 초라한 창고에서 시작되었다, 승리교회는 게르방 사역을 시작으로 2001년에 고양시조선족복지센터, 2003년에는 일산서구 덕이동에 몽골교회, 베트남교회를 개척하였다. 2006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이웰링호르교회를 개척하여 현재 승리다문화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심원 선교사를 파송하여 사역하게 하다가 2016년에 현지에 이양했다. 2006년 당시 게르방 사역을 하던 8가정이 몽골로 귀국을 하면서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몽골에서 신학을 한 후 담임목사로 세워졌고, 승리교회의 후원으로 건축 및 양육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승리교회 본관의 두 배에 해당하는 800평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게 하셨고, 2012년 2월 5일 첫 예배와 함께 다문화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 6월에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경험과 역량을 보다 다양한 선교전문가 및 활동가 집단과 공유하고, 다문화 선교의 인적자원개발, 이주민의 한국 사회적응 및 신앙 정체성 회복,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예배 공동체 형성,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 시민 양성 등을 기치로 다문화비전센터를 설립하였다. 2013년 4월 사단법인화를 통해 고양시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 직업능력개발사업, 이주민 합동결혼식,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지정, 다문화 진료, 다문화체험학습관개관, 법무부 이민자 조기 적응 지원센터 지정 등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승리다문화비전센터 안에는 다양한 이주민 공동체 예배가 있다. 1997년 게르방 사역 출발과 함께 몽골 근로자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게르방 몽골교회(담임 체담바 목사)가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 공동체, 캄보디아 공동체, 한가족공동체(다문화 부부공동체)가 있다.

비전과 사역 특징. 승리다문화비전센터, 승리다문화교회는 이러한 다문화 선교 비전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다. 다문화 선교의 비전은 다문화 주체 소수자들이 주류문화인 다수자들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승리다문화교회는 이주민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를 지향한다. 1997년부터 시작한 몽골 이주노동자 중심의 예배 공동체인 게르방 몽골교회만 승리다문화비전센터 안에 있는 장소에서 자체 예배를 드리고, 재정도 분리되어 있을 정도로 독립된 교회로서 사역하고 있다.

다른 공동체는 승리다문화교회 대예배실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을 하며 이주민과 한국인 성도가 각각 절반 정도가 된다. 주로 결혼이주민의 가족들이며, 다문화 사역 봉사자,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민들이 많은 관계로 주보에 나온 예배 순서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몽골어가 병행 표기되어 있다. 또한, 예배 진행과 설교는 영상과 이미지, 자막을 활용하여 이주민 성도들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승리다문화교회 주일 예배에는 장년 성도가 120여 명, 어린이 50여 명, 게르방 공동체

60여 명이 평균적으로 출석하고 있다. 승리다문화교회는 다문화비전센터를 통해서 행복한 다문화 공동체 형성이라는 다문화 선교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다문화 선교는 소수자 주체화, 다수자 127 변화, 다문화 예배 공동체 형성이라는 3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195] 이러한 다문화 선교를 위해 한국어 교실, 외국어 교실, 직업능력개발, 이중언어교육, 방과후교실 등과 같은 교육 활동, 무료진료 지원, 무료 미용 지원, 상담, 취미교실,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 활동, 예배, 기도회, 수련회, 성경공부, 교회 학교 등과 같은 신앙 활동, 다문화선교매뉴얼, 다문화아카데미 등과 같은 다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주민, 다문화 가족, 지역주민을 섬기고 있다. 교육 강사들은 승리교회 교인 중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고 재능 기부를 통해 봉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다문화체험학습관을 활용한 다문화체험 교실 프로그램 운영이다. 다문화체험학습관은 승리다문화비전센터 1층에 있으며, 연중 운영된다. 다문화체험 교실은 한국인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다문화체험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이주민들이 직접 다문화 강사로 활동한다.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이주민들이 자기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문화체험 강사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수자에게 다문화 인식개선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문화, 민족, 성 그리고 사회적 계층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문화 교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식,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196]

사역의 장점과 한계. 승리다문화교회는 이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역적 특징이 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이주민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어울리며 한국어라는 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다문화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사역 방향임을 보여준다. 승리다문화교회는 특히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 이주민 소수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한국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195 http://goslm.or.kr/greeting

196 김승일, "교회교육 파노라마: 승리다문화비전센터," *교회교육* 421권 (2013): 11.

절실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소수자들에 대해 긍휼 사역으로만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대등한 인격체로 대해 달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학습 체험관도 설립하였고, 다문화 이주민 강사 양성, 다양한 다문화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교회가 사역에서 가장 안타깝게 외치는 것은 동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사역이 정체되고, 결국 탈진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역의 부담을 공유하고,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동역자의 확보는 무엇보다 다문화 사역의 지속을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동역자 확보의 첫 발걸음이 바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 특히 한국교회 교인의 인식을 바꾸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승리다문화교회가 다문화체험으로 지역 인식을 바꾸는 사역을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다문화교회도 함께 지향해 나가야 할 사역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197]

승리다문화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안심원 목사는 승리다문화비전센터의 법인 사역이 지역에서 힘있게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우선적인 복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것이 입소문이 나서 교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이 아닌 단순한 교회 한 기관으로 접근하면 대사회적 역할이 많이 축소되는데, 법인의 경우 공공기관과도 힘있게 연계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목사는 이주민 사역자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핵심은 실제 이주민으로 하여금 사역의 각 부분을 해보게 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주도하는 형태로는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직분을 줘서 직접 가르치는 사역을 해볼 때,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였다는 것이다. 안 목사는 다문화 사역의 어려움은 이주민의 근로

---

197 황종하,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 유형 연구” (개신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30.

여건으로 인한 관계 단절이라고 했다. 훈련을 잘 받다 가도 직장 내 사장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타지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월 2회 휴일과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쉬는 공장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예배 출석과 양육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이주민 성도의 설교 이해력 저하, 통역자의 부족과 같은 사역의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면은 각 언어권 모임으로 보충해 나가고 있다.[198]

6.2.3 나섬공동체(재한몽골학교)

유해근 목사는 1992년부터 구로공단에서 이주민 선교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나섬교회, 뉴라이프비전스쿨, 뉴라이프선교회, 재한몽골학교, 나섬아시아청소년학교, 나섬어린이집, (사)몽골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 담쟁이 스쿨, 동북아(몽골)평화센터 등을 통해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다(nasom.or.kr). 나그네를 섬기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나아가서 섬기는 공동체라는 뜻의 나섬공동체는 다문화 사역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199] 나섬교회는 1997년 설립되었는데,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사역에 뜻을 같이하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시작되었다. 2011년 조직교회로 발돋움하였고, 나섬공동체의 사역을 기도와 섬김으로 지원하고 있다.[200]

사역 시작의 배경. 유 목사는 군목 출신으로 1992년 소망교회 원로 목사인 곽선희 목사의 권유로 구로공단에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사람과 일에 치여 많은 상처를 받은 가운데 갑작스럽게 포도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4년 구로공단을 떠나야 했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 인권에 대한 인권운동가로서 활동하였는데, 이주민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고, 다시 결단하고 들어간 곳이 성수 공단이다. 당시 성수동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1996년 성수동 뚝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우면서 선교하기 위해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를 설립하였다. 하나님의 사역자, 나그네들을 통한 새로운

198 황종하, "*한국교회의 다문화*," 131.

199 이환희,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독교 선교방향연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신학석사학위논문, 2009), 69.

200 구성모 외 6인, *다문화 선교* (서울: CLC, 2015), 125.

선교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이다.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는 현재 나섬공동체의 모태가 되는 기관으로 몽골권, 인도권, 이란과 터키를 포함한 이슬람권, 필리핀과 아프리카 등의 영어권,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권, 중국권 등으로 나뉘어 매 주일 200명 정도가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

유 목사는 성수동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였던 '몽골인 자매'[201]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자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서 선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 자매의 전도로 많은 몽골 사람들이 선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때부터 몽골 사역이 본격화되었다. 유 목사는 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나그네를 순례자로 만드는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그 접촉점은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고백한다. 몽골 사람들이 공동체의 주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때까지 주류였던 네팔인들과 필리핀인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몽골 이주민뿐 아니라 몽골이라는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게 되었다.

1999년 국내 몽골 근로자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재한몽골학교를 개교하였다. 몽골인들은 가족 단위로 거주를 많이 하는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많았고, 그 자녀도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몽골 아이들에게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 한글 교실 같은 대안학교로 시작을 한 것이다.

1999년 12월 8명의 아이로 시작을 했는데, 정식으로 학교를 개교하면서 더 많은 아이가 모여들기 시작했고, 2014년 학교를 신축해서 현재는 1~12학년(초중고과정) 300여 명의 학생이 몽골 교육과 한국어 교육, 세계화 교육을 통해 몽골과 세계를 빛낼 인재로 자라나고 있다. 12명의 몽골인 담임교사와 10명의 한국인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재한몽골학교는 몽골 이외의 국가에 세워진 유일한 몽골학교이며, 서울시 교육청과 몽골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2005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376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이보다 훨씬 많은 몽골인이 이 학교를 거쳐 갔다. 재한몽골학교를

---

201 유해근, *아이 러브 몽골* (서울: 나그네, 2018) 27-31.

졸업하고 현재 몽골 현지의 유수의 대학교에 진학해서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후대가 늘고 있다.

비전과 사역 특징. 나섬공동체는 나그네를 순례자로 만들고, 순례자를 자국의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역파송 선교를 세계적으로 네트워킹하고 한국인 성도들과 선교사, 역파송 선교사를 연결하는 미션 하이웨이(Mission Highway)가 구체적인 비전이며, 이를 통해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비전 성취를 위한 사역은 이주민 선교사역, 교육 선교사역, 동북아 평화와 통일 선교사역의 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나섬공동체의 방향성과 그 비전을 같이 하고 있다. 나섬공동체의 비전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서울 이주노동자 선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교의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보낸 여러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회가 되고자 한다. 둘째, 서울 이주노동자 선교회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본 선교회에 의하여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와 배운 진리를 토대로 고향으로 귀국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국 나라의 현지에 있는 교회와 현지 대한민국 선교사들과 연결되어 연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선교회가 되고자 한다. 셋째, 서울 이주노동자 선교회는 세례 받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침과 동시에 믿음이 신실한 노동자를 발굴하여 신학공부과 제자훈련을 시켜 본국에 귀국시킨다. 이렇게 귀국한 이주노동자가 본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함께 각국 현지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게 하는 국가별 일꾼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선교회가 되고자 한다.[202]

유 목사는 1992년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비전이 역파송 선교였다고 고백한다. 먼저 이주민들을 선교하고 그들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이들을 뽑아 신학교육을 하고 나아가 그들을 자신의 나라와 열방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파송 선교이며, 이 전략을 이주민 선교의 마지막 목적이며, 비전으로 바라본 것이다.

현재 나섬공동체가 파송한 역파송 선교사는 4개국 6명이다. 1992년부터 역파송 선교를 비전으로 붙잡고 진행해온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숫자가 적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유 목사는 역파송 선교가 훈련과정에서부터 실패하는 이유가 훈련과정 자체가 임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신학 과정을 통하여 빨리 끝내려는 성급함이라고 보았다.

---

202 이환희,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66-67.

역파송이 아무리 급박하다 해도 정상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신학 수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나섬공동체는 사역의 영역이 다양하다. 유 목사는 이주민 선교 1세대를 대표하는데,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목회는 교과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좌충우돌 부딪히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문이 열리는 곳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 가운데 새로운 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은 헌신자를 붙여주셔서 사역을 진행해 나왔다. 유 목사가 저술한 10권의 이주민 사역 관련 책자를 보면 이러한 헌신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사역의 장점과 한계. 유 목사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27년간의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목회의 여정에서 가장 잘한 것이 크게 세 가지라고 했다. 첫째는 역파송 선교 전략을 도입한 것이고, 둘째는 재한몽골학교를 통해 교육 선교를 한 것, 마지막 셋째는 뉴라이프선교회를 만든 것이다. 특히 역파송 선교와 뉴라이프선교회의 융합은 목회적 패러다임을 소유의 목회에서 공유와 접속의 목회로, 교인들에게는 성안에 머물던 신앙생활의 울타리를 넘어 길 위의 선교적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뉴라이프선교회는 현재 약 27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초교파선교회이다. 이곳에서는 각자 소속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함께 모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선교적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뉴라이프비전 스쿨을 수료하면서 필리핀, 몽골, 터키, 인도, 베트남, 네팔 등지의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역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연계가 되고, 그들을 후원한다.[203] 이들이 현지에서 겪게 되는 선교지의 열악한 상황을 보면서 선교 열매를 거두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국내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목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국내 이주민을 접촉하는데 안정감을 주고, 이주민을 통해 펼쳐질 열방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나섬공동체의 이주민 사역은 다문화학교 한 가지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섬공동체의 사역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것이다. 재한몽골학교도 마찬가지고, 뉴라이프선교회도 마찬가지다. 또한, 향후 평화적 복음 통일의 중요성을

203 유해근, *위대함을 원하면 홍해를 건너라* (서울: 나그네. 2015), 211-14.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통일 선교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시대적 필요에 따라 사역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다.

유 목사의 사역은 정주 목회가 아니다. 길을 내는 개척 사역인 것이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문을 계속해 열어가는 사역이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은 항시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이주민 사역을 통해 유 목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 목사는 그동안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었던 아픔이 있었다.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목회는 더더욱 관계 단절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야 하는 사역임을 볼 수 있다.

다문화교회 병행 유형 요약을 아래 표 6-2과 같이 정리한다.

도표 6-2 병행 유형 요약

구분	온누리M센터	승리다문화교회	나섬공동체
사역자	노규석 목사	안심원 목사	유해근 목사
사역기간	25년 (온누리교회)	27년 (승리교회)	32년 (나섬교회)
비전	다문화 차세대 양육 이주민 선교운동 역파송 선교	땅끝에서 온 자를 섬기는 다문화 선교	미션 하이웨이 (역파송 선교를 통한 세계적인 네트워킹 구축)
사역특징	이주민 정착 및 선교 훈련 프로그램 운영 예배 공동체 개척 다문화 자녀 사역	소수자 주체화 다수자 변화 다문화 예배 공동체 형성	이주민 선교사역 교육 선교사역 동북아 평화와 통일 선교사역

장점	이주민을 사역의 파트너로 인정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 발전 철수 선교사 활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한국인의 문화적 역량 강화 이주민 강사 활용 통한 다문화가정 안정화	재한몽골학교 통한 교육 선교 장기적인 역파송 선교사 양성 시니어 세대를 활용한 이주민 선교
한계점	초대형교회가 가지는 위화감	이주민의 근로 여건으로 인한 관계 단절 통역자의 부족	다양한 사역 영역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정적 위험성 관계 단절의 상처
유형별 장점	이주민과의 접촉점 형성에 유리 이주민 기관 운영을 통한 사역의 다양화 이주민의 한국사회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유형별 한계점	기관 운영의 인력(목회적 가치관 공유) 충원에 대한 난관 다문화 목회보다는 기관 운영에 치우치는 경향 사역의 다양화로 인한 재정적 후원 부족 현상		

자료: 황종하(2020) 연구 참조 후 재작성

제7장

연구 분석과 결과

필자는 본장에서 다문화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와 다문화 선교센타의 지도자들을 만나 질적 연구의 주류방법인 인터뷰와 메모 및 자료수집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개념)들을 가지고 개방코딩을 통하여 하위범주, 상위범주 등 범주화를 도출하고, 이로 인한 축코딩의 결과인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과 행동/상호작용 및 결과까지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핵심범주와 이야기 윤곽을 분석하여 선택코딩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을 거쳐서 이론생성까지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요인과 과정단계 및 과정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7.1 개방코딩의 결과

다문화 사회에서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한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다문화 센타 및 이주민 신학교, 예배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사역자들과 다문화 예배공동체에서 신앙생활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를 통하여 다문화인들의 일상과 가치와 비전과 프로그램의 체계, 운영방침, 봉사와 헌신 활동, 삶의 변화된 모습과 관련 있는 개념 및 범주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자료와 메모를 근거로 의미있는 개념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개념 중 비슷한 개념들을 그룹화하는 작업과 합쳐진 개념들을 포괄하여 표현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할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개념들을 분류하여 의미있는 개념들로 묶어서 하위범주들로 분류하였으며, 하위범주들끼리 분류하고 묶어서 별도의 의미있는

그룹으로 만들어 범주로 표현하였다. 개방코딩의 결과로 개념, 하위범주, 범주는 표7-1과 같이 정리하였다.[204]

도표 7-1 개방코딩의 결과

개념	하위범주	범주
모습의 차이에서 차별감 인식하게 됨	차별의식 체험	공동체 의식 형성
행동양식에서 위축감이 생김		
옷차림이나 꾸밈에 있어 차이감		
활동함에 있어 무의식 중에 위축감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무시	부정, 무시하는 경향	
저급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왔다는 인식이 강함		
인종적인 차별이 은연중에 있음		
대화가운데 의미가 곡해됨	이해의 폭이 상이함	문화와 언어적 한계 극복
생각하는 차이로 인해 오해도 생김		
생활의 가치관으로 어려움이 생김		
다문화인이라는 인식이 언어에 소극적	언어 표현에서 상충하는 현상	
언어의 억양으로도 오해가 생김		
문화적 언어사용 훈련이 필요		
직분을 맡는 것에 다소 부담을 느낌	믿고 맡기는 위임이 필요	위임의리더십 다문화 사역자 세우기
봉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다		
사역에 대한 충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리더 양육이 절실	다문화인 리더 세움이	

204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1.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절실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 한다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배려와 관용이 필요함	포용과 존중
다름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야 한다		
다문화인에 대한 배려가 깊어져야 함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함 필요	관심과 사랑의 실천이 필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		
적극적으로 참여와 서로 연대하는 노력		
다문화인들에 대한 인식 부족	인종적 개념 차이 이해가 필요	인종적 한계 극복 문화적 관습 이해
선입견에 대한 두려움		
피부와 색깔에 대한 차별감이 큼		
인사하는 태도나 관습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가 절실	
표정이나 행동으로 인한 오해		
음식을 먹을 때		
주변인으로서의 생활할 때	정체성 고민 해결	다문화 교육 강화
사회에서 소외되는 때		
위축되는 상황이 있음		
언어의 소통의 불편함	외모의 차이와 언어교육이 필요	
다르다는 인식이 부족		
타인의 눈을 의식할 때가 있음		
남들이 안하는 어려운 직종에서 일함	직업의 수준 차이 극복	사회관계망 형성
고용에 있어 차이		
임금이 낮거나 노동이 어려운 직종		
문화가 다르다보니 격리되는 느낌	사회적 관계 형성 교육 필요	
지역에서 활동반경이 제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도움이 필수		
공동체 봉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헌신과 봉사의 기여
숙달되지 못한 봉사에 불편		

<table>
<tr><td>소외되는 경우가 많음</td><td></td><td rowspan="4"></td></tr>
<tr><td>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사항</td><td rowspan="3">공동체형성에 헌신
교육이 절실함</td></tr>
<tr><td>공동체에서 연합을 향한 노력이 필요</td></tr>
<tr><td>다문화에서 자기 생존의지 강함</td></tr>
<tr><td>거리감과 배척, 소외감 제거</td><td rowspan="3">다문화인에 대한 환영과
수용, 가치 인식</td><td rowspan="6">환영, 수용, 결속
강화</td></tr>
<tr><td>다름에 대한 불안과 의식 차이</td></tr>
<tr><td>삶의 방식과 행동의 반응이 다름</td></tr>
<tr><td>같은 문화에 대한 결속감이 강함</td><td rowspan="3">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에 추진</td></tr>
<tr><td>각자의 삶에 대한 성향이 있음</td></tr>
<tr><td>생활에 대한 집착 정도 치열</td></tr>
<tr><td>같은 지역, 같은 문화별로 모임</td><td rowspan="3">언어와 문화의 생활이
동일한 공동체 형성</td><td rowspan="7">다문화공동체
형성</td></tr>
<tr><td>언어 소통으로 인한 연대감</td></tr>
<tr><td>내부에서도 가치 동질감으로 모임</td></tr>
<tr><td>출신국가별로 연대</td><td rowspan="4">각 나라 지역별 공동체
구성함</td></tr>
<tr><td>언어별로 연대</td></tr>
<tr><td>문화와 습관의 동질감</td></tr>
<tr><td>주변인, 이방인이라는 의식 연대</td></tr>
</table>

7.1.1 공동체 의식의 형성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공통의 언어 및 의사 소통을 들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통 언어나 의사 소통 방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또 언어는 다문화의 핵심이며, 그것을 통해 정보 전달, 아이디어 공유, 가치 전달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요 요인으로 공유 가치 및 신념을 들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통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와 신념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구성원들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 공동체 의식은 정착 초기부터 점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생존과 적응에 집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 교육,

취업 등 유사한 경험과 필요를 가진 다문화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해요.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는 것지요. 공동체 의식 형성은 개인의 경험, 환경, 노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주류 사회가 다문화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긍정적인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것지요. (E 목회자)

이처럼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이라고 할수 있다.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과 사회 네트워크는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문화에서 공동체 형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충청도 충주호 근처 지역의 00교회에서는 이주민 자녀들을 2-3명 모아 사모님이 한글교육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베트남 자매 가정이 20가구가 있는데 농촌교회 목사님이 저희 센터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 탐방하고 난 후, 매주 목요일 한글학교를 하기로 하고 저희 센타에서 베트남 사역자와 교사들을 보내서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동족인 베트남 사역자가 와서 한글교육을 하니까 베트남 엄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엄마들이 나오니까 한국인 남편들이 나오고, 베트남 가족들이 다 나오게 된 것지요. 갑자기 그 농촌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노인분들만 있었던 교회였는데 말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지 몰라요. 저희 센터에서 여름성경학교도 열어주고, 그 지역의 연합 사역도 하고 하니 그곳에 다문화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지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니까 결속도 되고 단합력이 좋아요. (E 목회자)

공동체는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자체적인 정체성을 발전시키며 구성원들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 특정 문화는 그 문화를 실천하고 공유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며,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문화적 상호작용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통된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소통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동시에 문화를 전파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 공동체 형성은 다양한 요인과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다문화인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차별이라든지, 거절감이라는 이질적 거리를 느낄 수 없도록 부단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적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교육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처음에는, 우리 이주민들끼리도 경쟁대상으로만 보고 서로 눈치보고, 험담하고,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타문화권에 와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인지, 인정 사정없이 거칠었지요. 상당히 험악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처럼 겉모습도, 인상착의가 예사롭지 안잖아요. 그러나 한국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공동체의 생활 시간이 가면서 적응도 되고, 마음도 열고, 대화도 수월하게 하기도 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지요. (F 평신도 리더)

7.1.1.1 차별의식 체험

연구 참여자에 의하면 이주민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기 자신이 자원이나 기회에서 소외될 경우, 이로 인해 차별받는다는 감정을 느끼고 위축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은 먼저 이 땅에 정착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의식보다는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돈이 되는 일자리 찾기에 급했어요. 자녀들의 문제는 뒷전이고, 어찌하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니까 자기 문화권에 있는 모임에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거기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일자리가 구해지고 자리가 잡혀 나가니까 이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소통이 안되지요. 무시당하는 것 같지요, 완전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눈치를 보고, 또 거주민들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경계심을 버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러다 문화에 적응이 되고 생활이 안정이 되다 보니 그들만의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A 목회자)

공동체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은 종종 문화적 오해와 선입견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관습이나 행동 방식이 다른 집단에 의해 이해되지 않거나 잘못 해석될 때, 차별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언어, 문화, 환경을 가진 이주민 그룹으로 공동체를 형성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도 자연스럽게 같은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이지만,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공동체에서는 언어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은 정보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상호 이해를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차별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차별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가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7.1.1.2 부정, 무시하는 경향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인은 자신의 언어로 의사소통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무시하는 경우. 이는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관습이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할 때. 이는 공동체에서 서로 간의 대화 중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 거주 성도와 이주 성도사이에 이해의 차이 때문에 언쟁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언어도 언어지만 표정이나 태도에 있어 서로가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일어난 사건인데, 기분 나쁜다는 거지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못사는 나라에서 그러느냐? 너무 억울하다 등등 온갖 큰 소리가 났지요. 그래서 서로에게 문화적 차이와 양식에 대해 설명하고, 거주민에게는 다문화인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이주 성도에게는 한국의 삶의 문화적 정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후로부터 다문화교육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D 목회자)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다문화인 개인이 모임이나 활동에서 초대받지 않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특히 공동체 내에서 외부인으로 여겨질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 그 목소리가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다문화인이 정체성을 고민하게 하고,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상황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공감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7.1.2 문화와 언어적 한계 극복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의 공동체에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혹은 정부나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실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해 보며 학습하는 것을 진행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다문화인들이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본이다.

이주 어른들도 이 땅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요. 또 자녀들도 학교 생활하는 데, 언어가 안되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어르신들 때문에 관공서에 동행할 때가 많았고, 아이들 때문에 학교에서 교회로 연락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교회에서 언어 교육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먼저 아이들을 모아 방과 후 한글교실을 운영했지요. 그리고 어른들도 한글을 배우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 글씨를 배우고 대화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더니 요즘은 너무 원할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A 목회자)

연구 참여자들은 또한 지역과 연계하여 이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행사나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케 하고 있다. 다문화인들이 의사소통 중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7.1.2.1 이해의 폭이 상이함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인들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본국의 문화와 새로운 국가의 문화 간의 차이를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거주지에서 적응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치관, 전통, 언어, 사회적 규범 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다문화인이 사회에 통합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문화인들은 자신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이해를 확장한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지원은 다문화인의 정체성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이야기한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에서는 다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교류를 통해, 외국인주민 자조모임, 자치단체 활동을 하고, 다문화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다문화컨퍼런스을 개최하고 다양한 다문화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다문화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어요. 매월 다문화 전문가 포럼을 진행해 다문화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갖도록 하고 있어요. (B 목회자)

결국, 이해의 폭은 그들의 개인적 경험, 문화적 배경, 사회적 관계, 경제적 기회, 정치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고 하겠다.

7.1.2.2 언어 표현에서 상충하는 하는 현상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인이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각 언어는 고유한 문법, 어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특정 개념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각 언어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정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감정이 다른 문화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표현이 일반적인 문화에서는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지만, 간접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문화에서는 불쾌감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다문화인은 상황에 따라 여러 언어를 번갈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표현이 잘못 해석되거나,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아 상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그 문화의 정체성이 드러나지만, 다른 문화의 언어를 사용할 때는 또 다른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모호해질 수 있다.

> 이주민 성도 가운데 표현이 그들의 말하는 습관과 방식대로 '여보시오' 가 일상화되어 사용하는 언어인데, 여기서는 '여보세요'가 맞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 버르장머리가 있네, 없네 하며 소란이 일어난 적도 있다. 또 직업을 묻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언어로 '당신은 지금 선생 짓을 하고 했는데, 이전에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게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통의 어려운 일도 있었다. 여기 성도들이 이주민들의 언어들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어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기도 하다. (F 목회자)

언어 표현의 상충 현상은 다문화인이 겪는 일상적인 도전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언어적,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7.1.3 위임의 리더십 다문화 사역자 세우기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사역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위임의 리더십을 통해 다문화 사역자를 세우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역 팀을 형성할 수 있다. 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역자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사역자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의 배경과

관심사를 이해해야 하고, 다문화 사역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여 모든 사역자가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문화 사역자들을 세움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문화 선교와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역자로 쓸 인재를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찾아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사역자를 양성해야 하는데 공동체의 기반이 약해요. 그리고 한국 성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다문화인에 대한 수용이나 포용하는 의식이 없거나 약해요. 어렵지요. 그래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교회, 선교단체, 교단 등 다양한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훈련된 다문화 사역자를 받기도 해요. (C 목회자)

연구 참여자들은 사역자가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혼란을 줄이고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위임의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사역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이 많은 리더가 신입 사역자를 멘토링하여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고, 사역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역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나 활동을 조직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팀 빌딩 활동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다문화 사역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위임의 리더십을 통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며 효과적으로 사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7.1.3.1믿고 맡기는 위임이 필요

연구 참여자들은 믿고 맡기는 위임은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고 한다. 리더가 사역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맡길 때, 그래야 사역자는 자신의 능력과 결정이 존중받는다는 자존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사역자는 자신의 업무에 더 열정적으로 임하게 된다. 위임을 통해 팀원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여, 더 나은 협력 관계가 형성된다. 위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이 팀 내 유대감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도 한다. 사역자가 위임받은 역할을 통해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조직 전체의 성장을 촉진한다. 각 사역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위임된 사역자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역자들이 다양한 접근법을 제안함으로써, 혁신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다. 믿고 맡기는 위임은 단순히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다문화 사역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위임은 공동체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리더십 기술인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인식이 너무 깊게 자리잡고 있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믿고 맡기는 것이 쉽지 않다.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작은 업무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책임을 늘려가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업무의 목적, 기대하는 결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E 목회자)

7.1.3.2 다문화인 리더 세움이 절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인 리더 세움이 절실한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다문화인 리더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모든 구성원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가진 리더는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여러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해하므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맞춰 소통할 수 있어, 오해를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한번은 다문화 사역자를 세워 공동체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는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즉 그들 나름대로의 의식, 자격지심이라고 할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위치와 보장 조건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힘이 들었지요. 생각해보면 정말 다문화 사역자, 현지 사역자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에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장기간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시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D 목회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리더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조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인 리더의 필요성은 단순히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리더들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7.1.4 포용과 존중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인들에 대한 포용과 존중은 다문화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은 사회적 통합,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문화인들은 각자의 문화에 고유한 가치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인들에 대한 포용은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호 학습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넓은 시각과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다문화인들이 겪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문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한국 성도들이 포용적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다문화인에 대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편견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실천하는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도 해야 할 것이다.

>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배타적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전에는 이주민들을 매우 무시하고 천대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왔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요즈음은 한국이 잘 살잖아요. 생활 수준도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인들에 대한 생각과 의식도 달라져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수용인식 높은 열려있는 분들은 다문화인 지역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협력을 잘해줘요. (A 목회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리더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문화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은 단순한 관용을 넘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함께 존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7.1.4.1 배려와 관용이 필요함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및 사회에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 이주해 온 다문화인들은 종종 소외감이나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배려와 관용은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나 관용함이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는 더 풍요롭고 강력한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배려와 관용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이주민 리더와 현지인 리더 사이에 미묘한 알력으로 한동안 공동체 전체가 어려웠어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교육을 시켜도 근본적으로 서로의 존재감이라는 마음의 상태를 극복하지 않으면 배려와 관용을 베풀어도 효과를 볼 수 없고, 차이가 더 벌어져 냉냉한 분위기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문화인에 대한 신뢰, 수용, 배려한다는 것이 현지인들로서는 쉽지 않아요. 알듯 모르듯 자기들 안에는 저들이 외국인이라는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이해와 교류라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문화 교육에 힘썼지요. (B 목회자)

서로의 경험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하는 태도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배려와 관용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다양한 문화가 서로 존중받고 공존할 때,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배려와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7.1.4.2 관심과 사랑의 실천이 필요

다문화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실천은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건강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은 사회의 큰 자산이다.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소속감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공동체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기 때문이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실천될 때, 보다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형성된다. 다문화인들은 종종 소외감이나 차별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말한다.

> 소소한 것이지만 이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필수 물품들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조금 지원해도 상당히 좋아하고 모든 일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동행해서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감사를 표하고 합니다. (F 목회자)

사랑과 관심이 있는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통해 서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준다. 다문화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은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차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더 공정하고 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즉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다문화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이다. 이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7.1.5 인종적 한계 극복/문화적 관습이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공동체 사회에서 인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이 공동체와 사회적 통합에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하다. 소통의 장 마련하여 개방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인종과 문화 간의 대화 속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포럼이나 워크숍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기관은 모든 인종과

문화를 포함하는 포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고용,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언급하고 있다.

> 솔직히 공동체 자체적으로 한글교육이나 때때로 문화행사는 하지만 지족 가능하게 정책적으로 운영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첫째는 재정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둘째는 다문화인들을 교육하는 시스템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요. 사역자 혼자서 운영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법무부의 이민자통합센터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정책에 따라 많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지원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인들을 위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하면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인들을 품고 정착과 진로의 가이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C 목회자)

다문화 커뮤니티 형성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이해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사회에서 인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열린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7.1.5.1 인종적 개념 차이 이해가 필요

인종적 개념 차이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편견과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인종은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개념인 반면, 민족은 문화, 언어,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인종적 개념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되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인종 차별이나 편견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인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모습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행동방식이 다르잖아요. 또 제3세계 가난한 나라, 못사는 나라 출신들이라는 여건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참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소하다는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드리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가 안았어요. 한국인들 성품 자체가 남을 배척하는 성격이잖아요. 생각하는 차이, 음식과 문화, 삶의 방식도, 다르지요. 초창기에는 다문화인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아요. 그러나 지금은 교육에 교육,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다 보니 신앙이라는 가치관도 공유하고 하니 공동체에서는 연합하고 협력하는 단계까지 왔지요. (D 목회자)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과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인종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한다. 사회적 통합과 포용을 위해 포용적 문화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종적 개념 차이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편견과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면서, 우리는 보다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7.1.5.2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가 절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참여 연구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하고, 고유한 가치 이해함으로써 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관습은 개인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서로의 배경을 존중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회적 통합과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서로 다른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욱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발생하고, 이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습을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 대부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좀더 관심을 갖고 배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기 나라 자국인들로 형성하고 있지만, 자국의 지역과 지방에 따라서 문화와 생활양식이 다르고, 소통양식도 달라요. 또 한국에서의 삶의 양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다양한 문화의 양식과 차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문화에 대한 감수성 교육을 많이 필요로 해요. (F 평신도 리더)

서로의 문화적 관습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도 하다.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존중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7.1.6 다문화 교육 강화

연구 참여들은 다문화인에 대한 다문화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는 방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인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이는 역활을 한다는 것이다.

> 특히 한국 성도들에게 대한 다문화 인식이나 수용에 대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성도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다문화인 대한 사역을 힘들어요. 단독교회에서 사역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나 수용의식이 굉장히 낮다고 해야하나 상당히 저조하지요. 외부인에 대한 의식 수준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문화의 수용성이 민감성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한국성도들을 먼저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다문화사역들이 조금이나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에 유입된 이주민들을 향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E 목회자)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인들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문화 교육은 역사, 언어,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과 경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행사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교육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야 한다. 교사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 저희 다문화공동체에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시간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강사 초청하여 다문화이해교육 실시하고, 은사를 이용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봉사활동과 연계한 실천적 프로그램 참여시킵니다. 언어 지원 프로그램 강화해서 운영하고요. 문화 간 교육 자료를 다양화하여 교육과정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축제와 행사 활성화해서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흥미를 키웁니다. 다문화 교사들을 양육하여 문화 간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이들에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도 하고 있어요. (B 목회자)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와의 연계는 다문화인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부모와 가족이 다문화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가정에서도 다문화적 가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인에 대한 다문화 교육 강화를 통해 우리는 더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가정,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7.1.6.1 정체성 고민 해결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 문화의 요소로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인들이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간의 공통점을 찾아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다문화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복잡한 사회적, 개인적 요소가 얽혀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겪는 정체성의 갈등은 자아 이해와 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자기 탐색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특별히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해요. 부모의 출신 국가와 자신이 태어난 나라 사이에서 자신의 소속감에 대해 혼란해하면서 심리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부적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자녀들이 건강한 이중 정체성(dual identity)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글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해요. 이는 어머니 나라에 대한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확립하는 것에요. 다문화교육을 통해 문화 간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것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풍부하게 하고 다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C 목회자)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원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원하는 커뮤니티가 정체성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7.1.6.2 외모의 차이와 문화, 언어교육이 절실함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인들이 종종 외모와 관련된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모의 차이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문화인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 다문화 자녀들은 현지 문화의 외적 기준과 다른 외모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생활 적응에도 문제가 있고요. 외모 차이로 인한 차별이나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다문화교육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A 목회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교육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외모와 관련된 편견을 줄일 수 있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면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이다. 언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인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 한글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의 최종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지만, 언어적 능력과 비언어적 능력을 모두 포함해서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적 맥락과 비언어적 요소, 즉 제스처까지 포함해서 교육합니다. (C 목회자)

또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 언어가 사용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함께 증진된다. 이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해를 깊게 만들기 때문이다. 외모 차이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나 문화적 갈등을 겪는 다문화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마련하여, 그들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문화인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의 정주하시는 자녀들, 1.5세대나 2세대들은 전부 한국인과 같아요. 이 아들은 자기의 모국어를 못해요. 그러나 한국말을 해요. 1세대들은 자기 모국어로 예배하지만, 물론 한국어도 조금 알아듣고 말을 할 줄 알지만, 그 자녀들은 달라요. 우리 미국의 교민교회들 하고 꼭 같아요. 한국의 미래를 본다면 이주민들의 자녀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들이 한국의 미래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주민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이주민 280만명시대인데 몇 년 지나면 400~500만명시대가 되리라 봅니다. 한류 현상을 타고 제3세계중심으로 한국으로 이주, 이민시대가 도래하리라 예측하고 있어요. 선교차원에서 교회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이들이 한국교회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역파송 선교사들이 될 수도 있고요. 가능성을 보고 육성해야 합니다. (E 목회자)

7.1.7 사회관계망 형성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해를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신앙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희 센터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문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신경을 써요.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경험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지요. 구성원들의 문화 간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인과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망 형성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B 목회자)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문화 축제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신뢰는 다문화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의 신앙과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7.1.7.1 직업의 수준 차이 극복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나 전문 자격에서 차이를 보일 때, 특정 분야에서 경력이나 기술이 부족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또 언어 능력의 차이는 직장이나 공동체내에서 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업무 수행 능력이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문화에서는 특정

직업이나 경력 경로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 수준에 대해 느끼는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학업 및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차별이 직업 선택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낮은 평가도 문제가 되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우려도 걱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 목회자)

다문화인들은 네트워킹이나 멘토링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력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하면 정보와 기회를 얻기 힘들어진다. 고용주나 동료들이 다문화인에 대해 가지는 편견이나 차별이 직업적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자존감이나 직업적 성공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인들이 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할 경우, 직업 수준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경력 발전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의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7.1.7.2 사회적 관계 형성 교육 필요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 차별을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면, 더욱 긴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 형성 교육을 통해 새로운 친구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워크숍 및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주제를 다룬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실습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화 및 관계 형성을 연습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커뮤니티 활동 참여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 보다 원활하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및 협동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도 합니다.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험 활동도 하고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다문화 축제나 행사를 통한 문화 교류 기회를 가지곤 합니다. (E 목회자)

이러한 교육은 사회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7.1.8 봉사와 헌신의 기여

봉사와 헌신은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기 위해 봉사는 필수적이다.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배경과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된다.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문화는 신앙공동체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

> 전체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다문화인들의 봉사와 헌신과 봉사라고 봐요. 단순히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깊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재생산의 주체로 세워질 수 있어요. 다문화인들은 더 깊은 신앙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신앙 실천의 기회가 되지요. 국내 다문화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로도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D 목회자)

연구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은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봉사를 통해 이웃이나 지역 사회와 연결되면서, 그들만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사회와 소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인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은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낸다.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7.1.8.1 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인들이 공동체에서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문화 이해와 문화 교류를 통해 포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지침을 여러 언어로 제공하여 언어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기존의 봉사자들과 다문화인들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다문화인이 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외국인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자원봉사는 다문화인들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돼요. (E 목회자)

그리고 경험이 있는 봉사자와 다문화인들 간의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규 참여자들이 더 쉽게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효율적이다고 한다.

7.1.8.2 공동체 형성에 헌신 교육이 절실함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있어 봉사와 헌신 교육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봉사와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공동체의 단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다. 사람들이 봉사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데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다문화인들의 봉사와 헌신이 절대 필요하지요. 공동체 형성에 있어 필수이잖아요. 그들의 봉사와 헌신이 없으면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상호존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다문화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교육을 해요. 특히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가정의 구성원 간 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시어머니 및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을 집중해요. (D 목회자)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에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다.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봉사와 헌신을 실천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신앙의 가르침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서 봉사와 헌신 교육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7.1.9 환영, 수용, 결속 강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수용은 다문화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결속감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한국인들이 다문화인들을 받아드리는데, 수용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전히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배타적인 것이 많아요. 저희는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통해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집중을 해요. 단기적인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요. (B 목회자)

다양한 문화가 서로 연결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때, 더 강한 사회적 유대가 생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환영, 수용, 결속력 강화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기여하며, 더 나은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7.1.9.1 다문화인에 대한 환영과 수용, 가치 인식

환영은 다문화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고,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용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각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되는 시점에서 다문화인들을 받아드리고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는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야 합니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접근을 많이 해요. 한국인들은 생래적으로 수요성이나 포용성이 매우 적어요. 다문화인 그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다문화인을 환영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C 목회자)

또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편견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에서 가치 인식은 다양한 문화가 각기 다른 강점과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모여 풍부한 아이디어와 혁신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공동체 발전을 위해 서로 다른 문화가 협력함으로써, 더 강하고 탄력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다문화인에 대한 환영과 수용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7.1.9.2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에 추진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공동체 행사 및 활동들을 개진하는 것이다. 종교적 축제 통합이라든지 연합 예배 및 기도회 등이다. 서로 다른 신앙 전통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과 인식 증진을 위해 신앙 교육 프로그램과 갈등 해결 및 화합 워크숍 개최 등 신앙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표 및 사명 수립을 위해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 설정하여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용적인 예배 환경을 통해 다양한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저희 다문화센터는 다국적, 다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인들이 대면 접촉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요. 공동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요. 구성원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포용적 문화를 조성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리더십 개발, 의사소통 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를 해요.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B 목회자)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서로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공동체의 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때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7.1.10 다문화 공동체 형성

이주민들이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며,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트워킹 및 소통을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 설립하고 이주민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이주민들이 쉽게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정보를 제공하여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형성된다.

> 다문화 공동체 형성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1차적으로 언어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지요. 각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 달라요. 돈을 벌려고 온 노동자, 결혼 이주, 유학생, 탈북자, 조선족 등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겠지만, 잘 살아보겠는 이 생각만 가지고 온 것지요. 여기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는 재정도 투입이 되어야 하지요. 인적 자원도 필요하지요. 하여튼 과정 과정마다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D 목회자)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에서는 현지 거주하는 지역의 언어(한글)를 배우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다문화 이주민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며, 종교적 이해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1.10.1 언어와 문화의 생활 동일한 공동체 형성

언어와 문화의 생활습관이 동일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문화가 동일한 구성원들은 서로의 가치관, 전통, 관습을 공유하여 강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는 공동체의 소속감 때문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오해를 줄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 공동체는 언어와 문화의 생활습관이 동일한 이주민들이 모여 형성이 되어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 간에 자연스러운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문화적 이해도가 높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낮지요. 물론 개인적인 관계에서 불화는 있을 수 있어요. 정체성 형성도 그렇고,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그리고 언어 장벽이 없어 그들만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요. 하지만 동질성 중심의 공동체 형성은 한계점도 있어요.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각이 제한적이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 저하 우려되는 부분이지요. (D 목회자)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면서 경험이나 지식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유사한 문화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다. 공동체 내에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과 안전감을 준다.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용이하다. 언어와 문화가 유사한 공동체를 형성하면, 구성원들은 서로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을 쉽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1.10.2각 나라 지역별 공동체 구성함

연구 참여자들은 각 나라의 지역별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들을 보면 문화, 역사, 경제적 요인, 사회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같은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예배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유대감이라든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통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 다문화센터 운영하지만 대부분 각 나라별로 공동체가 구성됩니다. 이유는 문화적 유대감 때문이지요. 공통된 언어, 문화, 전통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한 소속감이 형성이 되요. 타국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욕구가 있잖아요. 이주 초기의 정착 지원, 정보 교환, 취업 알선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잖아요. (B 목회자)

> 각 나라별로 예배공동체가 잘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인 리더가 중요한데 신학교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필요로 따라 다문화인 신학생들을 유치해서 저희는 사역하고 있어요.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리더자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국에 들와 있는 다문화 유학생들을 활용하여 다문화사역을 하는 방법도 한 예라고 할 수 있지요. 한국인 목회자는 언어가 안된다고 해도 다문화사역의 비전이 있으면 공동체가 생깁니다. (E 목회자)

또한 다문화인들이 살아가는 있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들이 그 지역 다문화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민자들이 특정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 특정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적 활동에 따라 주민들이 모여 협력하게 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7.2 축코딩의 결과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신앙공동체 형성 방안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방코딩으로 도출된 개념과 범주를 재구성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만들었다. Strauss와 Corbin(2019) 제안한 패러다임[205]은 이론 생성을 위한 분석적 틀로서 각 범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결하여 전체과정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 준다. 패러다임은 중심현상을 중심축으로 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행동/상호작용,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패러다임 모형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5]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4.

따라서 중심현상이 범주 사이의 미묘하고 내적인 관계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신앙공동체 형성방안에 드러나는 현상에 대하여 개방코딩으로 탐색된 개념과 범주들을 재조합하여 패러다임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그림 7-1과 같이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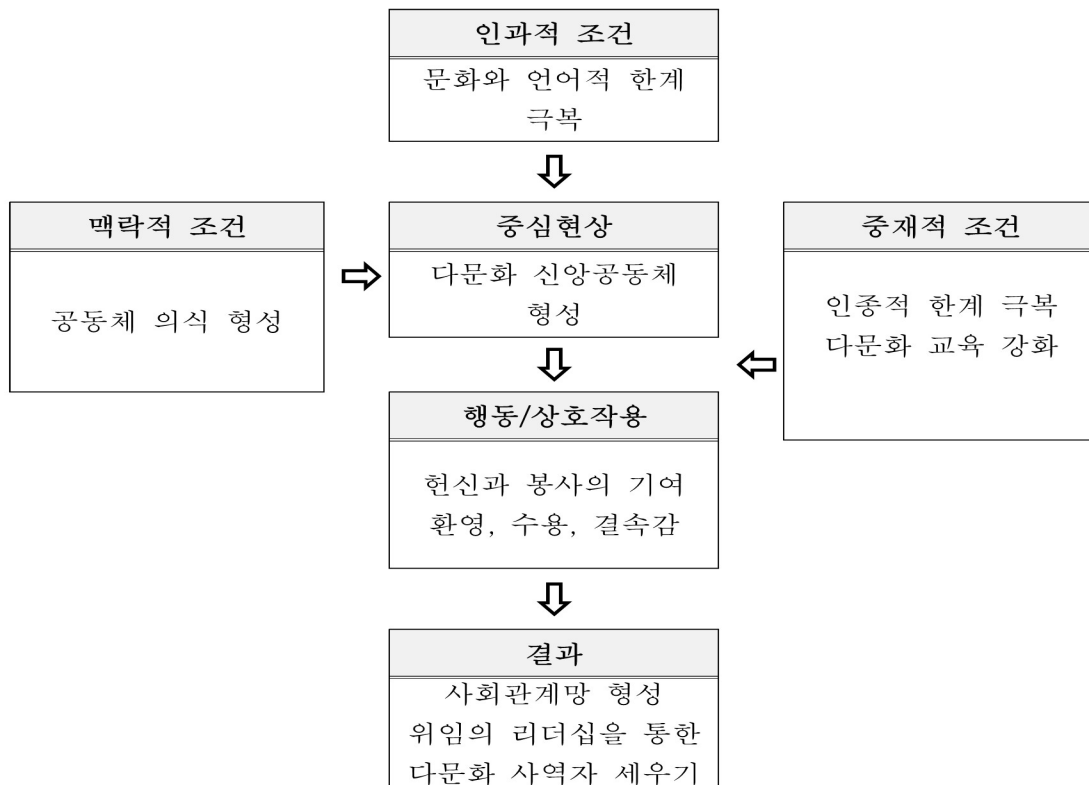



그림 7-1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의 패러다임 모형

패러다임 모형에서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와 언어적 한계에 부딪침으로' 인하여 그 동안의 자국에서 안정된 생활에서 벗어나 타문화권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는 현상인 인과적 조건과 '문화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야'하는 어려움에 있는 다문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정립과 다문화 공간에서의 삶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야 한다는 맥락적 조건과 '인종적 한계 극복, 다문화 교육을 받음'이라는 중재적 조건으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이라는 중심현상이 도출되었다. 중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상호작용 전략으로 '헌신과 봉사, 환용, 수용, 결속감' 등으로 정리되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다문화인으로서 자존감, 정체성을 회복하며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주민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2.1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인과적 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며, 일련의 행동/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된다.[206]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으로 나타났다. 참여 연구자들은 이주민 신앙공동체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 두번의 도전으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적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처음에는 선교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문화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선교했던 나라 언어를 하는 이주민이 있는 지역을 리서치해서 찾아갔지요. 거기서 다문화인들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절실한 것이 한글이니까 언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소수의 그룹들이 모여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주민의 한국 현지 적응에 대한 애환을 알게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함께 도와주고 살펴주다 보니 이주민들이 모여들게 되더라고요. (A 목회자)

> 시작 당시에는 공간이 없어서 기존교회의 배려로 공간을 사용했지요. 이주민들이 소수이기도 하고 또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선교비전이 있는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의 공간을 빌려서 쓰는 거지요.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공간을 사용하지만 기존교회의 성도들의 눈치도 봐야 돼요. 이주민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그 교회 담임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들은 나오게 되었지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수준이라든지, 다문화인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요. (E 목회자)

E 목회자는 처음에 기존 대형교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외국인 사역만을 역설하고 외국인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지역자치단체로부터 후원과 본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다문화 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 농어촌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다문화 예배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물적, 인적 다문화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

206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4.

7.2.2 인과적 조건

인과적(causal) 조건은 사람들의 행동반응이 중심현상처럼 발생하거나 전개하는 데 원인을 제공하는 사건이나 일을 의미한다.[207] 인과적 조건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 특정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중심현상이 나타났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다.[208]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의 인과적 조건은 '문화와 언어의 한계'로 정리하였다.

> 다문화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입니다. 소통의 문제가 크지요. 그래서 다문화 사역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다문화인을 향한 한글부터 가르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소통을 통하여 삶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른들 1세대들을 기본적으로 문화교육과 한글교실을 통해 공부하지만, 그들의 자녀들, 1.5-2세대들을 저희들은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E 목회자)

> 이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있다 보니 단순 직업이잖아요. 간단한 언어만 구사하고 일반적인 사회활동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야간에 한글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지요.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현지 사역자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자기들의 문화적 행사도 함께 하다보니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D 목회자)

D 목회자는 이러한 교육과 문화 행사를 통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드리고 주일이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예배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여기서 소명을 받은 이들이 있어 신학공부를 시키게 되고, 이들을 통해 자기 나라 지역으로 역파송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 저희 대안학교에서는 정주 다문화 자녀도 있지만, 중도입국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기존 이주민들이 가족 초청으로 입국하게 된 자녀들이지요. 저희는 한글교실을 운영하면서 언어를 가르치면서 비언어 영역까지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한국적 문화에 적응하도록 교육하지요. 이런 보편적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게 반응하지만, 이내 문화적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적응하게 되요. 예배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 것지요. (C 목회자)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인으로서 가장 큰 애로점은 문화 충격과 언어의 소통의 문제로 인해, 다문화인들이 다문화속에서 소외감,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해 사회의 적응 능력이 약해져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현실을 인식하면서 문화에 적응하고 언어의

---

[207]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5.
[208]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5.

한계를 넘어서려고 현실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7.2.3 맥락적 조건

맥락적(contextual)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교차하여 패러다임 모형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배경조건이며. 특수한 조건의 집합이다.[209]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조건이 인과적 조건으로 인하여 중심현상에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다. 인과적 조건인 "문화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중심현상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무엇 때문에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할까를 생각했을 때 다문화속에서 다문화인으로서 적응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정체성, 공동체 의식 형성과 다문화인으로서 충분히 문화와 언어를 극복하며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문화인으로서 자존감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맥락적 조건은 '공동체 의식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공동체의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 자기 나라 동족들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2-3명이었던 사람들이 20--3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같은 언어, 문화,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소문에 소문을 물고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희는 그들에게 먼저 언어 수준을 보고 그룹으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단계별로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요. 그들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하고 공동체의 결속감이라고 할까, 공동체 의식들이 형성이 되어 단결이 잘 되요. 문화행사 할 때 보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협조가 잘 됩니다. (E 목회자)

> 대형교회이다 보니 연합 예배공동체로 모이는데 연합예배 이후에 자기 동족들의 예배, 공과모임으로 모여서 코이노니아 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합니다. 또 주중에는 다음 행사를 위해 리더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기획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자존감, 이런 것이 있어요. 또 문화행사 때 보면 자기나라의 문화의식들이 강하게 발산되곤 합니다. (B 목회자)

참여 연구자들은 각 나라의 이주민들이 나름대로 한국 사회 문화에 잘 적응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는 모습이 강하다고 한다. 어려운 일이

---

209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5.

있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연합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이 다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7.2.4 중재적 조건

중재적(intervening) 조건은 중심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상황에서 상호작용의 전략을 촉진, 혹은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210] 이처럼 인간의 행동은 인과적 조건에 의해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적 조건에 의해서 조절되기도 한다.[211] 본 연구에서는 중재적 조건으로 중심현상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인종적 한계 극복, 다문화 교육 강화'으로 정리하였다.

> 자기 민족들마다 자존감들이 강합니다. 뭉치는 힘이 강하고 경쟁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는 다인종, 다문화 공동체라는 인식을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훈련해요. 문화교류를 통해 여러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식시킴으로 연합된 공동체임을 강조해요. (E 목회자)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인들이 스스로 인종적 차이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종적 차이의 다름을 수용하게 하고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다문화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공동체에서 보편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 협력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육을 하지요.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험 활동,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기회를 제공해요. (B 목회자)

> 가장 먼저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두려움도 있고, 생활 양식이 다르잖아요. 언어도 그렇고, 옷맵시나 얼굴 모습도 그렇고, 한국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문화 소양교육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체류에 대한 정보나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런 문화교육을 필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같은 동족을 접촉하면 예배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들의 삶의 필요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

210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5.

211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5.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 하나씩 해결 나가도록 돕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밀착된 관계로 공동체의 구성이 되어가더라고요. (F 평신도 리더)

참여 연구자들이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다문화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동체나 다문화 센타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았다.

7.2.5 행동/상호작용

행동/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은 중심현상이 중재적 조건의 영향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하거나,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서, 이를 통해 현상을 조절하고 수행한다. 행동/상호작용의 요소는 행동이 나타나는 과정, 행동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그 인식의 교류과정을 통한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타협과 조정과정도 포함한다.[212]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해 다문화인들이 몇 가지 행동/상호 작용 전략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다문화인들이 문화가 다른 환경 속에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결속하고 현실의 상황들을 수용하며, 다문화사회 속에서 다문화인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되는 데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

저희 지역은 다문화인들로 구성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각 나라 다문화인들이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잘 적응이 되는 지역이에요. 다문화 사역자들도 목회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력이 잘 된다고 봐요. 대부분 각 나라 파트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해 충돌이 적은 것 같고요. 또 공동체 사이즈가 소규모가 대다수이지만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지역의 지자체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위탁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연합 다문화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도 매우 협조적으로 봉사해주고 있어요. (E 목회자)

한국사람들이 외부인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문화인들이 나름대로 한국사회의 문화의 양식에 잘 적응하면서 지역에서 무난한 삶의 양식을 살아가고 지역사회에 봉사모습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환영받고 있어요. 지역의 거리청소, 미화작업, 문화행사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음식도 나누고, 운동회도 함께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 공동체는 작지만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다문화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거절감이 상쇄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A 목회자)

---

212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5.

> 저희는 다문화 자녀들,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춘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이나 수용도 낮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지만 힘들지요. 그래서 언어교육도 시키지만 문화생활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다문화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체계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E 목회자)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들은 다문화인들이 문화가 다른 현지인 이곳에서 지역의 사회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문화적 적응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본다.

7.2.6 결과

결과(consequences)는 중심현상이 행동/상호작용의 전략과 중재적 조건에 반응하여 나타난 성과나 결과를 말한다.[213]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행사 프로그램 갖는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봉사하는 과정은 신앙의 실천을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속감은 공동체의 핵심이다. 다양한 문화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욱 강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서로의 신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결속감인데, 민족, 언어, 종교,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간에 형성되는 유대감이잖아요.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차별이나 배제가 없어야 하고, 교육과 문화 교류도 필요하고, 공동체 내에서 지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예배공동체에서 결속감은 높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신앙과 영적 경험을 공유하며 형성되는 깊은 유대감이랄까요. (D 목회자)

이처럼 신앙공동체는 인종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모인 공동체에서, 차별이나 편견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문화적 차이를 교육함으로써, 공동체의

---

[213]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6.

결속감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차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다문화 자녀들은 두 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중요한 교육적 과제입니다. 부모가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지 고민인 것지요. 가정에서 부모의 문화적 가치관을 따르지만, 학교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적 규범을 따라야 할 때,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문화 자녀들이 두 문화 간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두 문화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며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문화 간 교육이나 다문화 교육을 해요. (C 목회자)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형성은 헌신, 봉사, 결속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 예배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중심이 되잖아요.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를 돕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문화인들이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충실한 참여로 헌신케 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 봉사케 하고, 다문화인들끼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감을 갖게 하고, 신앙과 문화를 이해하도록 말씀 공부를 통해서 교육해요. (E 목회자)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종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는 더욱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7.3 선택코딩의 결과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하고 정규화하는 과정이다.[214] 즉, 축코딩을 통해 밝혀진 범주들이 선택코딩을 통해 이론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핵심범주는 원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들을 모두 아우르는 발전된 사고로 코딩으로부터 생성된 개념보다 추상성이 더 높고, 중심현상을 유발하는 심층의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개념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연결하여 이야기 윤곽을 전개하였으며, 다문화 신앙공동체

---

214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7.

형성방안을 설명하는 범주들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도식을 이론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공동체 의식 형성'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 윤곽을 전개하였다.

7.3.1 핵심범주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핵심 범주는 '공동체 의식 형성'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사회 속에서 다문화인들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공동체 의식 형성이 되어 모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공동체에서는 각자의 문화와 신념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포용성과 수용성, 협력과 연대, 커뮤니케이션, 공동의 목표 설정, 다문화교육과 신앙의 가치 등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한다. 다문화인들이 다양한 관점과 차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서로 다른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가지고 있다. 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서로 지원하며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소통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언어적 장벽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봉사 활동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다문화인들은 서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7.3.2 이야기 윤곽

다문화인들이 나름대로 공동체 의식을 갖는 이유는 소속감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다문화인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공동체는 이러한 소속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 정체성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고, 이를 존중받을 때 정체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다문화인들은 종종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겪는다. 그러나 공동체는 서로 돕고 지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한다. 이민, 적응, 차별 등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연대감 때문에 공동체 의식들이 형성이 된다. 다문화인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더 큰 힘을 느끼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다. 또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감이 증대된다. 이러한 이유들은 다문화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공동체 의식 형성은 단순히 지역성, 집합적 성격만을 의미하기보다는 함께라는 정서적 측면을 함축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연대감 등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심리사회적 결속으로서의 공동체의식 역시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생활에서의 개인적 경험에서부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는 가치관, 규범, 정서 등을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의 개념 역시 현대사회에서 도시화와 정보화로 인해 사회적 환경들이 시공간적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공동체의 지역성보다는 사회관계적 측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 구성원 간에 유사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상호 기대하는 것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며, 한 개인이 갖는 안정된 큰 구조의 일부라는 느낌으로 규정한 개념정의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는 소속감, 구성원과 공동체 상호간의 영향력, 공동체의 자원과 협력을 통한 구성원의 필요 충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의 공유로 규정한 개념에서는 지역성을 뛰어넘어 공동체에 대한 동일시와 구성원 간의 상호유대가 강조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들을 아우르는 개념의 핵심은 개인이 소속 공동체 내에서 상호의존하고 연대, 협조하며

소속감을 형성하는 심리사회적 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함께 참여하여 그 속에서 함께라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연대와 협조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인들은 타문화권에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7.4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필자는 과정분석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사역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간 경과에 따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단계를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 탐색에서 중심현상은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으로 핵심범주는 공동체 의식 형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정분석 결과는 다문화인들과의 접촉의 단계, 다문화인들에 대한 인식과 인정의 단계, 그리고 다문화인들과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단계, 통합과 형성의 단계, 다문화 신앙공동체 유지 단계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분석을 통해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의 핵심 범주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의 유형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선교형, 목회형, 병행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7.4.1 과정분석

과정분석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어떤 순서와 단계를 거쳐 중심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되는 행동/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하는 것이다. 행동/상호작용이 시간, 공간, 돌발 상황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도성을 가지고 그 움직임, 변화, 맥락,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215]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 탐색에서 중심현상은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으로 핵심범주는 '공동체 의식 형성'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이라는 현상에 사역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간 경과에 따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단계를 분석한 결과 접촉, 인정, 상호 이해와 교류, 통합과 형성, 공동체 유지 단계로 나타났다. 각 단계는 그림 7-2와 같다.

[215] 유기웅 외 3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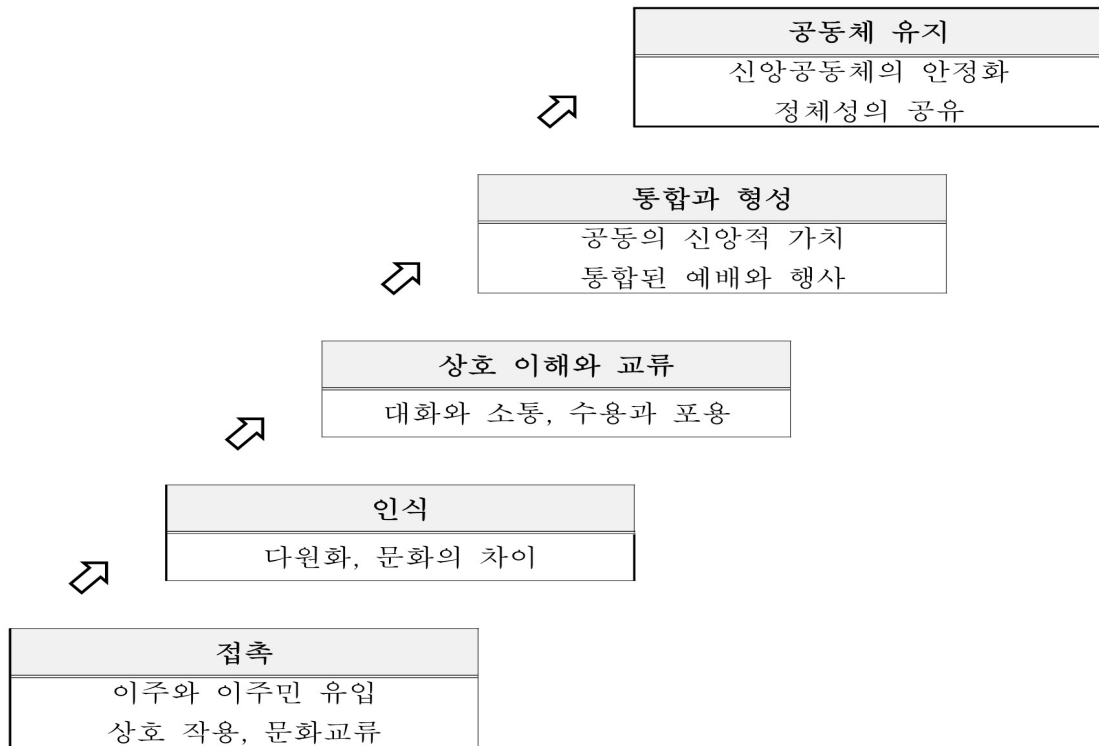



그림 7-2 시간 경과에 따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단계 분석

접촉단계.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다문화인들이 유입될 때 접촉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문화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언어를 익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나누거나 전통 공연을 하는 행사로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규모 모임이나 동아리를 만들어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방법을 간구하기도 한다. 또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함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인식단계. 연구 참여자들이 다문화인들의 문화나 차이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다문화인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듣는 것이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비언어적 신호를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인식한다. 따라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편견 없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주민들의 문화적 배경과 편견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상호 이해와 교류 단계. 다문화 신앙 공동체 형성 단계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다른 공동체의 가치관, 전통, 신념을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 공동 기도회, 문화 행사, 음식 나누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공동의 목표 설정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서로 다른 문화와 신앙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통합과 형성 단계. 이 단계에서 공동체가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공동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상호 존중과 수용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신앙과 문화가 가진 공통의 가치나 목표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 봉사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활동에 참여하며 협력하도록 유도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거나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신앙과 문화가 결합되어 새로운 정체성 확립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다.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게 된다. 서로의 문화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형태의 의식이나 축제가 생겨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와 신앙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면서 공동체의 연대감이 강화시킨다.

공동체 유지단계.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구성원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단계에서는 소통과 참여가 중요하다.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공동체의 방향성을 점검한다. 그리고 참여의 장 마련해서 소속감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문화 행사 등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공동의 목표와 비전 설정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갈등 관리와 해결이 중요하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교육과 발전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함으로 다양한 문화와 신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구성원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킨다. 사회적 연대와 연결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함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체가 더 넓은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양한 협력 기회를 갖기 위해 다른 공동체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7.4.2 유형분석

다문화신앙공동체 형성방안의 핵심 범주인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의 유형은 표 7-2와 같이 선교형, 목회형, 병행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도표 7-2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따른 유형

<table>
<tr><th>구분</th><th>범주</th><th>선교형</th><th>목회형</th><th>병행형</th></tr>
<tr><td>인과적 조건</td><td>문화와 언어적 극복</td><td>보통</td><td>강함</td><td>강함</td></tr>
<tr><td>중심현상</td><td>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td><td>강함</td><td>강함</td><td>강함</td></tr>
<tr><td>맥락적 조건</td><td>공동체 의식 형성</td><td>보통</td><td>강함</td><td>강함</td></tr>
<tr><td rowspan="2">중재적 조건</td><td>인종적 한계 극복</td><td>보통</td><td>강함</td><td>강함</td></tr>
<tr><td>다문화 교육 강화</td><td>보통</td><td>높음</td><td>높음</td></tr>
<tr><td rowspan="2">행동/상호작용</td><td>인종적 한계 극복</td><td>강함</td><td>강함</td><td>강함</td></tr>
<tr><td>다문화 교육 강화</td><td>보통</td><td>강함</td><td>강함</td></tr>
<tr><td rowspan="2">결과</td><td>사회관계망 형성</td><td>강함</td><td>강함</td><td>강함</td></tr>
<tr><td>위임의 리더십을 통한
다문화 사역자 세우기</td><td>강함</td><td>강함</td><td>강함</td></tr>
</table>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의식하고 준비하였는지에 따라 분류한 결과, 다문화인들을 향한 선교의 열정으로 다가가는 선교형, 다문화인들을 향한 영혼의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목회형, 그리고 선교와 목회를 병행하는 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행동/상호작용, 결과의 범주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선교형. 선교형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고, 그들을 공동체에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화적 적응을 위하여 선교활동은 각 문화의 특성과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신앙 메시지가 해당 문화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한다. 관계 중심의 전도 중심으로 선교는 단순한 전도를 넘어, 신뢰를 쌓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신앙을 나누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도와 비성도 간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양한 예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별 찬양, 기도

및 전통을 반영한 예배 형식을 도입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선교활동을 진행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서로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등을 통해 그들이 신앙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을 위한 멘토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그들이 신앙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를 위해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문화에 적합한 소통 방식을 취하고, 공동체 활동과 행사를 기획하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한다.

목회형.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이끄는 방식이다. 목회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각 성도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영적 돌봄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다문화 예배를 진행한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예배 형식을 통해 모든 성도가 참여하도록 한다. 소그룹 사역을 통해 각 문화별로 운영하여 성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다문화적 맥락에서 신앙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등을 통해 함께 신앙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각 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서 성도들과의 신뢰를 쌓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켜 준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적 성장을 돕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연결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병행형.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고, 동시에 그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상호 보완적 사역인데, 전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신자를 영입하고, 동시에 기존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영적 돌봄으로 사역한다. 각 문화의 특성과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앙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양한 예배 형식과 소그룹 및 커뮤니티 중심 사역에 집중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신앙 성장과 문화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세미나 등을 통해 영적 성장을 도모한다. 새로운 신자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그들이 신앙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연결하여, 공동의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선교와 목회가 지역 사회와 연결되고, 신앙의 실제적인 적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교회는 나그네, 이방인들을 돌보고 선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인 문화 회복의 사명을 받았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 목회형은 예수를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반면, 선교형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같지만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거와 작업장 환경 개선, 감정노동 상담 등에 집중한다.

7.5 이론생성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 방안에 대한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고, 다문화교회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 혹은 대형 교회 소속된 기관으로서 다문화센터, 법무부 산하 위탁 이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와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다. 저마다 다른 형태와 생각과 방법으로 사역하지만 다문화 이주민을 향한 사역에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 다문화 이주민 사역에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행율은 너무 저조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역자가 너무 필요한 시대에 있음에도 한국교회는 사역자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사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다문화사역자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통하여 분석하여 개념들을 정리하고,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에 대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7-3과 같은 모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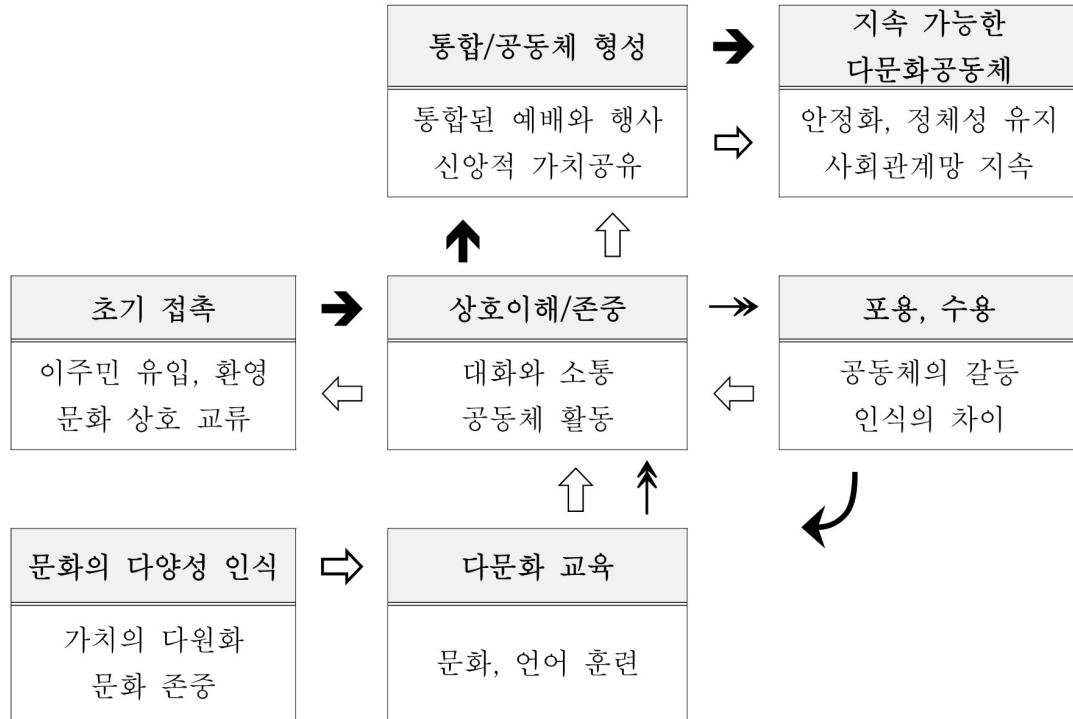



그림 7-3 다문화신앙공동체 형성방안 모형

신앙공동체의 형성과 통합 모형은 공동체 사역의 비전이 있는 사역자들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됨을 알고 이주민들을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상호존중과 존중, 통합과 공동체 형성, 지속 가능한 다문화 공동체 단계로 나아갔다. 이들은 순조롭게 다음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단계 단계마다 요인들이 동시에 연합 상호작용을 통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공동체 사역의 비전이 대형교회의 기관에 소속된 다문화 사역이라면 문화의 다양성 인식, 다문화 교육, 상호이해와 존중, 수용과 포용, 통합과 공동체 형성, 지속 가능한 다문화 공동체 단계로 나아갔다. 또한 이들 사역자들은 이러한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한 후에 지속 가능한 다문화공동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각 단계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5.1 초기 접촉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다문화 이주민들이 유입되는 것을 보고 선교적 차원에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관심과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접근하여 다문화 교회를 개척하거나 대형 교회의 선교비전에 따라 다문화센터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인들을 접촉하는 과정 속에 환영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필요 요소, 이주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정착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관계 소통을 하면서 유지하고 모임을 진행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상황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문화센터에 접근했다가 그들의 삶에 필요 절실한 한글 언어교육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익숙해지고 나면 다른 이주민들을 인도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인들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문화, 전통, 신앙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문화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한다. 언어 장벽을 허물기 위해 통역 서비스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5.2 문화의 다양성 인식 단계

다문화인들에 대한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와 측면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이는 단순히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뿐만 아니라 계층, 지역, 성별, 직업, 연령,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구분된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공존하며 창조적인 상생과 번영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는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증진하며, 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다문화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넘어 문화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대화를 강조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천적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을 통해 주류 집단과 비주류 집단 모두가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민자들이 출신 국가나 민족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집단의 문화들이 사회 내에서 조화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문화, 혈통,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용인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단순히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풍요롭고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7.5.3 다문화 교육 단계

다문화 교육은 상호 존중과 이해 증진, 편견 해소와 정체성 확립, 사회 통합 촉진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포괄적 접근, 상호작용 강화, 미디어 활용, 공감 능력 배양을 통해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에 따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과 자료를 다양화하고, 문화 간 교육 교재와 자료의 다양성 확보하여 교육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신의 문화를 인식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하려고 한다. 미디어를 활용하여 신문, 방송, 영화, 드라마,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또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다양화를 추구하는 노력도 한다. 다른 문화와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 문화 축제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를 주도하여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교사의 문화 간 소통 능력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한다.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여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말이다. 다문화 교육체계와 교육문화 전체를 다문화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노력을 시도하기도 한다. 언어 지원 프로그램 강화하여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언어 교육과정을 통해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원활한 학습을 돕는,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향상과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모두를 위한 공감 능력 배양이 중심이 되는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7.5.4 상호 이해와 존중 단계

다문화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는 단순히 소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기 하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인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 단계에서는 교육을 통한 이해 증진, 소통 능력 향상, 가족 구성원 교육, 미디어의 활용, 인권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확대해서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에 따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실시하고, 다각적 접근으로 가정, 학교, 대중매체, 또래 집단,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을 통해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다문화 감수성 및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상호 번역이나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도록 한다. 특별히 다문화 가정 구성원 교육으로 다문화 가정의 남편과 시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문화 아동이나 이주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다문화인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7.5.5 포용과 수용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포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도 한다. 포용적 언어 사용을 장려하고,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 언어 사용 자제하도록 한다.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하여 문화 간 이해와 교류 증진을 도모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참여 보장하고, 소수자 그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다국어 정보 제공 및 통역 서비스 지원하고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시설 및 서비스 제공하기도 한다.

7.5.6 통합과 공동체 형성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의 통합과 형성을 위해서 만남의 문화 증진, 다양성 속 일치 추구, 적절한 리더 구조 마련, 종교 교육의 역할 강화 등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와 새로 유입된 이들 사이에 만남의 문화를 증진한다. 선제적으로 참여하기, 돌봄과 만남의 문화로 전환 등을 추구한다. 이념과 인종적 장벽을 극복하고 대화와 상호 수용을 통해 차이점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각 문화의 고유한 긍정적 요소를 인정하고 활용, 보편적 논리에 열린 자세 갖기, 삼위일체의 모델을 따라 다양성 속 일치를 지향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의 다양한 민족 배경을 가진 성도들을 위한 적절한 리더들을 세우고 교육하고 있다. 또한 종교 이해(religious literacy) 증진, 다양한 종교적,

비종교적 세계관 교육, 통합적 접근으로는 교양 또는 소양 교육으로서의 종교 교육 실시, 개별 종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병행, 종교 교육 콘텐츠의 통합적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7.5.7 지속 가능한 다문화 공동체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고, 구성원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 개최하고, 서로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포용적인 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해다양한 문화권의 전통을 반영한 특별 예배나 행사 진행, 다국어 서비스 제공으로 언어 장벽 해소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다문화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커뮤니티 대화 포럼 개최, 문화 간 이해를 위한 워크숍 진행,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 구성원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 훈련 및 언어 교육도 제공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제3부

변화를 위한 제언

제8장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 전략

본 장에서 필자는 다문화신앙공동체 형성에 관한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과 한국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사역현황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서울. 경기지역에서의 다문화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공동 목표와 가치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상호 이해와 존중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문화 간의 갈등이나 편견을 최소화하고 상호 배려와 협력을 촉진한다. 셋째, 리더십과 참여를 들 수 있다. 리더는 다양한 신앙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비전과 가치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은 첫째, 외부에서의 지원과 자원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적, 인적, 시설 등의 지원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교회와 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교회와의 협력은 신앙적인 지도와 리소스를 제공하며, 교회와의 연계를 통해 신앙적인 활동과 리더십 개발에 도움이 된다. 세째, 외부의 다문화 교육 및 훈련은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문화 교육과 훈련은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는 다양한 변인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변인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특징을 결정할 수도 있다. 첫째, 문화적 배경이다.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각 개인의 문화적 신념, 가치관, 언어, 음식 등을 포함한다. 문화적 배경은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종교적 신념과 관행이다.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관행을 가질 수 있다. 종교적 신념은 개인의 세계관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신념과 관행을 존중하고 허용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준다. 셋째.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이다. 언어는 문화와 분리할 수 없는 요소이며,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 언어의 다양성은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방식을 영향을 미치며,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노력과 의사소통 도구의 제공은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이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리더십과 조직이다.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리더십과 조직은 공동체의 방향성과 목표, 가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리더십과 조직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참여와 창의성을 장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인 요인들은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그 자체로도 동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므로, 개별적인 변인 요인보다는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복합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사역에서 중요한 과제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8.1 포용적 커뮤니티를 구축할 것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최초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였고, 어떠한 차별적 의미도 없는 긍정적인 용어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도 차별적, 비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여 쓰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실제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다문화지원본부를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아래 소속된 부서들인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는 각각 외국인주민행정과, 외국인주민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216]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게 되면 차별, 비하가 줄어들 수 있는가? 다문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신학적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언어적, 인종적 한계를 넘어 다양성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공동체'[217]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고립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고 민족적 우월주의를 배격하고 성경으로부터 제시된 인종적 다양성, 제도적 평등성을 수용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문화 가정을 포용(embrace)하고, 존중(respect)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218] 즉,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다문화인들이 함께하는 포용과 존중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교회공동체에 대해서 '교회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Christ existing as church-community)'라는 표현을 함으로 교회공동체가 보여줘야 할 삶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219] 본 회퍼는 교회공동체가 구조적 원칙으로 보여줘야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까지 내어 주시는

---

216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819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4 제4차 에큐포럼.

217 포용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음을 뜻하며, 포용적인 공동체란 인종, 성별, 계급,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존중과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218 계재광,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52권, (2016): 730.

219 Dietrich Bonhoeffer, *Santorum Communio: A Theological Study of the Sociology of the Church,* trans. Reinhard Krauss and Nancy Lukens (Minneapolis, MN: First Fortress, 1998), 190.

사랑의 모습이라고 주장한다.[220] 본회퍼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삶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삶이고,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삶(bearing each other’s burden, being Christ to oneanother)’으로 그와 같이 사는 것에 있어서 한계와 마침표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221] 즉, 다문화 신앙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모습도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공동체이다. 서로의 짐을 지는 타자를 포용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진리도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222]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반드시 포용과 존중의 공동체[223] 가 되어야 한다. 실천적 접근으로는 환영과 수용의 자세의 자세로 단순한 선교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문화 사역자를 세우고 위임의 리더십을 통해 다음 세대 공동체를 이끌어줄 지도자 양성이 중요하다. 교육적 접근으로는 전통과 변혁을 통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공동체성, 다양한 삶의 방식, 다양성 포용, 환대 등을 포함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 대한 원리들을 적용하고, 다양성 포용, 정체성 확립 등의 이슈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디아스포라 공동체, 현지 교회, NGO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다문화 사역이 가능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포용과 환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220 본회퍼는 이것을 *Stellvertretung* (vicarious representative action)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221 Dietrich Bonhoeffer, *Santorum Communio: A Theological Study of the Sociology of the Church,* 176-78.

222 Miroslav Volf, *배제와 포용,* 박세혁 역 (서울: IVP, 1996), 412.

223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지칭하는 ‘환대, 포용과 존중’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환대는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환대에 의존하신 모습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종교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로 파송하실 때에 70명에게 사마리아 마을 주민들의 환대에 의존할 것을 명하신다. 즉 환대의 주체가 역전된 것이다. 낯선 자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낯선 자의 환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환대에 철저하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포용과 존중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수자로서 교인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위의 자리에 위치함으로 다문화인의 가정을 참아주고 관용(tolerance)하는 모습보다는 그들을 포용(Embrace)하고 존중(respect)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계재광,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교회 리더십에 대한 연구 2 - 교회의 역할에 대한 교인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 (신학과 실천 제46권, 2015), 570-71.

8.1.1 환영하는 환경 조성할 것

본 논문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다문화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우리가 언어와 종교적인 문제, 소수자에 해당하는 다문화인들 간의 공동체성의 문제, 언어적 문제와 연결된 소수자 공동체를 이끌어줄 지도자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언어적, 인종적 한계를 넘어서 다름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신학적 비전(Theological Vision)을 올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224]

예를 들어, 다문화인들이 공동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언어 교육, 직업 훈련 등을 통해 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는 활동을 장려해야 하고, 다문화인과 지역 주민 간의 대화와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이나 포럼 등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

포스터(Foster)는 기존의 교회공동체와 이방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기존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새로 오는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른 이방인을 맞이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225] 첫 번째는 이방인을 이웃으로 인정하기(Seeing Strangers as Neighbors)이다.[226]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명과 책임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다. 다문화인들의 새로운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기 보다는 포용과 존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 안에 있는 매력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방인을 인정하기(Recognizing Strangers as God's Agents)이다.[227] 이방인에 대한 성경적 견해 속에 숨은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포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외국인 또는 이방인으로

---

[224] 계재광, "다문화 가정," 712.

[225] Charles R. Foster, *Embracing Diversity: Leadership in Multicultural Congregations* (Herndon, VA: The Alban Institute, 1997), 50.

[226]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혹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들을 두려움의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웃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 억압당하는 자, 아픈 자, 가난한자, 과부와 어린아이들과 같은 힘이 없는 자들을 이웃으로 삼고 계신다. Foster, *Embracing Diversity,* 50-51.

[227] Foster, *Embracing Diversity,* 51-52.

간주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하고 행동하신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난한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정의한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문화인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줄 뿐 아니라 진정한 신앙공동체를 경험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이방인을 인정한 후 이방인을 포용(Embracing Strangers)하는 단계이다. 포스터는 지역의 공동체와 회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방인들을 포용하라는 도전은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 다양한 상호작용속에 나타남을 이야기한다. [228]

정정미는 건강한 다문화적 신앙공동체를 위해서는 "민족적 우월주의를 배격해야 하며, 성경으로부터 제시된 인종적 다양성, 사회적 관용성, 제도적 평등성을 수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229]고 제시하였다.

즉, 다문화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 장애 등을 포괄하는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가 포용되며, 사랑과 정의, 화해, 희망, 평화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서로 묶여져 의미 있고 능력 있는 모든 사회적 계층과 존재 계층을 초월한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있어서 다수자나 소수자가 서로 함께 타자를 우리의 고유의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고유의 정체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230]

---

[228] Foster, *Embracing Diversity,* 54. 포스터(Foster)는 이방인을 포용하는 실천이 이방인 환대(welcoming strangers), 세례와 성찬을 통한 수용(acceptance)과 결속(solidarity)의 의례 순서로 나타남을 이야기한다. 즉, 포스터(Foster)는 신앙공동체에서 신앙의 문답식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가지 실천적 요소를 환대, 축하, 대화로 주장하고 있다. Charles R. Fost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Adaptive Challenge of Mainline Protestant Education in Forming Faith* (Eugene, OR: Cascade, 2012), 96-99.

[229] 정정미, "다문화적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회의 교육적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제24권 (2009), 285.

[230] 김옥순,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41호 (2014): 472.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서연숙은 전도, 교육, 돌봄의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교, 문화적 소수와 다수집단을 나눠서 하는 다원적인 교육, 그리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치유부분까지 목회적 돌봄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서연숙,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교회 대응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제39호 (2014): 500-505. 최신일과 황병준은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해서 선교와 교육적 역할과 더불어

따라서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교육과 인식 제고에 관한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둘째는 커뮤니티 활동이다.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 축제, 문화 공연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셋째는 언어 지원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나 다국어 안내서를 제공하여 소통의 장벽을 낮아지게 한다.

넷째는 정책적 지원이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공동체나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주거 지원, 취업 기회 제공 등이 있다.

다섯째는 포용적인 공간 만들기이다. 공공 장소나 커뮤니티 센터에 다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는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다문화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공유하여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게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다문화인들이 환영받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정부 및 NGO단체와의 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최신일, 황병준,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실태 및 선교 방향성 연구," *신학과 실천* 제43호 (2015): 612-18.

8.1.2 문화 교류 행사 개최할 것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231]은 종종 언어, 관습, 신념 등과 같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232] 문화적 경계를 넘어 다문화권의 사람들과 효율적(effective)이고 적절한(appropriate)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점에서 문화 교류 행사 개최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문화의 전통, 의식, 음식 등을 소개하는 부스를 마련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신앙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고 기념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인 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유대가 강화된다.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줄어들 수 있다. 이로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대화의 장이 되기도 한다.

문화에 대한 교육을 위한 워크숍이나 강연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각 문화의 배경과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도록 할 수 있다. 지역 사회의 통합을 위해 지역 주민, 이민자, 다문화 가정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여 행사를 조직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행사 후에도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인

---

[231]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나 그룹 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며 상호 작용하는 과정인데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와 교통,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국제적 인구 이동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직, 간접적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의 중요성이 인류학,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언어학, 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물론 사회학, 경영학, 정치학, 국제정치학 등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정현숙,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동향과 과제," *언론과 정보* 제8호 (2002): 65-6.

[232]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제스처는 한 문화에서는 친근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의사 소통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더 넓고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상호 문화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찾을 기회가 된다. 특히 글로벌화 시대에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행사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임이나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 교류 행사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 이해 증진, 지역 사회 통합, 편견 해소 등이 있다. 행사에 참여할 주요 대상(이민자, 지역 주민, 청소년 등)을 정하고 그들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행사의 형식을 결정해야 한다. 전통 음식 체험, 문화 공연, 워크숍, 패널 토론 등 다양한 형식 중에서 적절한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참석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야 한다. 프로그램 구성도 중요하다. 다양한 문화 요소 포함해야 한다. 각 문화의 전통 음악, 춤, 음식, 의상 등, 참가자들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숍이나 강연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는 각 문화의 역사, 신앙, 가치 등을 다룰 수 있다. 홍보 전략 수립도 하고 참여 독려도 해야 한다. 또한 행사 진행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 안내, 음식 제공,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행사 종료 후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여 향후 개선할 점을 파악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인 모임이나 후속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행사 기록을 남겨서 다음 행사 기획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행사 후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참여자 및 공동체나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다음 행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 문화 교류 행사를 효과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8.2 다문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가질 것

다문화 공동체에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서로 다른 문화와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목표 설정은 이해 증진과 기술 개발, 소속감 증진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와 신앙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고, 다문화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포스터(Foster)는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신앙공동체의 비전 교육작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육신(the Body of Christ)이 되고자 한다면, 교회 교육의 주요 목적은 그 육신을 형성(build up)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속박으로부터 모든 창조물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상의 변화작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임무는 매우 시급하게 느껴진다.[233]

그리고 포스터는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의 교육적인 목적을 제시한다. 첫째,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육의 목적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협력 관계(partnership)를 양육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이방인을 이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포스터는 특별히 우리는 결국 많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환대의 기준도 바뀌어야 하며, 우리 집과 교회로 이방인을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적대적인 환경에서 환대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숙제로 보며, 우리의 사명은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공표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234] 따라서 목회의 사역을 좀 더 확대하고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향에서 교회의 목회도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성범은 다문화교육 목회에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235]

> 첫째, 코이노니아(koinonia)와 관련하여 기독교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면에서 다문화 목회를 담아내야 한다. 둘째, 레이투르기아(leiturgia)와 관련하여 기도와 예배속에서 다문화 목회를 표현해 내야 한다. 셋째, 디다케(didache)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새로운 구성원인 이주민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삶에 있어서 변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케리그마(kerygma)와 관련하여 다문화적 상황에서

---

233 Charles R. Foster, *Educating congregations: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NY: Abingdon, 1994), 29.

234 Foster, *Educating congregations,* 32-35.

235 박성범, “다문화 가정의 신앙정착을 위한 교회교육의 접근방법 고찰,” *개혁논총* 제15권 (2010): 145-47.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에 대하여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디아코니아(diakonia)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성도들이 이주민 이웃에게 되새김질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문화 교육 내용 구성이 중요하다. 즉, 문화 이해 교육, 커뮤니케이션 훈련, 갈등 해결 기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유사성, 종교적 신념 등이 있을 수 있고, 의사소통, 적극적 경청, 그리고 효과적인 대화 기술을 연습하는 워크숍도 필요하다. 다문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법을 학습이 있어야 한다. 실제 사례를 통한 역할극도 효과적이다. 프로그램 형식은 워크숍, 세미나 및 강연, 토론 및 그룹 활동 등,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보내면서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화 다양성, 다문화 교육 및 종교 간 대화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혹은 참여형 학습도 필요로 한다.

8.2.1 다문화 교육 강화할 것

다문화인들에게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다문화인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인은 지역 사회에 더 잘 통합되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어,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언어 교육을 포함하여,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에 큰 도움이 된다. 다문화인이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인다.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적 및 직업적 기회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인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에 통합되며, 다양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정리하자면 다문화인들에게 다문화 교육은 적응과 통합, 정체성 강화, 편견과 차별 극복, 의사소통 능력 향상, 사회적 연대감 형성, 인권과 평등 이해 즉,

다양성 존중의 가치, 사회적 지지망 구축을 위해서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다문화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나 사회에서의 역할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포스터(Foster)는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관한 교육적 임무들을 제시한다.

> 공동체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미래가 후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유지, 관리되고 갱신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19세기 동안에 개신교와 천주교 교회 리더들은 회중교육을 위한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다. 즉 조직과 공동체들은 그들의 특이한 가치와 생활양식을 미래로 전달해 줄 수 있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 조직과 공동체의 추종자들이 살 수 있도록 갖추어 주는 능력이 있는 교육을 추구함을 제시한 것이다. 과거의 교육이론과는 달리 단 하나의 전략이 모든 회중들과 교파들과 종교들에게 알맞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각각의 회중들은 자신의 환경에 맞는 공동체를 만드는 책임이 있다.[236]

그러면서 포스터(Foster)는 다원적인 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임무 즉, 첫째, 기독교 신앙의 어휘 전달, 둘째, 신앙의 이야기 공유, 셋째, 상호의존관계 양성, 네째, 기독교 공동체의 생활양식 실천을 강조한다.[237]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과 공동체의 일치, 그리고 사랑과 나눔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세션을 마련해야 한다. 예배 후 또는 특별한 행사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거나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각 문화의 전통 음식을 나누거나, 전통 춤이나 노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 리더 양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리더십 역할을 이해하고, 그런 리더십을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리더십 훈련 과정에서 문화적 민감성을 키우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은 신앙과 문화가 결합되어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

236 Foster, *Educating congregations,* 36.
237 Foster, *Educating congregations,* 37-42.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기회로 삼고, 신앙의 연합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다.

8.2.2 갈등 해결 워크숍을 가질 것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다문화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차이는 언어, 종교, 관습, 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상호 불신, 인종차별 등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는 경제적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민자나 소수 민족 집단들은 종종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불평등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경제적인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불공평하게 분배될 경우,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사회에서는 종종 인종차별과 편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과거의 역사적인 민족 갈등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 인종차별과 편견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조화를 해칠 수 있다. 또한 이민정책, 국적 및 시민권 문제, 다양한 문화 집단의 정치적인 요구 등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치적인 의견의 충돌과 갈등은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에서는 언어와 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나 소수 민족 집단들은 언어적으로 소외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부족과 문화적인 이해 부족을 발생시킨다.[238]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이 결혼이주, 여성, 그리고 문화 다양성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239] 이 워크숍은 다문화 가정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문화적 차이로 가족관계를 둘러싼 제도와 문화 간 차이가 주요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가족 구조의 차이로 한국의

---

[238] 장지혜, "노자 사상으로 본 한국 다문화사회의 갈등 원인과 대안,"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14집 (2023): 64.

[239] https://www.yna.co.kr/view/AKR20110124124000069.

부계가족제와 동남아시아의 양변적 체계 간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할 기대의 차이: 한국 가족과 결혼이주 여성 간의 역할 기대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워크숍은 다문화 가정의 갈등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언어적 소통의 문제를 넘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다문화 신앙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 원활한 의사소통, 공감과 배려의 문화가 필요하며,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기도와 영적 연합을 통해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공동체에서는 다문화인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 문화적 차이,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참가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지를 설정해야 한다.[240] 이런 방법을 통해 다문화인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8.3 신앙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공동체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신앙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란 문화에서 형성된 신앙적

[240] 갈등의 정의, 종류,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을 하고 문화적 차이가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비폭력적 의사소통(NVC) 기술, 적극적 경청, 감정 표현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다양한 갈등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역할을 맡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실제 상황을 재현하여 갈등 해결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참가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하여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게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기술과 중재 방법을 설명하고 연습하게 한다. 이를 통해 실제 갈등 상황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공동체에서는 특정한 예배 형식이나 기도 방식이 더 익숙할 수 있고, 또 다른 공동체에서는 다른 방식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동체에서 대화와 이해는 신앙적인 차이를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신앙의 해석과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서로 배우는 것이 공동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신앙적 배경 속에서도 공통된 신앙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메시지가 핵심이다. 다양한 신앙적 해석과 표현이 있더라도, 이러한 공통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단순히 각기 다른 신앙적 관점을 공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공동체이다. 예배 형식이나 신앙적 표현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한 뒤, 그 차이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몸(고전 12:12-27)이라고 가르친다.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몸처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 신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공동체의 화합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신앙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공통된 신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배려와 포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어, 신앙의 진정성과 하나됨을 실천하는 신앙공동체가 될 수 있다.

8.3.1 다양한 신앙 표현을 허용할 것

다문화 공동체에서는 각 구성원들이 배려와 포용의 자세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신앙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신앙의 표현이나 실천 방법에 대해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려와 포용이 신앙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고 성숙하게 만든다. 다양한 신앙 표현을 허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성장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한 중요한 원칙에 해당한다.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신앙을 나누는 공간에서는 그들이 표현하는 신앙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다양한 신앙 표현을 허용하는 것은 단순히 차이를 허용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예배 형식과 신앙 표현의 허용은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간이므로, 각 문화마다 고유한 예배 형식이나 신앙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예배 중에 춤이나 음악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정적인 기도와 묵상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예배 방식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음악과 찬양, 기도와 예배 방식도 다양함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계 신자들은 리듬감이 강조된 찬양을 선호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문화권의 신자들은 조용하고 경건한 찬양을 선호할 수 있다. 공동체 내에서는 다양한 찬양과 음악을 허용하고, 각 문화의 음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 어떤 문화에서는 몸을 낮추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중시할 수 있고, 다른 문화에서는 서서 기도하거나 자유롭게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방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나 성경 공부, 기도 등에서 각자의 모국어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서, 신앙의 깊이를 전달하고 개인의 내면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다양한 언어권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거나 찬양하는 방식은 그들의 신앙이 보다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문화권마다 신앙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교리에 대한 강조점이나 성경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도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틀리거나 맞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속한 문화에서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241]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에서만 일치를 이루고, 교리의 부수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허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신앙 교육이 필수적인데, 단지 성경의 교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표현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에서 신앙 생활을 어떻게 이어왔는지, 그들 문화의 전통과 신앙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의 신앙 표현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기보다,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 다양한 신앙 표현을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각기 다른 신앙 표현을 허용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핵심적인 신앙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 있다.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각 문화의 신앙 표현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체 내에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 다양한 신앙 표현을 허용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

241 배타주의는 타자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비관용성의 한계를 보인다. 포괄주의는 자신의 종교를 우위에 두고, 다른 종교들의 가치를 일부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배타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포괄주의는 다른 종교들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종교가 지닌 절대적 가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나 단계 정도로만 인정하므로,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오만하다는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배타주의와 포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태도가 바로 다원주의이다. 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급진적인 태도이다. 안신, “21세기 종교에 대한 교양교육의 새로운 방향- 배재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2020): 224.

차이를 인정하고, 예배와 신앙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교리와 해석의 차이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다문화 공동체가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8.3.2 공동 기도시간 마련할 것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 공동 기도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치와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하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공동 기도시간은 그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서로 다른 신앙 표현이 하나로 모이는 경험을 제공한다. 다만, 기도시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신앙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참여자가 영적으로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다.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 기도시간을 마련할 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각 문화는 기도하는 방식과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기도시간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도 형식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는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어떤 문화는 길고 열정적인 기도를 선호하는 반면, 다른 문화는 간결하고 정숙한 기도를 선호할 수 있다. 기도시간을 마련할 때, 각 문화의 기도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다른 기도 스타일을 번갈아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 기도의 언어적인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다문화 공동체에서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기도시간을 준비할 때, 여러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기도하거나, 통역을 통해 다양한 언어권 신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언어 장벽을 넘어서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상징과 의식의 다양성도 생각하면 공동체의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갖는 데 좋다. 각 문화마다 기도에 사용하는 상징물이나 의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에서는 촛불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제스처나 몸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공동 기도시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다.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각 문화적 표현이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 기도시간에서 중요한 점은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이나 요청을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이다. 다문화 공동체에서는 기도시간을 통해 서로를 위한 기도,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 등 하나됨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서로의 기도와 필요를 마음으로 나누는 경험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된다. 이렇게 공동 기도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공동체의 영적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의 신앙 표현 방식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도시간을 통해 신앙적 일치를 이루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8.4 리더십 세우기 및 위임을 할 것

사역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다문화 전문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신앙공동체 사역은 문화적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타문화권 선교의 개념이 접목된 것이 다문화 사역이기 때문에 이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적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다문화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선교지에서 통역할 수 있는 통역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데 큰 발판이 되는 것처럼, 다문화 전문사역자가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는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한 나라마다 한 명의 다문화 전문사역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훈련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계획까지 구체화되어 있어야 환경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 전문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신학교육이 필요하다.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전문사역자 양성과정에서 한국인 사역자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부흥하면서 보여주었던 긍정적인 사역 요소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다문화 상황 속에 적용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문화 전문사역자를 선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사역의 소명 여부, 국내에서 전문적인 신학훈련 수용 여부, 향후 역파송 수용 여부 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적합한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출생한 1.5세나 2세 이주민 자녀를 다문화 전문사역자로 양성하는 방법이 있다. 사역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선포가 아니라 상호 교감 속에서 영적 소통이 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국과 이주민 문화를 모두 겪어본 대상자를 먼저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역자를 양성해 나가는 것과 함께 단기적 관점에 서는 바로 다문화 사역에 투입할 수 있는 대상도 있다. 해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역을 중단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선교 금지 국가에서 종교적, 외교적 문제로 추방을 받는 등의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현지 사역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 국내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들어온 선교사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타문화권 선교 경험이 있어서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 구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국내 이주민과의 만남에서 마음 문을 여는 데 유리하다.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재교육해서 다문화 사역에 투입한다면 시간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신앙공동체에서 리더십 세우기와 위임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는 리더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리더십을 세우고 위임하는 과정은 공동체의 일치, 신뢰, 그리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필수적이다. 리더십의 핵심이 되는

변화는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 진정한 변화는 삶의 관점을 중심 중의 중심에서 주변 중의 주변으로 전환함으로 새로운 주변부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갈 때 가능할 것이다. 주변성이 제자도는 아니지만, 주변성과 제자도는 나눌 수 없고 주변성은 제자도의 조건이다.[242]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조직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신앙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각기 다른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단지 관리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다. 리더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데 필요한 영적, 문화적 민감성을 갖추어야 한다.

각 문화마다 신앙의 표현 방식, 의사소통 스타일, 예배의 방식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리더는 공동체의 신앙적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지도력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은 단지 한 명의 리더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리더십을 세울 때, 한 사람에게만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문화나 언어 그룹에서 리더를 양성하고, 다양한 사역의 영역에서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임은 리더가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다문화 공동체에서 위임은 단지 업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신뢰와 자기 주도성을 통해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위임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각 구성원이 맡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각자의 강점과 관심사를 반영하여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이

---

[242] 이정용, *마지널리티: 다문화 시대의 신학*, 신재식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4), 187.

자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 공동체에서는 각 문화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의사소통 스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8.4.1 유연한 리더십 스타일을 가질 것

다문화 공동체에서는 유연한 리더십 스타일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효과적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신앙 생활을 독려하며, 상호 존중과 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일한 리더십 스타일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 리더십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각 문화는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이해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에서는 권위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선호할 수 있으며, 다른 문화에서는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리더십을 선호할 수 있다. 서구 문화에서는 종종 참여적 리더십이나 민주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반면, 일부 아시아나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권위적인 리더십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유연한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 스타일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 일부 문화에서는 집단 중심적 리더십을 중시하며, 팀워크와 협력을 강조한다.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개인 중심적 리더십을 강조할 수 있다. 유연한 리더십은 각 문화에서 선호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존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 계제광은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다문화 리더가 준비해야 할 리더십은 교인들 내면의 차원(intra-individual level), 대인관계의 차원(dyadic level), 그리고 공동체 차원(group level)에서 준비해야 한다.[243] 특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교인들과 교회가 준비해야 할 리더십의 모습은 내면의 차원의 셀프 리더십(self-leadership)은 주변부 백성되는 리더십, 대인관계 차원의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끌어안음의 섬김의 리더십, 공동체 차원의 팀 리더십(team leadership)은 환대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리더십이다.[244]

243 계재광, "다문화사회," 555.
244 계재광, "다문화사회," 572.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그들의 신앙 표현이나 예배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리더가 유연하게 각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 갈등의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유연한 리더는 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중재할 수 있다.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과 타협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유연한 리더십 스타일은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다. 유연한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변화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격려와 도전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다. 즉 문화적, 언어적, 신앙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공동체를 일치시키고, 각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유연한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다문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다.

8.4.2 리더십을 위임할 것

위임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리더는 공동체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비전 아래에서 각 리더가 자기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문화권에서 온 리더들이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역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임은 단발적인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진다. 리더는 위임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야 한다. 특히 다문화 공동체에서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해의 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드백 과정에서 민감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임의 핵심은 신뢰이다. 다문화 공동체에서 각 문화의 배경과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위임된

사람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며, 그들이 맡은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245]

공동체에서는 리더십을 세우고 위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문화적 충돌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 리더십 스타일이나 의사소통 방식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리더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민감성을 갖추어야 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훈련되어야 한다. 둘째는 언어적 장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통역이나 번역 등의 방법을 통해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또한, 언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명확하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공동체의 일치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공통된 신앙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구축하고, 공동체 내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8.5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구축할 것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을 수행하는 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연대와 협력은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 사회적 책임,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한다.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 사회적 연대는 단순히 서로를 돕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한다. 이때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은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각 문화의 가치와 관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회적 연대의 기초가 된다. 단순히

245 다문화인 개개인들과 다문화의 가정들을 환영(welcoming)하고, 수용(acceptance)하고, 결속함(solidarity)으로 위임의 리더십을 통한 다문화 사역자를 세움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준비해 주어야 한다. 계재광, “다문화사회,” 712.

내부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민자, 난민, 마이너리티 등을 도와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다문화 공동체는 단순히 교회 내부의 연대뿐만 아니라, 정부 및 외부 사회와도 연대해야 한다.[246]

협력은 다문화 공동체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다문화 공동체에서 협력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이루어져야 한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의사소통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공동체에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데에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이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스타일, 가치관, 예배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언어 장벽이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는 역할의 차이이다. 각 문화가 갖는 사회적 위치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특정 연령대나 성별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연대와 협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동체 내외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246]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따라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문화 지원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문화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공모를 통한 다문화 기관의 위탁운영은 적은 예산을 들여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한 교회의 이미지에는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사회의 공조를 통한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조귀삼, “다문화 에큐메니즘 현상에 따른 문화충돌과 사회통합 도구로서 한국교회의 역할,” *복음과 선교* 제13호 (2010): 77-104.

8.5.1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모인 공동체로, 이러한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연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보다 확장하여,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맡기신 사회적 사명을 실현하는 길이 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종종 소외된 이웃들, 이민자, 난민, 취약 계층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들 역시 다문화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으며, 교회가 이들과 연대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회는 이들 이웃에게 영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247]

지역사회와 성공적으로 연계하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봉사 활동, 사회적 프로그램, 의료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다. 또 이민자나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직업 훈련, 언어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 공동체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거나, 환경 보호 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문화 교류와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문화 축제, 음악회, 음식 나누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

[247] 일회성 지원사업의 활성화는 이주민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이를 테면, 기업 혹은 복지재단에서 일정 금액, 물품, 음식, 컴퓨터, 리모델 사업 등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도와주고 있다. 교회가 NGO단체를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교회가 새터민, 결혼 이주여성 등을 위해서 선교적 차원에서 NGO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한다.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구비한 교회들은 전문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재능기부 혹은 이주민 선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성도의 전문자원봉사는 이주민 선교에 후원자, 동역자 및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실시된 이후에 전국 각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이주민 선교단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시설, 재정 및 인력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이제 교회들은 대형교회와 교단들이 적극 동역하여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고 이주민 선교를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제 교회가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교단차원에서 체계적 전문적인 준비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많으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교사역을 확대한다면, 기독 이주민의 양육과 역파송을 통한 세계선교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정봉현, "다문화사회 진입," 18.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대화의 장을 열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와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교회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제공하거나, 지역 행사에 협력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교회와 지역사회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잘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는 교회가 제시하는 사회적 사명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공동체와 지역사회 모두 성장할 수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도전이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려 할 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문화적 장벽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공동체의 특성상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민자나 외국인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해 증진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종종 자원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교회 내에서 그만큼의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효과적이려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지역 주민들이 교회와의 연계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동체 활동을 기획하거나,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고, 함께하는 경험을 제공하면, 교회와 지역사회 간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

8.5.2 지역 봉사 및 나눔 활동을 할 것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의 지역 봉사 및 나눔 활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봉사 및 나눔 활동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실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해 갈 수 있다.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영적, 사회적 치유와 하나됨을 위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물질적, 정서적, 영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 자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교회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원의 나눔과 봉사 활동이 필수적이다.[248]

지역 봉사 및 나눔 활동의 구체적인 예로, 음식 나누기는 다문화 공동체의 대표적인 봉사 활동 중 하나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서로 다른 음식을 나누는 것을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소외된 사람들, 이민자, 노숙자, 저소득층 가정 등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은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역 노숙자 쉼터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최하는 음식 나눔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회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식사 제공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와 나누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의류 기부 및 지원도 지역 봉사 및 나눔 활동의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의류나 기타 생필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부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민자나 난민과 같은 소외된 계층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교회가 의류나 이불, 학교

---

[248]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이주민과 이주민 선교기관에 대한 상세한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교회 주변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이주민 지원과 협력은 물론 바람직한 이주민 선교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이를 지원 및 협력하는 교회와 기독인의 역할도 다양하다. 이주민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분석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선교를 위해서 요구된다. 정봉현, "다문화사회," 19.

용품 등을 기부하는 활동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교회에서 의류 나눔 행사를 주최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의류를 정리하고 배분하는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다.[249]

그리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정이나 독거 노인, 이민자 가정 등을 위한 주택 개선 프로젝트도 중요한 봉사 활동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주택 수리나 청소, 정리 등의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 가정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수리 봉사를 조직하여, 교인들이 직접 참여해 필요한 수리나 청소를 돕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회 내에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지역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환경 보호와 공공장소 정리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공원 청소나 거리 미화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꾸준한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교회 간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상호 존중과 사랑을 나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더불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

---

249 복음으로 인도적 복지개념을 지역사회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주민은 경제적인 이유와 고용불안으로 의료혜택이 부족하며 주거 여건도 열악하다. 교회 및 선교단체는 이주민을 위한 잠자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무료급식을 통하여 선교할 수 있다. 이주민은 조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며 좌절을 경험한다. 지역교회는 이주민을 위한 문화활동이나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여 선교의 기회로 활용하고 이주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신앙공동체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봉현, "다문화사회," 15.

8.6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할 것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다.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예배 드린다. 각 문화는 고유의 언어, 행동 양식,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신앙공동체 내에서 소통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직설적이고 명확한 언어적 소통을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의사소통에서의 중요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로 모일 수 있다. 의사소통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일체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다양한 사역과 공동체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더 넓은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교회 내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사역 팀이나 봉사 그룹, 기도 모임 등을 조직하여, 공동체 내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며 서로를 돕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 신앙공동체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교회가 지역 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비영리 단체,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교회와 다른 교회 간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다문화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와 협력하는 것은 공동체의 사역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 더 넓은 범위의 사역이 가능하다. 다양한 교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사역의 방향성과 실천 방법을 상호 배울 수 있다.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구성원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문화마다 선호하는 소통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문화가 선호하는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교회 내에서 통합적인 소통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또 정기적인 모임이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간 모임, 소그룹 모임, 연합 기도회 등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 비디오 회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 교회 활동이나 회의에서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다.

8.6.1 의견 및 소통 채널을 가질 것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사역하는 다문화 공동체에서는 의견 교환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언어, 문화,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방식은 공동체 내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증진시킨다.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면, 공동체 내에서 신뢰와 투명성이 구축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갈등이나 불만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공동체 내에서의 의사결정은 다각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만큼,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에서 의견 및 소통 채널의 형태는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공동체 내에서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소통 채널은 소그룹 모임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 소그룹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대화와 교제를 통해 개별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신뢰를 쌓는 데 효과적이다. 또는 주일 예배나 특별

기도회, 세미나와 같은 교회 모임으로 전체 공동체가 모여 소통하는 중요한 채널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각자의 신앙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 예배나 기도회에서는 공동체의 공통된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된다. 정기적으로 교회의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하는 회의나 비전 모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상호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자리로 활용하면, 공동체가 보다 강력하게 하나로 뭉칠 수 있다.

온라인 소통 채널은 교회 웹사이트 및 이메일, 소셜 미디어 및 모바일 앱,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교회 웹사이트는 공동체의 중요한 정보와 소식을 교환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 예배 일정, 교회 활동, 봉사 기회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 소셜 미디어(Facebook, Instagram, WhatsApp 등)나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교회 구성원들이 더 쉽게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250]

8.6.2 피드백 시스템 구축할 것

다문화 공동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효과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드백 시스템 구축은 공동체 내에서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고, 교회의 사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 피드백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

[250] 특히, WhatsApp 그룹이나 Facebook 그룹은 공동체 내에서 빠르게 소식을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Zoom, Google Meet, Microsoft Teams 등과 같은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회 사역에 대한 논의나 교육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물리적 거리가 먼 사람들끼리도 쉽게 의견을 나누고 사역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불만을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들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오해, 문화적 오해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종적 한계를 넘어 진정한 결속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포스터(Charles R. Foster)는 4가지 순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회중 안에서의 각 인종적 문화적 집단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둘째는 개개인이 특정한 인종적 문화적 집단의 일원으로서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헌신적인 노력을 포함하며, 셋째는 자신의 개인적, 문화적, 종교적 생각과 관행을 보류하고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경청해야하고, 넷째는 상호비평을 받아들여야 한다.[251]

교회가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면,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피드백을 통해 사역의 효율성과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회가 변화하는 필요에 맞춰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다. 피드백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면, 안전한 피드백 환경, 다양한 피드백 경로, 다양한 언어로 피드백, 정기적인 피드백 수집, 피드백에 대한 반응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비판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피드백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문화에서 비판이나 피드백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피드백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문화에서 선호하는 피드백 방식을 반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252] 교회가 받은 피드백에

---

[251] Foster, *Embracing Diversity*, 68-69.

[252] 피드백 시스템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각 언어권에 맞춘 통역 서비스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피드백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수집이 필요하다. 교회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일상적인 문제나 불만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피드백에 대한 반응과 조치이다.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실제로 그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피드백을 통해 발견된 문제나 개선점을 교회 내에서 구체적인 개선 계획으로 전환하고, 이를 공동체와 공유하여 모두가 변화의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 효과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하고, 교회의 사역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피드백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서, 공동체 내의 참여와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구성원들이 교회와 사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체는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도표 8-1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 전략

영 역	세부적 형성 전략
포용적 커뮤니티 구축	환영하는 환경조성, 문화 교류행사 개최
다문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갈등 해결 워크숍
신앙의 다양성 존중	다양한 신앙표현 허용, 공공 기도시간 마련
리더십 세우기 및 위임	유연한 리더십 스타일, 리더십 위임하기
사회적 연대와 협력	지역 사회와의 연계, 지역 봉사와 나눔 활동
의사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	의견 및 소통 채널, 피드백 시스템 구축

제9장

결론

지금까지 선교적 대상으로만 접근했던 이주민들이 한국교회가 뿌린 복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대거 유입이 되며,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언어, 인종, 민족이 어우러진 공존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다문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신앙공동체(다문화교회)를 어떻게 형성해나가야 할 것인지 대해 분석하여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성경적인 관점, 선교학적 관점, 상황적인 관점으로 고찰하고,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사역의 필요성과 현황, 그리고 선교 신학적, 교육적, 목회적 차원에서의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형성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9.1 요약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표, 연구의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 연구 질문들, 용어와 정의, 연구범위, 연구방법 등에 대해 제시함으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의 방안에 대해 방향을 잡았다.

제1부는 문헌연구로서, 제2장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이해와 현황들을 신, 구약을 관통해서 기술해 보았다. 다문화인에 대한 대안적인 용어들을 통해 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문화인에 대한 관점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인종적 사회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방의 빛으로서 이스라엘의 역할, 신약에서의

다문화적인 환경의 초대교회와 이방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와 앞으로의 교회의 존재와 역활을 고찰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선교학적인 면을 선교 신학적인 측면에서 복음과 문화, 선교와 문화의 이해와 다문화에 대한 정책유형들을 살펴보고, 다문화에 대한 선교의 근거들과 선교신학자의 견해들을 살펴봄으로 신앙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기술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신앙공동체에 대한 상황적인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주민의 증가 주세와 이주민 선교에 대한 실태와 이해를 고찰하였다.

제2부는 현장조사로서, 제5장에서 필자가 본 논문은 질적연구의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하겠다는 연구방법론과 절차에 대한 이론을 다루었고, 제6장에서는 연구 분석과 결과를 도출하기 앞서 한국 내에서 진행되어 온 다문화 신앙공동체들의 현황과 사역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개척 유형으로 순복음CIS선교교회와 넘치는교회를 소개하였다. 병행유형으로는 온누리교회의 온누리M센터와 승리교회의 승리다문화교회, 나섬교회의 나섬공동체(재한몽골학교) 등을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다문화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를 찾아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만나 질적 연구의 주류방법인 인터뷰와 메모 및 자료수집을 통해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거쳐 과정분석과 유형분석으로 진행하여 이론생성까지 다문화 신앙공동체(다문화교회) 형성요인과 과정단계 및 과정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부는 변화를 위한 제언으로, 제8장에서는 위의 모든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진 연구분석과 결과를 토대로, 총괄하는 보편적인 개념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포용적인 커뮤니티 구축, 다문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필요, 신앙의 다양성 존중, 다문화 리더십 세우기 및 위임, 사회적 연대와 협력 부분, 의사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제9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연구를 요약하고 다음 연구를 위한 제언하였다.

9.2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 신앙공동체 형성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확장을 위한 후속연구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소수 인터뷰에 의한 국한된 연구로서 보다 많은 전문적인 다문화 사역자나 실질적인 다문화센터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다문화 사역에 대한 노하우들을 공유한다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 사역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수집된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에 국한되었지만, 다양한 다문화 사역에 종사하는 지도자와 현지 다문화인들로 확장된다면 다양한 신앙공동체 형성에 대한 준비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하나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인들을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형제라는 포용적인 공동체로 인식하여 준비하고, 맞이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다문화교육과정을 체계화하여 지원한다면 다문화로 인한 불안, 위기,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들이 후속연구로 이어진다면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9.3 결론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에 있어서 먼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각기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발굴하여 신앙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각자의 전통과 신앙적 관습을 존중받고, 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국어 예배, 통역 서비스, 언어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다문화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예배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설교와 교육 내용은 통역 서비스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반드시 공동체 내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 문화 간 교육이 중요하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신앙 교육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활동과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소그룹 활동을 장려하고 소그룹 예배, 교제 모임, 문화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각국의 전통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나, 서로의 전통적 의식을 소개하는 모임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내의 리더십도 다문화적인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동체 내에서 다문화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공동체는 단순히 다양한 민족이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예배 형식이나 교회의 행사 등이 다양한 문화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예배 시간이나 형식, 음악 스타일 등에서 다양한 문화적 선호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앙공동체는 사회적 연대와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자원 봉사 활동을 운영하여, 다문화 공동체가 지역 사회와도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앙공동체의 형성은 단순히 내부적인 문화적 교류를 넘어서,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문화 선교 전략을 세우고, 지역 사회 내에서 다문화적 환경을 활용하여 선교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신앙공동체의 형성은 단순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지속적인 교육, 훈련,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다문화 신앙공동체가 건강하고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부록(A)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제목: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연구자: 강종복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ITS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국제신학대학원)에서 교차문화학 박사과정 DICS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 연구에 대한 건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공동체 설립과 사역,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녹음된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귀하께서 인터뷰하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인터뷰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고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고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구 참여자 서명

부록(B)

연구질문 및 인터뷰 가이드

연구문제	질 문 예 시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 방안에 대하여	1.공동체 사역을 하게 된 동기나 요인, 비전이 있었다면?
	2.공동체를 형성할 때의 필요한 조건이나 요인, 혹은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3.공동체 내 다양한 문화적, 신앙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어떻게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4.지역 사회가 공동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5.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이나 네트워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6.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7.공동체 내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8.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이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9.구성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10.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11.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성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12.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13.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호작용 행사나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4.구성원들을 포용하는 리더십 스타일, 핵심 역량이나 자질은 무엇일까요?
	15.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어떤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할까요?
	16.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포용하기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할까요?

부록(C)

인터뷰의 사례

.

■ 인터뷰 대상자: E 목회자(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익명으로 기재함)

■ 인터뷰 날짜: 2024년 11월 7일

■ 인터뷰 장소: 경기도 안산시 000 0센타 회의실

■ 인터뷰 시간 소요: 1시간 30분

문: 사역을 하신 지가 어떻게 되세요?

“부교역자와 선교사, 다시 귀임해서 25년째고요.”

문: 그러면 000 0 센타 사역은 언제부터?

“000 0센타는 2014년부터 시작이니까 다문화 사역한지는 10년째 되었습니다.”

(-중략-)

문: 000 0 센타에서 시작된 사역이 광범위하잖아요? 지역도 그렇고~

“예, 예~ 지금 다양해지고 있지요. 신학교도 다양해지고~ 사역도 다양해지고~~”

문: 그럼 목사님은 000 교회에 계속 있었던 건가요?

“예~, 2000년부터는 청년부 사역을 했고요, 2003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이라크로 갔었습니다.”

문: 아~ 어려운데 가셨네요?

“그때 김00 사건에 연루되어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김00 씨 죽고나서 요르단으로 옮겨서 요르단에서 이라크 난민들, 난민교회 사역을 하고, 그렇게 5년을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잠시 나왔다가 2008년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2009~10년에 00 신학교에서 이슬람선교 공부하면서 LA 000 교회를 섬겼고요. 이제 2010년 말에 아부다비로 와서 2014년까지 아부다비 000 교회를 사역했고, 2014년 여름에 교회에서 돌아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다문화 사역을~~” (- 이후 인터뷰 내용 중략-).

문: 목사님은 중동이나 미국도 갔다 오시고, 두루두루 다 섭렵하셨네요?

“섭렵은 아니고요. 해외선교를 한 10년 봤고요. 2014년 들어와서 그 때부터 이 사역을 맡으라고 해서~ 지금은 여기에 있지 않고~ 00역 근처에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2014년 말에 교회에서 땅을 사서 건축하라고 해서 2015년, 16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0센터 사역으로 맡겨주셔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문: 0 센타에 보면 예배공동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저희는 15개의 언어공동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000 교회 특성이 있는데요. 영어, 중국어어, 일본어, 프랑스, 스페인어 5개 언어가 국제부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스페인어는 우리가 개척했는데, 위임목사님이 국제부로 넘겨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제부로 넘겼어요. 러시아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베트남, 캄보디아, 미안바 흔히 저개발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 아랍어 예배, 또 이란어로 해서 15개 언어까지는 제가 본부장로 맡고 있고요. 교회 안도 예배가 있어요. 000 에는 러시아, 몽골, 네팔, 아랍어 예배, 페르키아 예배, 이란어 사람들 모임, 5개 예배는 제가 관장하고요. 00에는 모장예배, 러시아 예배가 저희에게 속해 있고요. 원래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교회안에 있었어요. 외국인들을 데려오는 사역이었어요(중략). 이 지역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서울까지 오가는 시간이 왕복 4시간이니까 안되겠다 싶어~ 요 옆에 있는 00교회 공간을 빌려쓰게 되었지요. (-중략-) 올해 러시아 예배가 20주년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00교회에서 불편해하셔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웃지를 않아요.

사회주의 사람들의 특징이~ 웃으면 나를 가볍게 본다고~ 그래서 일부로 인상쓰고 다녀요. 그 당시에는 마피아 출신들, KGB 출신 이런 친구들도 한국에 와서 일하고~~ 그리고 예배끝나면 나와서 담배피고,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이 불편한 거지요. 가뜩이나 인상도 험악한데(웃음).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다른데 알아보라고~ 좇겨 나가지고 역 근처에다 쉼터를 하나 만들었요. 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지요. 그런데 그 지역의 대형 00교회 000 목사님께서 소식을 듣고는, 왜냐하면 본 교회에서 부천 000 교회, 수원 000 교회, 이렇게 지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 이후 인터뷰 내용 중략-).

(-중략-)

문: 센타를 운영하면서 공동체의 결속감이랄까? 의식은 강할까요? 예배공동체로 엮여 있느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 형성 뭐~ 그런 것은 없는 같고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들만의 결속력은 대단해요. 정보나 지식도 없고~ 초기에는 생존과 적응하기에 바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 교육, 취업 등을 필요로 해서, 유사한 경험과 필요를 가진 다문화인들이 모여 있는 저희 공동체에 소문 소문 듣고 들어오는~ 그렇게 그들만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의식도 생기고~, 이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언어잖아요. 공동체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동기부여를 하면 자기 동족들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2-3명이었던 사람들이 20--3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같은 언어, 문화,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소문에 소문을 물고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희는 그들에게 먼저 언어 수준을 보고 그룹으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단계별로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요. 그들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하고 공동체의 결속감이라고 할까, 공동체 의식들이 형성이 되어 단결이 잘 되요. 문화행사 할 때 보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협조가 잘 되고 그래요"

(-중략-)

문: 0 센타는 예배공동체 중심이니까, 같은 언어, 같은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뭐 특별한 갈등은 없겠어요?

“있지요.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같은 동족이니까~ 미국의 한국 교민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 한인교회 평안치 않잖아요? 본인들끼리 서로 경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비자에 따라서 어떤 이는 비자를 취득하고, 어떤 이는 불법체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간에도 긴장감이 있어요. 국제 결혼한 자매들은 비자를 획득하고~ (-이후 인터뷰 내용 중략-)

(-중략-)

문: 농어촌에도 다문화인들, 근로자나 결혼이민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문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다 어르신들만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충청도 충주호 근처 지역의 00교회에서는 이주민 자녀들을 2-3명 모아 사모님이 한글교육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베트남 자매 가정이 20가구가 있는데 그 농촌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0 센터에 연락이 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논의 끝에 사전 탐방하고 난 후, 매주 목요일 한글학교를 하기로 하고 저희 센타에서 베트남 사역자와 교사들을 보내서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동족인 베트남 사역자가 와서 한글교육을 하니까 베트남 엄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엄마들이 나오니까 한국인 남편들이 나오고, 베트남 가족들이 다 나오게 된 것지요. 갑자기 그 농촌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노인분들만 있었던 교회였는데 말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지 몰라요. 저희 센터에서 여름성경학교도 열어주고, 그 지역의 연합 사역도 하고 하니 그곳에 다문화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후 인터뷰 내용 중략-)

Cf; 본 논문의 필자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다문화인 사역자(5명)와 평신도 리더(1명)의 인터뷰에 동의한 서명된 연구 참여 동의서와 인터뷰 내용을 mp3 파일로 소유하고 있음.

참고문헌(BIBLIOGRAPHY)

강성열 외 3명.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와 한국교회, 21-2. 60.* 서울: 한들 출판사, 2010.

김명현. "성경속의 이주와 다문화." *문화와 인간* 제1권 (2012): 63-103.

김선녀. "한국 이주 몽골인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13.

김승일. "교회교육 파노라마: 승리다문화비전센터." *교회교육* 421권 (2013): 9-12.

김영동. "복음과 문화."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 275-77.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김영애. "이주민선교전략 1 왜 다문화선교인가?" *말은 안 통해도 선교는 통한다*, 52. 서울: 샘솟는 기쁨, 2018.

김옥순. "디아코니아신학의 실천신학적 위상과 그 과제들."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세미나* 제47회 (2013): 87-113.

--------.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41호 (2014): 447-85.

김점옥. "이주민선교에 대한 성경 신학적 이해-하나님의 언약관점에서." *한국선교KMQ* 통권60호 (2016): 8-17.

--------.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52권 (2016): 711-45.

김진봉 외 40인. "대형교회의 선교 책무: 온누리교회." *대형교회의 선교책무*, 70. 서울: 두란노, 2016.

김재성. "예루살렘 회의." *바울신학*, 156.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4.

______. "안디옥 사건." *바울신학*, 157.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4.

______. "민중의 사건 속에 바울." *바울신학*, 94.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4.

______. "성숙한 칭의 공동체." *바울신학*, 235.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4.

김창락. "하나님 나라: 그 기원과 해석의 역사." *하나님 나라, 그 해석과 실천: 황성규 박사 정년은퇴 기념논문집*, 12.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김현진. "공동체 교회론." *공동체 신학*, 56.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9.

______. "코이노니아 신학." *공동체 신학*, 518.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9.

구성모 외 6인. "이주민 집중지역의 이주민센터를 통한 목회 전략." *다문화 선교*, 125. 서울: CLC, 2015.

계재광.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교회 리더십에 대한 연구 2 - 교회의 역할에 대한 교인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 *신학과 실천* 제46권 (2015): 539-77.

노규석. "온누리M센터를 통해서 본 모자이크 선교 공동체의 가능성- 다문화와 한국교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71차 정기논문 발표회* (2018): 36-48.

노윤식 외 6명. "구약에 나타난 다문화 이주민 선교신학." *다문화 선교,* 53-5. 70-2.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류장현. "다문화사회의 떠돌이 민중에 대한 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제148집 (2010): 41-66.

박경미.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외국인 개념과 초대 기독교인의 자기의식의 표지로서의 외국인." *신학사상* 113권 (2001): 122-148.

박성범. "다문화 가정의 신앙정착을 위한 교회교육의 접근방법 고찰." *개혁논총* 제15권 (2010): 129-61.

박세훈 외 3명. "외국인의 공간분포와 밀집지역의 형성."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1*, 113-14. 서울: 국토연구원, 2009.

박태식. "권위있는 가르침, 하느님 나라."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154-155. 서울: 생활성서사, 2001.

박천응. "다문화이주민을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April 31, 2023. https://m.blog.naver.com/c_expo/20110615554.

______.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선교와 신학* 제29집 (2012): 13-56.

류장현.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선포." *종말론적 신학과 교회*, 189-192. 경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9.

______. "교회의 본질과 사명." *포스트 모던 사회와 교회*, 7-12.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6.

서연숙.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교회 대응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제39호 (2014): 481-10.

서윤호.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다문화법제의 기본개념 분석.” *일감법학* 제23호 (2010): 283-321.

서희연. “이주자들을 영적 정예 부대로 길러내는 안산 넘치는교회,” *목회와 신학* (2013): 79-85.

신성익. “사마리안(인)의 역사와 신약에서의 의의.” 신학석사학위논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11.

석창원. “교회(목회)로서의 이주민 사역.” *한국선교KMQ* 통권60호 (2016): 29-41.

심상길. “사도행전에 나타난 다문화 선교.” *다문화신학과 목회*, 124. 서울: 도서출판 더북, 2014.

심상법. “고린도를 넘어선 바울의 관심.” *바울의 영성*, 309.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안신. “21세기 종교에 대한 교양교육의 새로운 방향- 배재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2020): 219-37.

이성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선교.” 박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8.

이은성. “공생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독교 다문화교육의 과제.” *다문화와 평화* 제6권 제2호 (2012): 5-36.

안진숙 외 1명. “문화와 다문화의 이해.”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13-20. 서울: 동문사, 2022.

이병학. “새 예루살렘의 환상.” *약자를 위한 예배와 저항의 책 요한계시록*, 474.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6.

이수환. “다문화 사회의 성경적 이해.” *한국교회와 선교신학*, 225. 용인: 도서출판 목양, 2013.

--------. 외 6명. “신약에 나타난 다문화 이주민 선교신학.” *다문화 선교*, 84-7.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이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 -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구약성서적 이해.”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133-43. 서울: 한들출판사, 2000.

이정환. “다문화 및 이주민 관련 주요 개념.”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교육: Volume IV, 다문화 사회의 시민 교육*, 4-9.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0.

--------. “다문화에 대한 관점.”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교육: Volume IV, 다문화 사회의 시민 교육*, 6.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0.

--------.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교육: Volume IV, 다문화 사회의 시민 교육*, 7.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0.

이정용. *마지널리티: 다문화 시대의 신학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신재식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4.

이종복 외 1명.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18. 파주: 양서원, 2013.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제14권 1호 (2008): 70-88.

이환희.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독교 선교방향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2009.

임태수. “행함 있는 믿음(fide cum opere)으로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 로마서 1:17; 고전 6:8-10.” *기독교학술원* 월례포럼 제55회 (2016): 4-7.

임윤택.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선교 신학적 Legacy.” *설악포럼* 16회 (2005) https://missionpartners.kr/

유기웅 외 3명. “근거이론 방법.”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75. 서울: 박영사, 2022.

--------. “질적 연구의 성격.”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8-29. 서울: 박영사, 2022.

--------. “근거이론 방법이란.”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76-77. 서울: 박영사, 2022.

--------. “이론적 표집과 이론적 포화.”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3-84. 서울: 박영사, 2022.

--------. “인터뷰의 특징.”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58. 서울: 박영사, 2022.

--------. “인터뷰의 유형.”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62-64. 서울: 박영사, 2022.

--------. “질적 연구 자료분석법.”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23-24. 서울: 박영사, 2022.

--------. “반복적 비교를 통한 분석.”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5-86. 서울: 박영사, 2022.

--------. “개방 코딩.”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6-87. 서울: 박영사, 2022.

--------. “메모.”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9. 서울: 박영사, 2022.

--------. “범주화 작업.” *질적 연구방법의222 이해*, 90-93. 서울: 박영사, 2022.

--------. “축 코딩.”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3-97. 서울: 박영사, 2022.

--------. “선택 코딩.” “핵심범주 선정.”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7. 서울: 박영사, 2022.

--------. "이야기 윤곽 제시." "시각적 모형 제시."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8-100. 서울: 박영사, 2022.

--------. "과정분석"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101. 서울: 박영사, 2022.

--------.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2. 서울: 박영사, 2022.

--------. "연구 참여자에 관한 윤리적 문제."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411-18. 서울: 박영사, 2022.

--------. "자료수집과 윤리적 문제."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418-20. 서울: 박영사, 2022.

--------. "자료분석과 윤리적 문제."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421-22. 서울: 박영사, 2022.

--------. "연구자의 역활."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42. 서울: 박영사, 2022.

--------.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89-03. 서울: 박영사, 2022.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비판적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을 위한 인류학적 성찰." *다문화사회의 이해,* 89. 서울: 동녘, 2008.

유해근. "은퇴는 없다, 동대문이 땅 끝이다." *위대함을 원하면 홍해를 건너라*, 211-14. 서울: 나그네. 2015.

---------. *아이 러브 몽골*, 27-31. 서울: 나그네, 2018.
윤인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제42집 (2008): 72-103.

왕대일. "나그네 '게르': 구약 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집 (2001): 101 - 121.

장남혁. "국내 이주자 선교의 과제와 방향." *선교와 신학* 제42집 (2017): 343 – 371.

장동민 외 9명. "이주 노동자의 한국사회에의 통합을 위한 신약성경해석 시론." *하나님 나라와 이주 노동자 선교,* 37-8.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4.

장신근.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교육: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교육교회* 357권 (2007): 25-30.

장지혜. "노자 사상으로 본 한국 다문화사회의 갈등 원인과 대안."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제14집 (2023): 59-77.

장훈태. "다문화 사회와 교회의 선교적 대응." *복음과 선교* 제9호 (2008): 11-46.

정현곤.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선교적 접근 연구-다중성 정체성을 품는 신적 포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5.

조귀삼. “다문화 에큐메니즘 현상에 따른 문화충돌과 사회통합 도구로서 한국교회의 역할.” *복음과 선교* 제13호 (2010): 77-04.

______. “바울의 선교원리.” *사도바울의 선교신학*, 101. 안양: 세계다문화미디어, 2013.

조성희. “깔뱅 신학에서 그리스도와 연합(Unio cum Christo)의 개념 연구.” Th.D.,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2.

조영광,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방인 개종자 멤버십 비교 연구: 에베소서 2장11-20절을 중심으로.” M.Div.,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5.

조용환.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23. 파주: 교육과학사, 2022.

--------. “질적 기술, 분석, 해석.” *질적 연구 방볍과 사례*, 37. 파주: 교육과학사, 2022.

조윤진. “현대신학과 몰트만의 종말론.” *Time*. March 31, 2023. http://blog.naver.com/sosin279/8266290.

전숙자 외 2명. “다문화 사회의 현실과 쟁점.”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16. 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9.

정봉현.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이주민 선교의 특성과 한국교회의 대응방향.”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춘계학술대회* 통권22호 (2015), 1-23.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제43집 (1995): 79-95.

정정미. “다문화적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회의 교육적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제24권 (2009): 281-05.

정현숙.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동향과 과제.” *언론과 정보* 제8호 (2002): 65-91.

최경구. “조합주의의 등장과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90-91. 서울: 한나래, 1993.

최신일 외 1명.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실태 및 선교 방향성 연구.” *신학과 실천* 제43호 (2015): 595-22

폴 김. “넘치는교회 사역 소개,” *제10회 국제이주자선교포럼* 자료집 (2017): 50-55.

한국일 외 5명. “이주민 선교를 위한 종교와 문화이해.” *이주민선교와 신학*, 173-81.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하용조. *단숨에 읽기 온누리교회 20년*, 82. 서울: 온누리교회, 2006.

허은열. “국내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무슬림 공동체.” *다문화 사회와 관점에서 본 국내 무슬림 공동체*, 93.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2.

홍주민. “교회의 본질로서 디아코니아.” *신학연구* 제45집 (2004): 239-81.

황종하.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 유형 연구.” 박사학위논문, 개신대학원대학교, 2020.

Bavinck, J. H.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1964.

Bogdan, R. C. & Biklen, S. K.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5th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2007.

Bolt, Peter G. "Mission and Witness." *In Witness to the Gospel: The Theology of Acts*, 191-214. Grand Rapids: Eerdmans, 1998.

Bonhoeffer Dietrich. *Santorum Communio: A Theological Study of the Sociology of the Church.* tr. by Reinhard Krauss and Nancy Lukens, Minneapolis, MN: First Fortress Press, 1998.

Bosch, David J. *변화하고 있는 선교 (Transforming Mission)*. 장훈태 외 1명 역. 서울: CLC, 2000.

Coote, Robert T. & Stott, John. *Down to Earth Religion and Culture: Studies in Christianity and Culture.* Grandrapids, Michigan: Eerdmans, 1980.

Dulles, Avery. *Models of the Church*,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1974.

Foster, Charles R. *Embracing Diversity: Leadership in Multicultural Congregations.* Herndon, VA: The Alban Institute, 1997.

--------.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Adaptive Challenge of Mainline Protestant Education in Forming Faith.* Eugene, OR: Cascade Books, 2012.

Freeman, David N. New York: Doubleday, 1992.

Hiebert, Paul G. *선교와 문화인류학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외 3명 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2002.

Groody, Daniel G. *A Promised Land, a Perilous Journey: Theological Perspectives on Migr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8.

Guelich, Robert A. *WBC 성경주석: 마가복음(상)*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4A: “Mark 1-8:26”). 김철 역.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1.

Hartley, J. E. *Leviticu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2.

Hays, J. Daniel. *From Every People and Nation: A Biblical Theology of Race*.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14. Apollos, 2003.

Kaiser, Walter C.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Israel as a Light to the Natio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0.

Kraft, Charles. *기독교와 문화(Anthropology for Christianity in Culture).* 임윤택 외 1명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Livingstone, Greg. *Planting Churches in Muslim Cities*. Grand Rapids, MI: Baker House, 1993.

Lohfink, Gerhard.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 정한교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5.

Luther J, Kim. *Contextualization in Diaspora Missiology*. 31-42. Journal of Asian Mission 15, 2014.

Nissen, Johannes. *신약성경과 선교(New Testament and Mission).* 최동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Osborne, Grant. *사도행전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Acts).* 김일우 외 1명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6.

Pazmino, Robert W. *God Our Teacher.* Grand Rapids, Mich: Baker of Academic, 2001.

Peterson, David G.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9.

Ramsay, William M. *St. Paul the Traveller and the Roman Citizen.*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2.

Rhoads, David. *Reading Mark, Engaging the Gosp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Rosner, Brian S. "The Progress of the Word." *In Witness to the Gospel: The Theology of Acts*, 215-33. Grand Rapids: Eerdmans, 1998.

Stendahl, K. *Paul among Jews and Gentil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Stott, John R.W.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75.

Taylor, Charles. *Multicultu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Van Houten, Christiana.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 (The Alien in Israelite Law)*. 이영미 역.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Volf, Miroslav. *배제와 포용(Exclusion and Embrac).* 박세혁 역. 서울: IVP, 1996.

Von Rad, G. *국제성서주석 1: 창세기 (Das erste Buch Mose: Genesis).* 김동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Volker, Küster. *마가복음의 예수와 민중(Theologie im Kontext. Zugleich ein Versuch über die Minjung-Theologie).* 김명수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6.

Wall, Robert W. *Community: New Testament Koinonia.* i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1, ed., 1992.

Winter, Ralph D. 비서구 선교운동사 *(The 25 Unbelievable Years - William Carey Library, 2005)*. 임윤택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2.

Wright, Christopher J. H.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6.

국민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23. 11월. https://kcohesion.go.kr/PCNC/contents/P30300000000.do?schM=view&id=20231130165145267135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 9월호.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est=/result/bobs/227&fn=temp_1706523537625100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 2월호.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est=/result/bobs/227&fn=temp_1713314748084100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819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4 제4차 에큐포럼.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116. 2024. 4. 16 접속.

http://goslm.or.kr/greeting. 2024.4.12 접속.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73. 2024. 4. 16 접속.

nasom.or.kr. 2024.4.13 접속.

https://m.pckworld.com/article.php?aid=9809568937. 2024.4.11 접속.

http://www.missiontoc.net/bbs/board.php? bo_table=s2_. 2024.4.11 접속.

http://www.onnurimcenter.org. 2024.4.12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110124124000069.

약력(VITA)

강종복은 1961년 충정북도 추풍령에서 태어났다. 그는 1985년 경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복음신학원에 편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했다.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선교사로 파송되어 홍콩순복음교회 담임, 싱가폴한인순복음교회 담임, 하와이호놀룰루순복음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였다. 2010년 한국으로 귀임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 직할성전, 여의도순복음목포교회, 남구성전, 은평성전에서 담임목사로, 오산리최자실기념기도원 부원장 사역하였다. 그리고 현재 여의도순복음벧엘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기하성 교단 소속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1991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94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를 공부하였고, 2005년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문학석사 학위(MAICS)를 공부하였고, 현재는 ITS 신학대학원(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차문화학박사(DICS)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다문화 신앙공동체 형성방안'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문화교차학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지난 38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겨왔다.

앞으로 진행될 사역을 통해 필자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며,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목회를 통해 건강한 다문화적교회를 세우는 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1987년 조영숙과 결혼하여 슬하에 예은, 예찬 1남 1녀를 두고 있다.